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 영 애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이향숙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

주영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이향숙

인 준 서

이향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경북지역 혼례문화 전반에 관하여 종가, 기혼자, 미혼자로 나누어 혼례가 어떻게 변화되고 지속되어 왔는지, 또한 향후 어떤 형태의 혼례문화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종가의 혼례를 통하여 전통혼례문화의 요소를 바람직한 것은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기혼자를 통하여 현재 혼례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혼자를 통하여 향후 한국 혼례문화의 바람직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전통혼례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경북지역의 10개 종가의 종손과 종부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및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혼 시 경북지역의 10개 종가에서는 모두 증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고, 4개 종가를 제외한 6개 종가에서 전통혼례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 지역은 1950년대부터, 경상도 지역은 1960년대부터 신식 혼례를 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경상도 지역이 서울 지역보다 신식 혼례의 도입이 늦었음을 알 수 있다. 10개의 종가 중 6개 종가에서 전통혼례를 치룬 것은 경상도지역이 신식혼례의 도입이 늦었던 점도 있지만 종가로서 고유의 전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종손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종가는 퇴계 이황의 학맥을 중심으로 누대에 걸쳐 혼인한 가문이 많았으며 집안마다 혼인이 잘되는 가문, 혼인을 피하는 가문이 따로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 만난 대다수 종부들이 친가와 시가 간에 친족들이 서로 ‘오고

간' 혼인을 통해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혼인시 일반적으로 보는 궁합도 증가에서는 따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가의 혼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납채의 경우 10개 증가 대부분이 청혼서와 허혼서, 사주단자, 연길을 주고받는 의식을 거행했지만 오늘날에는 기혼자들의 약 70%이상이 청혼서와 허혼서, 사주단자와 택일단자를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자들은 모른다고 주고받지 않겠다고 대부분이어서 납채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그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례에 있어서 의식과 절차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한글 납채서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보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3. 납폐의 경우 함은 10개 증가 중 경주최씨를 제외한 9개 증가에서 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함이 들어간 시간은 대부분 대례 당일 신랑과 함께 들어갔으며, 시댁에 드리는 예단의 종류에는 이불과 옷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물의 경우에도 형편이 여의치 않더라도 간소하게나마 예물을 주고받았는데 그 이유는 예물교환이 혼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부가 해가는 혼수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았는데 장롱과 화장대는 신랑이 준비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예단, 예물을 주고받는 여부에 대하여 기혼자와 미혼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일수록 예물, 예단을 주고받겠다고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경제 성장기에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예물과 예단의 고급화에 의한 반작용 현상과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등에 의한 복합적 요인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혼인절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혼례식의 경우 경북지역 10개 종가 중 전통혼례를 치른 6개 가문은 혼례식을 신부집 마당에서 거행했지만 앞으로는 예식장과 호텔 내 식당에서 올리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가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정의례의 하나인 혼례도 전문 의례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상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 신세대들은 과거 전통혼례 방식의 복잡함을 거부하고 간편하면서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식전문식장을 선호하게 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5. 현구고례의 경우 경북지역 10개 종가 모두 시댁에서 시부모와 문중 어른들을 비롯한 친척들을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중에서는 며칠 동안 친지들의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회가를 행한 사례도 있었다. 폐백 대상의 경우 과거 시댁 어른들만으로 한정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신랑 측 뿐만 아니라 신부 측 부모와 친척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폐백음식의 경우 과거 종가에서는 잔유과, 빙사, 대추, 밤 등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친정집에서 직접 해 갔으나 현재는 폐백음식전문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백 후 시부모님께 드리던 조석 문안은 종가에서는 1개월에서 3년까지 행하는 가문이 많았으나 현재는 안부전화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례 후에 이루어지는 신방엿보기와 신랑다루기 등의 풍습은 과거엔 행하였으나 오늘날은 신혼첫날밤의 장소 이동 등으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혼례문화는 사회의 근대화와 글로벌화의 추세에 따라 그 형식과 절차가 많이 변했거나 사라지기도 했고, 때로는 신식혼례에 맞게 새롭게 생겨나기도 했다. 전통혼례의 의미와 절차를 잘 지키고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의 혼례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및 범위	4
II. 이론적 배경	7
1. 전통혼례의 형식과 절차	7
2. 한국사회변동에 따른 혼례문화의 변화	15
3. 경북지역 혼례문화 배경과 생활문화사적 의의	25
III. 연구방법	34
1. 사례조사	34
2. 실태조사	37
IV. 경북지역 종가의 혼례문화 사례분석	40
1. 종가의 개괄적 분석	40
2. 종가 혼례문화에 대한 분석	59
3. 종가 혼례문화의 특징	89
V.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실태분석	9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92
2. 혼례문화에 대한 분석	95

VI. 논의 및 결론	161
1. 논의	161
2. 결론	165

참고문헌

Abstract

Epilogue

부록

표 목차

<표 2-1> 전반적인 전통혼례절차 선행연구	11
<표 3-1> 사례조사 연구대상 선정	35
<표 3-2> 면접 시기 및 장소	36
<표 4-1> 종가 면접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58
<표 4-2> 혼담과 배우자 선택	63
<표 4-3> 종가 면접대상자의 납채 현황	65
<표 4-4>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보내는 예단	67
<표 4-5>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	68
<표 4-6> 혼수용 세간	70
<표 4-7> 종가 면접대상자의 대례 현황	80
<표 4-8> 종가 면접대상자의 현구고례 현황	84
<표 5-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94
<표 5-2> 의혼	98
<표 5-3> 납채	103
<표 5-4> 예물	107
<표 5-5> 예물에 대한 인식차이	108
<표 5-6> 예단	113
<표 5-7> 예단에 대한 인식차이	114
<표 5-8> 함 받기	120
<표 5-9> 함 보내기에 대한 인식차이	121
<표 5-10> 혼례식	127
<표 5-11> 혼례복 형태	128

<표 5-12> 이바지음식 교환여부와 혼례음식 유형별 인지도	132
<표 5-13> 혼례음식 유형별 필요성	134
<표 5-14> 혼례절차에 대한 중요도	138
<표 5-15> 통과례의 필요성	139
<표 5-16> 통과례의 필요성 검증	141
<표 5-17> 전통혼례 계승 필요성	142
<표 5-18> 혼례관습의 계승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145
<표 5-19> 혼례절차에 대한 학습 경험	146
<표 5-20> 전통 혼례관과 혼례절차에 대한 교차분석	148
<표 5-21> 폐백	156
<표 5-22> 폐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157
<표 5-23> 신혼여행지, 신혼여행 후 첫 방문지 및 처가 체류기간	160

그림 목차

<그림 2-1> 평균 초혼연령	23
<그림 2-2> 사례 연구대상 종가가 위치한 지역	31
<그림 5-1> 통과례의 필요성	139
<그림 5-2> 전통혼례 계승 필요성 의식정도	142

사진 목차

<사진 4-1> 의성김씨 천전과 귀봉종가 일부전경	40
<사진 4-2> 풍산류씨 서애종가 일부전경과 사당	42
<사진 4-3> 풍산류씨 서애종가 혼서지	43
<사진 4-4> 풍산류씨 서애종가 사주단지 및 연결서	44
<사진 4-5> 광산김씨 퇴촌공파 쌍벽당(雙碧堂) 일부전경과 사당	44
<사진 4-6> 동래정씨 석문(石文)파의 서석지	46
<사진 4-7> 안동장씨 경당종가 일부전경	47
<사진 4-8> 진성이씨 송재종가 전경	48
<사진 4-9> 안동권씨 충정공파 ‘충재(沖齋)종가’ 숫을대문과 박물관	50
<사진 4-10> 전주류씨 정재종가 일부전경과 사당	51
<사진 4-11> 전주류씨 정재종가 혼서지 보	52
<사진 4-12> 전주류씨 정재종가 혼서지	52
<사진 4-13> 전주류씨 정재종가 연결서	53
<사진 4-14> 전주류씨 정재종가 혼서지 및 단지	53
<사진 4-15> 전주류씨 정재종가 종부가 예물로 받는 치마저고리	53

<사진 4-16> 전주류씨 정재종가 종부가 예물로 받은 새색시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54
<사진 4-17> 전주류씨 정재종가 종부가 예물로 받은 속저고리와 천담복 ..	54
<사진 4-18> 영천이씨 농암종가 일부전경	55
<사진 4-19> 영천이씨 농암종가 혼서지와 사주단자	56
<사진 4-20> 영천이씨 농암종가 연길서	56
<사진 4-21> 경주최씨 사성공파 ‘충의당(忠義堂)’ 일부전경	57
<사진 4-22> 안동장씨 경당종가 종부(1965년 혼인)가 혼수용 세간을 넣어온 상자	69
<사진 4-23> 의성김씨 천전파 귀봉종가 종부(1940년 혼인)의 농	70
<사진 4-24> 풍산류씨 서애종가 종손과 종부의 혼례식 사진(1948년)	72
<사진 4-25> 의성김씨 천전파 귀봉종가 종부(1924년 혼인)가 첫날밤을 지낸 방	77
<사진 4-26> 풍산류씨 서애종가 종손과 종부 폐백례(1948년)	81

I. 서론

1. 문제제기

사람이면 누구나 거쳐 가는 인생의 마디에서 행하는 의례를 ‘통과의례(通過儀禮)’라고도 하고 또는 ‘일생의례(一生儀禮)’라고도 한다. 그 중 혼례(婚禮)는 성인이 된 남녀가 사회적 기초 단위로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자격을 공인받는 것으로 신랑·신부의 성적, 심리적, 경제적인 결합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해 나간다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인륜지대사로 일컬어 왔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서 혼례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날의 복되고 희망 찬 삶을 기대하며 행해졌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유교문화의 영향에 따른 가족중심주의의 가부장적 사회로 혼례는 양가의 결합으로 여기고 결코 소홀히 다룬다든지 허술해서도 안 되며 물질로 인해 한 개인의 가정에 부담스러운 짐이 된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도 안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자본주의적 사고, 개인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남녀평등사상 등의 영향으로 혼례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면서 혼례의 의미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의례절차도 크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혼례의 무규범,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한 외형적 허례의식, 전통 혼인행례 의미의 왜곡, 행례의 무의식적 서구화 추종 등 혼례문화가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황경애, 1994).

특히 한국사회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을 비롯한 서구의 문화가 유입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통혼례방식에서 일본 및 서구의 신식혼례가 혼용되어 있고 그 중 많은 부분이 서양식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8.15광복을 맞으면서 미국식의 문화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생활양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자유연애의 풍조가 생기면서 혼례관행

역시 점차 서구식으로 변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로 인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와 함께 서구문화가 유입되어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산업 및 경제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면서 가정의례의 하나인 혼례문화도 시대변화에 따라 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신부집 마당에서 행해졌던 혼례식이 전문식장으로 장소가 바뀌면서 혼례예식 자체가 하나가 상업전략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예식은 예식을 치르는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는 의미보다는 상업화되고 상품화된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과거 물질에 불과하던 혼수나 예단 예물 등은 자본주의 경제 발달과 함께 상업화된 의례기관들이 생기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혼수 판촉전 등과 같이 혼수에 대한 상품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업화와 현대화로 인하여 한국사회 고유의 전통인 혼례는 본래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왜곡 또는 굴절되어가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소수 상류계층에서는 혼례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 결과 가장 신성해야 되는 혼례가 예단, 예물, 혼수, 혼례식장, 함 보내기 등의 물질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가족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혼례에 관련된 법이 1961년 재건운동본부에서 제정한 『표준의례』,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1973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1989년 대대적으로 개정된 『혼인법』 등으로 몇 차례 개정되면서 이와 함께 혼례문화도 많이 변화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경공업 중심이었던 공업정책을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탈바꿈되고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국사회는 당시 유래 없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게 되었다. 국민소득의 향상은 곧 소비력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소비가 널리 확산되었으나 이 이면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났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과도한 혼수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에 사회경제적으로 IMF를 맞게 되면서 혼인 연령이 점차 늦어지게 되었는데 IMF이전보다 3세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통계청, 2007). 이 시기부터 기존의 예식장 문화에서 탈피하여 웨딩컨설팅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바쁜 신랑 신부를 대신하여 혼인 스케줄을 관리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웨딩플래너라는 신종 직업이 생겨나면서 혼례문화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야외촬영이 스튜디오 내의 리허설 촬영으로 바뀌게 되었고, 혼례식 또한 새로운 형태의 예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벤트 예식이 생겨나게 되면서 현대 신랑 신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이르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사회 혼례는 여러 사회적 변동을 거치면서 그 의미가 축소 왜곡되기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혼례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서양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정신적 측면에서는 전통의 맥을 계승하고 있어 현행 혼례문화는 전통적인 특성과 근대적인 특성들이 서로 혼재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혼례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생활문화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변동되면서 그 형식과 절차 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많은 부분이 변형되기도 하고 경시되기도 했지만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의 생활문화임에 틀림없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재발견되어야 하며 계승,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 혼례문화 전반에 관한 흐름을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북지역은 현재 증가가 가장 많이 존속하는 곳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산업화 근대화의 속도가 느리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혼례에 있어서 경북지역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경북지역 혼례문화 전반에 관하여 증가, 기혼자, 미혼자로 나누어 혼례가 어떻게 변화되고 지속되어 왔는지, 또한 향후 어떤 형태의 혼례문화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증가의 혼례를 통하여 전통혼례문화의 요소를

바람직한 것은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기혼자를 통하여 현재 혼례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혼자를 통하여 향후 혼례문화의 바람직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혼례는 선조들의 생활문화의 발자취 중의 하나이므로 학문적 생활문화사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범위

본 연구자가 경북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북지역은 수많은 종가가 산재해 있는 곳으로 종가의 역사는 오백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녔다. 2003년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북지역에는 2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종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한국국학진흥원, 2007a). 종가는 종손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생활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전통문화를 수호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경북지역은 여타지역에 비해 박제화(剝製化)되지 않고 일상적 삶을 구성하고 있으며 근대화·도시화의 영향으로 크고 작은 변화는 겪어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듬살이를 이루고 있다. 또한 보물과 문화재로 지정된 종가에는 ‘봉제사 접빈객’이라는 본분을 다하며 조상 제사를 지내고 닦선 손님들을 반가이 맞이하면서 오랜 전통을 이어 내려 오고 있다(한국국학진흥원, 2007a). 따라서 경북지역은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이어가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지로 삼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북지역 10개 종가의 종손과 종부가 치른 혼례를 중심으로 하여 종가의 혼례문화를 분석하고, 기혼자를 대상으로 오늘날 혼례문화를 분석하며, 미혼자들에게는 향후 자신이 치르고자 하는 혼례문화 방식의 분석을

통해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화기부터 미래까지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변화와 계승, 향후 혼례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가의 혼례문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북지방에 거주하는 종가의 종손과 종부가 치른 혼례의 다양한 의식을 고찰하였다. 종가는 한 성씨의 문중에서 종손으로 줄곧 이어온 가문의 큰집이며 이들 종가는 종택을 유지하고 가문의 생활문화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 과거에는 종가를 중심으로 가문의 부와 명예, 그리고 각종 행사가 집중되었고 일상생활의 문화가 종가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발달하였다(서리나·유명의, 2003). 따라서 종가는 지역 생활환경의 중심 역할을 하였고 주변 마을의 의·식·주생활 및 가정의례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을 종가의 종손과 종부로 하였다.

종가의 혼례문화는 종손과 종부, 그리고 차세대 종손과 종부로 이어지면서 대를 이어 전승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종가가 위치한 동족마을의 문중이나 주변 사람들의 혼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종가가 위치했던 지역이나 마을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기호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현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혼례문화 경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기존의 혼례문화 변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혼례식을 올린 연대별로 연구되어진 부분이 많아 기혼자 전체의 혼례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례를 올린 기혼자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여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현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향후 혼례문화의 경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전망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미혼자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혼례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경북지역의 종가를 통한 사례연구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혼자, 미혼

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후 새로운 혼례문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800년 후반부로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를 1800년 후반부로 규정한 것은 사례 연구 중 최고령 종부가 1924년 생으로 1940년에 혼례를 치른 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 할머니 대의 혼례형식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북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경북지역에는 “종가 하나 끼고 돌아가지 않는 골이 없다.” 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수많은 종가가 산재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촌락보고서 『조선의 취락(朝鮮의 聚落)』에 따르면 전국의 동성마을 15,000개 중에서 경상북도가 1,901개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국학진흥원, 2007a). 이들 종가는 가문의 큰집으로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적 측면에서 산업화, 근대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가의 혼례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경북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통혼례의 형식과 절차

혼례(婚禮)란 혼인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의식절차이며 혼례의식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된 가정이 형성된다. 한국은 예로부터 혼례를 인륜지대사라 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겨왔다. 혼례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행사로서 큰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이러한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짝을 찾고 인정에 합하는 것¹⁾이다. 예부터 혼례는 부부관계의 시작이자 곧 사회 구성단위의 출발점이 되므로 혼례절차 역시 그 의미와 절차를 신성시하여 거행되었다.

혼례문화(婚禮文化)는 학습된 행동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계승되는 사회적·역사적인 산물의 가치를 지닌 혼례행례로 정의할 수 있다(황경애, 1994). 이는 혼례식을 행하기 위한 모든 혼례 절차와 의미까지 담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혼인의 의식을 행하기 위한 의식과 절차를 비롯하여, 예단, 예물 등의 혼수, 대례시의 혼례음식 및 혼례복, 신랑다루기 및 신부회가의 풍습을 포함해 혼례문화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혼례문화는 그 형태와 절차가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시기와 형태에 따라 대체로 크게 ‘입장제(入丈制)’, ‘친영제(親迎制)’, ‘반친영제(半親迎制)’로 구분할 수 있다(장하경, 1996).

1) 전통혼례의 원형

‘입장제(入丈制)’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오랜 기간을 머무르는

1) 『禮記』, 郊特性 第十一, 天地合而后萬物興焉 夫昏禮 萬世之始也 取於異姓所以附厚別也

제도로서 이와 관련한 고구려 혼인²⁾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언약으로 혼인이 정해지면, 여자집에서는 본채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 한다. 날이 저물면 사윗감이 여자 집 문 앞에 와서 제 이름을 말하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녀와 함께 유숙할 것을 여러 번 간청한다. 그녀의 부모가 이를 듣고 서옥에서 동숙하도록 허락한다. 곁에 돈과 비단을 놓고 자녀를 낳아 성장한 후에 부인과 더불어 남자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고구려의 ‘서옥제(婿屋制)’에 관한 기록으로 혼인 초에 신랑이 신부 집에 장기간에 걸쳐 머물면서 처가와 본가를 왕래하는 내용의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의 관행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소위 ‘장가간다’, ‘장가든다’라는 말은 이러한 서류부가의 관습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러한 관습은 고려 이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박혜인, 1991). 신부의 집에서 혼인을 치르는 관습은 20세기 초반 서구식 혼례문화가 자리 잡기 이전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홍나영 외, 2002).

위의 기록 중 곁에 돈과 비단을 두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 혼인 시 물질적인 재화의 교환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北史』³⁾의 기록에 의하면 신랑 측에서는 잔치를 위한 술과 돼지를 보낼 뿐 이외의 혼수를 크게 장만하고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입장제(入丈制)’는 조선조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개국 일등공신이었던 정도전(鄭道傳)을 중심으로 주창되었던 ‘배불승유(排佛崇儒)’가 국가통치의 기본이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예(禮)로써 한 집안을 다스리고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따라서

2) 『三國志 魏志 東夷傳』 高句麗傳, 其俗作婚姻 言語既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婿屋 婿暮至 女家戶外 自明跪拜乞 得就女宿 如是自再三 女父母及聽 使就小屋中宿 傍頓錢帛 至生子已長大 及將 歸家

3) 『北史 卷 94 列傳』 第 82 高句麗傳, 婚嫁娶 男女相悅即爲之 男家送猪酒而已 無財聘之禮 或有受財者 人共恥之 以爲賣婢

향교와 향약을 기반으로 한 성리학자들에 의해 ‘친영제(親迎制)’가 새롭게 혼례 절차의 이상형으로 제시되었다. 주자가례에 의한 ‘친영제(親迎制)’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사례(四禮) 혹은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의 육례(六禮)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혼례도 유교화하여야 한다는 성리학자들의 믿음에 근거하여 도입된 것이었다. ‘친영(親迎)’이란 혼인 전날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혼인식을 치른 뒤 그대로 함께 사는 것으로 그동안의 신부측 중심이었던 입장제에 반하는 신랑 측 중심의 혼례제도였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입장제의 관습을 따랐던 대중들에게는 쉽게 수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서류부가의 전통 때문에 친영(親迎)이 유난히 대중들에 의해 강한 저항을 받게 되자 16세기에 이르러 화담 서경덕(徐敬德, 1489-546) 선생의 주창에 의하여 그 절충안인 ‘반친영제(半親迎制)’가 제시되었다. 이는 입장제와 친영제가 혼합된 형태로 혼인식은 신부 집에서 거행하지만 신부 집에 체류하는 기간을 극도로 단축시킨 것이다. 그러나 혼인식을 치른 뒤 바로 다음날에 친영을 하는 우귀(于歸), 이틀을 묵고 삼일 만에 친영의례를 행하는 ‘삼일대반(三日對飯)’, 해묵이, 달묵이 등 그 내용면에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해인, 1991).

즉, 조선은 유교국가로서 국가의 모든 문물제도와 일상의 관행까지도 중국의 예제와 일치시키려 하여 혼인도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를 것을 강요했었다. 혼례과정 또한 중국의 혼례는 주나라의 종법제도에 따라 육례(六禮)는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예를 따르고 있었고 주자가례에서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사례(四禮)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에는 중국의 육례와 주자가례의 사례가 서로 혼용되어 도입되었다(조희선·류미현, 1999). 이러한 혼례절차가 대중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이 되어서부터였으며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와 같은 유교적 절차 또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의 혼례구조로 정착하였다. 통념상 우리가 전통혼례라고 하는 것은 서구식과 일본식의 영향을 받기 이전까지의 이 시기의 혼례를 뜻하는 것이며 이것은 1900년대 초반 서구식 혼례가 일본의 혼례 요소와 함께 유입되어 예식장 혼례문화로 바뀌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박혜인, 2001). 또한 한국에서 주자가례와 이를 준거로 하여 편찬된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도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규범적 이상형일 뿐이었고 한국에서 실제로 관행되었던 절차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언길(涓吉), 납폐(納幣), 대례(大禮), 현구고례(見舅姑禮)의 6단계 절차였다(장철수, 1995b). 즉 한국의 규범적 혼례절차와 관행적 혼례절차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관행적 절차를 한국 전통혼례의 원형으로 보고 있으며 현대의 혼례절차와도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통혼례라 함은 서구식의 영향을 받기 이전, 즉 예식장 혼례문화로 바뀌기 이전까지의 혼례를 전통혼례로 정의한다.

2) 전통혼례의 절차

본 연구에서는 반친영제(신부 측을 중심으로 한 입장제와 신랑 측을 중심으로 한 친영제를 보완한 형태)와 관행적 혼례절차(의혼, 납채, 언길, 납폐, 대례, 현구고례의 6단계)를 전통혼례의 기준으로 삼고 박혜인(1991), 황경애(1994), 이길표·최배영(2000), 김인옥(2007), 안혜숙(2010), 주영애(2010)의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선례, 본례, 후례와 같은 전통혼례절차의 과정을 바탕으로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대례(大禮), 현구고례(見舅姑禮)의 5단계로 혼례문화의 변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표 2-1> 전반적인 전통혼례절차 선행연구

	박혜인 (1991)	황경애 (1994)	이길표·최배영 (2000)	김인옥 (2007)	안혜숙 (2010)	주영애 (2010)
선례	의혼 사성 택일 합	의혼 청혼서/사주 허혼서/택일 합	중매로 청혼 사주/청혼서 연길/허혼서 합	혼담 사주 택일 납폐	사주 궁합 택일 합 예단 상견례 (약혼식)	의혼 납채 납폐
본례	신랑 초행 전안 교배 합근	초행 전안 교배 합근	전안 교배 합근	혼례식	혼례식	전안 교배 합근
후례	신랑 재행 신부 신행 폐백 사당알현 근친	초야 장인, 장모 인사 우귀 현구고례 사당폐백 근친	신랑의 관례벗김 폐백 사당폐백 신부의관례벗김 합례 신행	우귀 현구고례	현구고례 신혼여행	우귀 현구고례

(1) 의혼(議婚)

의혼(議婚)이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신랑 집과 신부 집이 서로 혼사(婚事)를 의논하는 절차이다. 남녀가 혼인할 연령이 되면 중매인을 통해 혼담이 오고가게 되는데, 『주례(周禮)』⁴⁾에 의하면 이 때 혼인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개 신랑 신부의 의견 보다는 양가 집안의 부모들에 의한 것이었다(박혜인, 1988). 주자학의 도입 이후 유교적 예 의식에 의해 조선시대는 부계사회로 변모하여 가부장적 가족질서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배우

4) 주관(周官)이라고도 하며 유교 경전의 하나로 6편(篇)으로 되어 있다. 주공(周公:BC 12세기)이 찬(撰)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공이 예(禮)를 제정했다는 설에 갖다 맞춘 것이라 하여, 옛날부터 그 진위(眞僞)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의례(儀禮)》 《예기(禮記)》와 합쳐 삼례(三禮)라 불리고, 가장 기본적인 예를 설명한 것으로 여겨지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한대(漢代)로 간주되어 삼례 중 가장 늦다.

자의 선택 또한 부모와 중매인을 중심으로 한 중매혼이 성행하였다. 중매인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으로 양가의 집안을 잘 알거나 한쪽 집안을 잘 아는 사람으로 보통 중신애비, 중신애미라 불렸다(김인옥, 2011). 의혼이 오갈 때는 먼저 성씨(姓氏)를 살펴보았으며 혼인 결정전에 궁합을 보기도 하였다.

(2) 납채(納采)

납채(納采)는 양가 사이에 의혼(議婚)이 이루어진 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인을 청하는 서신을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신랑집으로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 예(禮)를 행하는 것이다(최배영, 1999). 이 때 납채(納采)의 징표로 삼는 것이 ‘사주(四柱)단자’를 보내는 것인데, 사성(四星), 주단(柱單), 사주(四柱)라고도 부르는 사주단자는 신랑의 생년, 월, 일, 시를 쓴 것을 말한다. 신부 측에서는 사주단자가 도착하면 대개 신부의 부모가 마루에 상을 놓고 게 된다. 지방에 따라서는 상 위에 정화수를 떠 놓기도 하였다(장철수, 1995b). 사주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신부의 생년, 월, 일, 시를 참고하여 ‘살’을 피해 혼인 날짜를 결정하여 허혼서와 함께 신랑 측에 전하는데, 이를 연길(涓吉)이라고 한다. 이때 택일의 결정권은 절대적으로 신부 측에 있다. 연길을 보낼 때 신랑의 옷 치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양 또는 의제라고 하며 이것은 혼례가 끝난 후 신랑이 갈아입을 새 옷을 준비하는 절차이다.

(3) 납폐(納幣)

납폐(納幣)는 허혼이 이루어진 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서(婚書)인 서신과 폐백인 채단을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그것을 받고 답신을 보내는 절차이다(최배영, 1994). 이 때 혼서(婚書)는 영애(令愛)를 아내로 주심을 허락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선인(先人)의 예(禮)로 삼가 납폐의 의식을 행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이길표·최배영, 2000). 또한 납폐물품은 청홍채단, 혼수

(婚需), 혼서(婚書), 물목(物目) 등이 있다. 함안에는 주머니에 씨가 있는 목화 몇 송이와 콩, 팥 몇 낱알을 넣어 주머니에 끈을 맨다. 목화는 목화처럼 살림이 퍼지라는 의미이고, 콩은 아들, 팥은 딸을 상징하였다. 혼인을 성스럽고 복된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깨끗하고 길(吉)한 것을 취해야 한다고 하여 함도 대개는 하루의 시작이자 가장 신성한 시간인 ‘혼인 전 날 자정’에 보냈다(이길표, 1982).

지방에 따라 납폐물품의 내용물에는 차이가 있다. 『사례편람』에서는 납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어야 하며 많아도 열 가지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시대와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함(函)에 넣는 내용물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부유한 가정에서는 화장품, 은비녀, 은반지 등도 함께 보내기도 하였다(김인옥, 2011). 함이 들어오는 날 신부 집에서는 봉치떡을 준비하고 함 받을 자리를 마련한다. 돛자리를 깔고, 그 위에 소반을 놓고, 청홍 겹보자기를 덮은 뒤 그 위에 봉치떡을 올리고 홍색 보자기로 덮어 놓는다. 신랑 일행이 도착해서 혼서지를 전해 올리면 신부의 아버지가 혼서지를 읽고 봉치떡 위에 함을 올려놓는다.

(4) 대례(大禮)

대례(大禮)는 본례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사람이 평생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큰 의례절차라는 의미가 있다. 이 대례는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루고 신부를 맞아오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주영애, 2010). 대례는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순으로 행해진다.

전안례는 신랑이 기럭아비와 함께 신부집에 도착하여 신부의 어머니에게 나무기러기를 드리는 예이다. 기러기는 예부터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그 연을 지킨다고 하여 백년해로의 상징이었다. 그 서약의 징표로서 신부의 어머니에게 목안을 주면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여 교배례를 치른다. 교배례는 초례청에서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상대방을 마주하고 절을 하는

절차이며 이로써 두 사람은 부부로서 백년해로를 서약하게 된다.

합근례는 근배례라고도 하며 술잔과 표주박에 부부가 술을 부어 마시는 의식이다. 하나의 조롱박이 표주박 두 개로 나뉘었지만 다시 합하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녀로 따로 태어났지만 일심동체의 부부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부부의 화합을 의미한다. 표주박잔에 술을 따라 신랑 신부가 마시면 대례가 끝나고 이어서 동네잔치가 벌어진다.

혼인한 날 저녁에는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지낼 신방에 들어간다. 이 때 ‘신방을 지킨다’하여 방 밖에서 창호지 문구멍을 뚫어 엿보기도 하나 촛불을 끄면 모두 물러간다. 첫날밤을 지낸 다음 날 신랑은 장인, 장모와 처가의 근친에게 인사를 드린다(장철수, 1995b).

(5) 현구고례(見舅姑禮)

현구고례는 혼례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부와 신랑이 부부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고 신랑의 가족들에게 첫 인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신부는 시가 가족들에게 예를 올리고 신행 올 때 준비해 온 선물을 드리는 흡수과정을 통해 가족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현구고례를 올리기 전 신랑 신부는 우귀를 행하는데 우귀란 혼례를 치른 다음 날 신랑과 신부가 같이 본가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우귀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이틀을 머물고 삼일째 되는 날에 본가로 들어가는 삼일대반(三日對飯), 해묵이, 달묵이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박혜인, 1991).

우귀 전 신부 집에서는 시부모님께 드릴 폐백을 마련하며, 폐백은 일반적으로 밤, 대추, 육포, 닭을 장만한다. 이 때 신부 집에서 장만해 온 술, 닭, 밤, 대추 등을 차려놓고 시부모부터 시작하여 시조부모, 시숙부, 시고모 순으로 차례로 큰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박혜인, 1988). 시아버지에게는 대추폐백을, 시어머니에게는 고기폐백을 올리고 신부가 시부모로부터 대추를 받는 절차는 그 의미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추는 아들을 상징하는 것

으로 부계사회에서는 가계계승을 위해 아들을 낳아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폐백 후 다음 날 아침 새 신부를 위해서 신랑 집에서는 큰상을 마련해 준다. 이는 폐백음식을 마련해 준 사돈댁에 대한 답례의 의미가 담겨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 집안이 화합의 뜻이 담긴 인사를 나누었다고 할 수 있다(주영애, 2010).

2. 한국사회변동에 따른 혼례문화의 변화

지난 20세기는 한국이 정치·경제·법률·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혼례문화 역시 변했을 것이라고 보고 과연 혼례문화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국 혼례문화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한 시기 구분은 황경애(1994), 장하경(1996), 박혜인·조은숙(1998), 강정림(2000), 김인옥(2008)의 연구를 참고하고 보충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먼저 개화기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전통혼례와 신식혼례의 혼재기’로 정의하였다. 이 시기는 일제식민지기와 광복기가 공존하는 시기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전통혼례와 서양의 신식혼례가 혼재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후 1961년부터 1990년까지를 ‘전통혼례의 축소와 신식혼례의 확산기’로 정의하였으며, 이 시기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어 도시중심의 경제개발이 활성화될 때의 시기이다.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혼례비용이 많아지는 시기로 사회적으로 혼례의 병폐가 나타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를 ‘신식혼례의 보편화와 새로운 전통혼례의 방향 모색기’로 정의

하였으며 이 시기는 대중문화가 확산되고 IMF가 초래된 시기로 신식혼례는 보편화가 되었고 전통혼례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전통혼례가 혼례의 정신을 간직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재탄생해야 하는 시점이다.

1) 전통혼례의 계승과 신식혼례의 혼재기

개화기 이후부터 1960년까지를 전통혼례의 계승과 신식혼례의 혼재기로 명명하였다. 이 시기에는 일제식민지시기와 8.15해방을 맞는 광복기가 함께 혼재되어 정치적 사상적으로 가장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1900년대 초 일본의 식민지정책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의례준칙(儀禮準則)』⁵⁾을 발표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주자가례적인 예의 기준을 적용시킨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일본의 근대화론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식 강화를 막으려는 의도였다. 일제에 의해 강요된 것이긴 하나 당시 계몽운동가들 역시 전통혼례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의 폐단을 지적하며 혼례의 간소화와 신식 혼례의 도입을 주장했기 때문에 점차 신식혼례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광복 후 3년간 미군정의 통치와 1950년 발발했던 6·25전쟁 이후 미국의 경제원조는 당시 한국인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 시기는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는 의식이 확산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혼례문화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것이 혼례장소의 변화이다(이광자, 1999). 과거 전통혼례의 경우 신부의 집에서 혼인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 절차 또한 전통의례에 의한 것이었으며 의복 또한 전통 혼례복이었다. 신식혼례의 경우 1915년 서울 정동교회에서 신식혼례를 치른 최활란의 경우가 초기 신식혼례의 사례로 유명한데, 그 당시 희귀한 물건이

5) 도별로 의례준칙의 홍보에 관한 자료를 발간하였다. 전라북도의 『新正儀禮便覽』, 안동군의 『儀禮準則』, 충청남도의 『儀禮軌範』, 『忠南振興月報』 제 22호 附錄 등이 1935년 발간되었다.

었던 면사포를 하고 서양식 드레스를 입은 것으로 화제가 되었다. 또한 각 종교별 혼례도 등장하였는데 천주교회가 설립되어 혼배성사가 등장하였고, 감리교회가 건립되면서 예배당혼례가 시작되었고, 불교식, 천도교식 혼례도 시작되었다. 1920년대부터 혼례장소는 더욱 다양해지기 시작하여 예배당 이외에 절, 부민관(府民館), 동아·조선의 신문사의 강당, 식도원·명월관 같은 음식점 등에서도 이루어진다(박혜인, 1991). 신식혼례식을 올리는 예식장으로 충무로 2가의 김구 예식부, 낙원동의 문명 예식부, 명동의 천향각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신식혼례는 전통양식보다 간략한 절차, 간단한 의복, 적은 비용으로 치를 수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혼례과정에 일본 문화의 요소가 추가되어 혼례 후 치르는 잔치를 피로연이 대신하기 시작하고 답례품이라는 요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피로연은 혼인식 후 다과를 내고 떡을 돌리는 정도의 단출한 것이었으나, 과도기를 거쳐 오늘날의 피로연의 형태로 탈바꿈하였다(이광자, 1999).

개화와 더불어 유입된 서구의 개인주의 가치관과 자유연애사상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던 전통적 혼례문화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지만 이 시기의 혼인은 여전히 당사자 중심이라기보다 신분, 가문 등 문벌 위주의 혼인이어서 형식과 외형적 격식에 치중하였다. 특히 혼례 선택과정도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사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일부 여성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른바 ‘신여성’이라는 개념이 여성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이배용, 1999). 하지만 이는 일부 소수의 계층에 한정되었을 뿐이고 당시의 혼례관 또한 아직 전통사회의 것과 다름이 없었다. 박혜인(1991)의 조사에 따르면, 광복직후(1945년)까지도 대부분 중매인을 통하여 부모의 의사로 혼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배우자 선택 유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시기까지도 궁합을 보고 사주단자를 주고받고 길일을 택하여 혼례일을 잡는 것은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이광수(1936)의 ‘순

수한 생물학적·도덕적, 그리고 정신애(精神愛)적 결합'이라고 한 혼례에 관한 정의를 보면 혼례관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이전과는 바뀌어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광수, 1936). 또한 광복 후 직접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서구의 문물은 한국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고, 생활양식의 변화는 곧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연애, 신혼여행 등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시기로 볼 수 있다(유가호, 2008).

이 시기의 혼수는 문헌적 고찰이 어려우나 1930년대에 발표된 『신정의례편람(新訂儀禮便覽)』에 의하면 납폐의 폐단에 대해 지적하기를 「고대로부터 청홍 두끝을 존중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세속이 청홍두끝 외에 혼수라 하여 다량의 의자(衣資)물품을 넣고 또는 금전을 첨가하여 보내고 있어, 자녀를 매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김주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혼수는 비교적 간단하게 마련되었고 예단 또한 간단하거나 혹은 생략되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개발 이전에는 대부분 친영의 풍습에 의해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가서 사는 '부거제'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 측은 혼수에 대한 부담은 적었고, 신부 측 또한 기본적 살림살이만을 준비하면 되었다. 무턱대고 있는 대로 보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재물을 앞세운 함가득한 비단 폐물은 오히려 상스럽다는 인식이 당시에는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이광자, 1999).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혼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예식 장소가 신부의 집에서 예식장으로 바뀌었을 뿐 전통적인 과정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이배용, 1999). 박혜인(1988)은 전통혼례의 풍습이나 성격이 신식혼례의 보편화 과정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서구화되었으나 새로운 형태로 신식혼례와 결합하여 변형·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통혼례의 절차인 사례(四禮)의 의미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절차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과거의 혼례와 신식혼례의 병존 시기로 일본식 혼례와

서양식 혼례의 영향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혼례풍속이 점차 사라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2) 전통혼례의 축소와 신식혼례의 확산기

1961년부터 1990년까지를 전통혼례의 축소와 신식혼례의 확산시기로 명명하였다. 이 시기는 도시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시기로,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1962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한국 경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또한 1980년대는 광주민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7~9월 노동자투쟁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강정립, 2001).

하지만 농업 위주 생산기반을 수출주도형 공업기반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이후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세계경제호황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양적·질적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룩하였다. 1인당 국민 총생산도 1961년 82달러였던 것이 1971년에는 291달러로, 1980년에는 1,660달러를 넘기에 이르렀다(통계청, 1981년). 당시 한국 경제는 경공업 중심이었던 공업정책을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2차례의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었다. 더불어 1986년의 ‘3저 현상’과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유치에 힘입어 한국은 당시 유례없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게 된다.

이러한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이 시기에는 노동에 있어 여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구조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60년대에 정부가 비교적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가족계획사업은 핵가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1960년대부터 1980년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남녀평등사상의 확산, 교육 기회의 증대,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961년 재건국민운동본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던 의례에 대한 사치와 낭비 폐해를 규제하고자 ‘표준의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약혼식과 잔치, 납폐, 청첩장을 폐지하고 혼례식은 예식장에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낭비폐해를 줄이고자 한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혼례식 자체를 상업화하기에 이르렀다. 각 예식장의 식순이 다소 간소화되었고 당시 여당의 실력자 00씨는 청첩장을 돌리지 않고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만 초청해 조촐한 혼례식을 가졌으며 저명인사 “00씨는 아들혼례식에 들어온 부조금을 모두 고아원에 희사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71.2.18).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소수일 뿐 하객 초청을 통한 축의금에 대한 기대가 혼례식의 규모를 크게 하고 혼인관련 비용을 증가시켰다(이광자, 1999). 그 후 1969년에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로, 1973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었고 1980년에는 전문을 개정하여, 가정의례를 제도에 따라 획일화할 것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박혜인, 1998).

이전 시기까지 계속되던 사주단자를 주고, 궁합을 맞추고, 길일을 택하는 과정 등은 연애혼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1961년부터 1970년대를 과도기로 하여 차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혼례날짜는 이전의 길일을 택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직장휴일이나 공휴일에 혼례식을 하는 추세가 증가하였다(박혜인, 1991). 또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서 가문끼리의 혼인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취미나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비슷한 교육, 문화적 배경을 지는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길표, 1982). 또한 1960년대에 들어 정치·사회·경제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납폐 또한 점차 변화하는 양상을 띄게 된다. 특히 혼수 가짓수의 증가는 중산층 이상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그 내용도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침구, 장롱, 신랑 예물, 의복 4가지가 혼수의 주요 품목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에는 전자제품, 주방용품, 가구 등 가짓수가 증가하고 고가화 되었으며, 일부 소수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고가의 보석과 밉크코트, 자동차, 콘도 등을 예물, 예단에 포함하는 호화혼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이광자, 1999).

혼수 품목의 다양화는 부부가 신랑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가(分家)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른바 ‘신거제(新居制)’의 풍습에 의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자 측에서는 혼인을 통해 사회적 지위 상승을 꾀하려고 무리하게 분수에 넘치는 혼수를 마련하거나, 남자 측에서는 혼인을 통해 과도한 혼수나 예단을 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혼인의례를 상품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황경애·이길표, 1994). 이는 전통혼례절차가 갖는 의미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혼인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마저도 퇴색시키는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홍나영 외(2002)의 서울과 경상도 지역의 혼수문화 조사에서도 당시 두 지역 모두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혼수의 양과 질이 점점 확대되고 고가화 되었으며, 점차 신부 측에서 신랑 측으로 보내는 문화에서 쌍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혼례식 후에 피로연을 없애고자 하는 정부의 가정의례준칙의 강화로 수건이나 우산 등의 답례품을 나눠주는 사례들이 많았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되살아나서 거의 대부분의 혼례식장에서는 가까운 식당에서 손님을 대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혼례가 한 개인이 새로운 가족과의 통합하는 의미는 남아 있으나 절차와 모습은 변화하여 수정된 형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장하경, 1996). 또한 신식혼례 문화가 정착되면서 새로 생긴 혼례절차로 ‘신혼여행’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신혼여행문화는 일제시기에 도입되어 광복과 함께 상류층을 중심으로 조금씩 받아들여졌으며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혼례의 한 과정으로써 대중에게도 확산이 되었다(박부진, 2007).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혼례식의 마지막 절차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당시 대표적인 신혼여행지로 제주도가 선호되었으나(박부진, 2007) 1989년 1월 1일에 발표

된 ‘관광목적의 국민해외여행 전면 자유화’로 이때부터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났던 물질만능주의를 비롯하여 혼례를 비롯한 의례에서도 허례허식이 만연하기 시작하였고 과도한 혼수의 폐단은 오늘날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법률적 변화는 1989년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혼인법(민법)』으로 이는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그 내용은 혼인법에서의 생활비의 부부 공동부담(833조), 재산분할제도(839조의 2), 이혼모에 대한 친권 인정(909조), 부부간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의 평등(1003조 1항, 1009조 2항) 등으로 혼인에 있어 남녀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신식혼례의 보편화와 새로운 전통혼례 방향 모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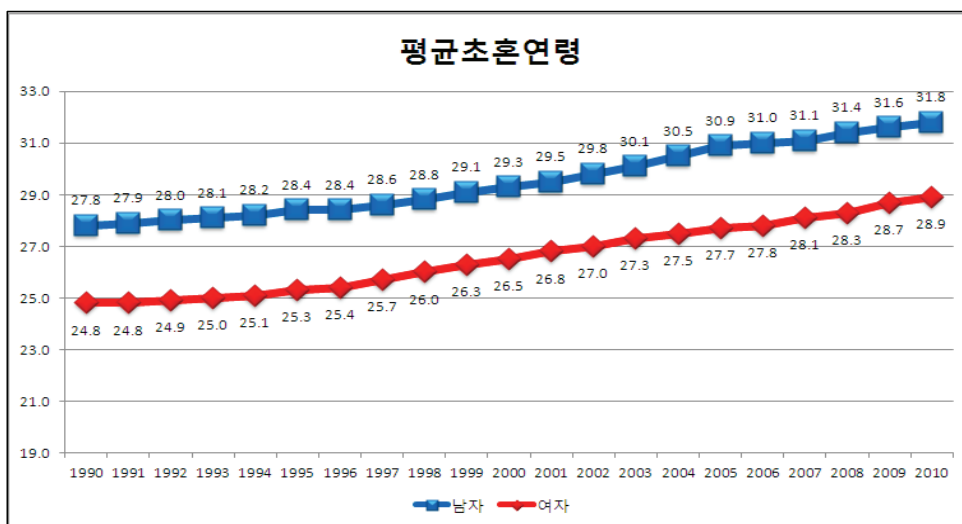
1991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를 신식혼례의 보편화와 새로운 전통혼례 방향 모색시기로 명명하였다. 이 시기에 일어난 사회적 변동은 1997년에 일어난 IMF로 1997년 12월에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39억 달러에 불과하여 금융위기가 초래되면서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쓰는 대가로, 한국의 주요경제정책을 결정짓기 위해 IMF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경제체제로 변화되었다. 금융위기가 드러난 1997년 12월부터 구제금융을 변제하여 경제주권을 회복한 2001년 8월 23일까지를 IMF관리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 및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기업 역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이른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IMF를 기준으로 한국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⁶⁾는 2006년에 무려 0.351에 달하였다

6) 이탈리아의 인구학자·통계학자·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통계청, 2006).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거치면서 혼인연령은 1996년 IMF 이전 여성이 평균 25.4세, 남성이 28.4세였던 것이 2010년에는 여성 평균 28.9세, 남성 평균 31.8세로 3세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또한 1990년부터 1997년까지 평균초혼연령은 여성이 0.9세, 남성이 0.8세 증가한 데 반해 199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여성이 2.9세, 남성이 3세나 증가한 것을 보면 경제위기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혼례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자료 : 통계청(2010),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그림 2-1> 평균 초혼연령

그 후 IMF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국가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양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었으며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개인별 문화수준이 점점 높아져감에 따라 고객들의 요구도 다양해졌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자산 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9년까지 혼례식이 제한되었던 특 1등급 호텔의 예식이 허용되면서 질적으로도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분리형 예식에서 동시형 예식으로 변화하면서 업체의 고객에 대한 질적 서비스가 높아지고 혼례시간 또한 예전에 비해 2~3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특징은 기존의 예식장 중심의 혼례문화에서 웨딩컨설팅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웨딩플래너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여 바쁜 신랑·신부의 혼례식장소 대여에서부터 웨딩촬영, 메이크업, 부케, 신혼여행알선, 폐백 및 이바지음식, 피로연 등의 혼례식진행 등을 도와준다. 김인옥·류미현(2007)은 신랑·신부가 예식전문가에게 개성 있는 맞춤형 예식진행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획일적인 예식진행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자신만의 독특함을 추구할 수 있는 감각 있는 이벤트 예식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웨딩컨설팅업이 생겨나면서 각종 패키지 상품이 등장하여 바람직한 혼례문화를 이끌어가야 할 웨딩플래너가 일종의 ‘웨딩패키지상품’ 판매자로 전락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예식형태에서는 개성화되고 고급화된 혼례식을 원하는 신랑·신부가 많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천편일률적인 혼례식과 상업화에서 벗어나 독특하고 다양화된 혼례식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야외혼례식, 수중혼례식이나 선상혼례식, 낙하산혼례식, 번지점프혼례식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최근 예식관련 신조어도 등장하였는데 ‘테마웨딩’, ‘맞춤웨딩’, ‘이벤트웨딩’, ‘재혼웨딩’, ‘Re-Wedding’이다. 예식전반에 걸쳐 주 소재가 의도적으로 세팅되고, 때로는 이벤트형식으로 등장한다. 서울의 J호텔에서 있었던 혼례식은 외국에서나 있을법한 파티형식의 예식(동아일보, 2005.4.13일자)이 선보이면서 하객들이 동참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현대의 신랑·신부들은 독특한 아이템으로 자신들만의 개성있는 예식을 연출하면서 예식비용도 줄이고 품격도 높이는 커플들이 많아지고 있다.

부모님께 주례 부탁하기, 혹은 주례 없는 혼례식, 축의금은 이메일뱅킹으로, 청첩장과 감사장 모두 이메일로, 피로연 음식은 간단하게 하고 그 대신 답례품을 활용하기 등이다(김인옥, 2011).

3.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배경과 생활문화사적 의의

1) 경북지방의 동성마을과 종가

조선시대 ‘경상도(慶尙道)’의 대명사로 지칭되던 영남지방은 일찍부터 인심이 순후근검(淳厚勤儉)하고 학문과 예의를 존중하여 사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최적지로 각광받았다. 경상도의 지역호칭으로서 영남이란 용례가 비로서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였다. 즉 16세기까지는 『실록(實錄)』 등 공·사문헌(公·私文獻)에서 영남 대신에 경상도가 보편적으로 통용되었으며, 남북노소(南北老小)의 사색(四色)으로 나누어진 후부터 남인(南人)의 본고장인 경상도를 영남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이수건, 1991). 또 이 시기를 고비로 종전의 낙동강을 좌우로 한 좌도(左道)와 우도(右道)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대신, 경상도 지방을 상하로 갈라 상도(上道)와 하도(下道)로 구분하여 지칭하는 관례가 생겨났다. 대체로 상도는 안동·상주권 및 남쪽으로는 성주, 칠곡, 고령지역까지를 포함하는데 대체로 토질이 비옥하고 수전(水田)이 많아 일찍부터 안동의 풍산평(豊山平), 상주, 함창, 선산 성주, 대구 등지는 수도작(水稻作)이 유명하였다. 이러한 도작과 함께 맥류(麥類), 두류(豆類), 서울류(黍粟類) 등 곡물과 마(麻)·저(苧)·목면(木棉)의 생산이 풍부하였다. 또한 교통 조운(漕運) 기타 인문환경상 간접적인 관계를 맺었다(조강희, 2006). 특히 경상북도는 사색으로 나뉘어진 후부터 남인의 본고장으로 이른바 양반가의 대표격이 되었다.

善生永助(1935)에 의하면 1930년대 전국적으로 1만 5천에 가까운 동성촌

락이 있었고 이것은 전국 촌락의 반수에 이르렀다. 특히 경상북도 지방에 가장 많은 동성촌락이 산재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역사상으로도 문중조직을 통한 족보의 발간·사묘(祠廟)의 건립과 같은 동성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그런 만큼 문벌(門閥)과 지망(志望)을 갖추는 의식도 강하여 혼인 등에 직접적으로 나타났고 증시조의 직계손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하는 동성집단이 양반 후예로서 위세를 지켜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조강희, 2006). 현재에도 경상북도 지역은 특정의 선조를 그 후손들이 받들면서 문호(門戶)를 차리고 있고 문중이 단위가 되어 유림들과 협력관계가 견지되고 있는 대표적 동성마을들이 많다.

동성(同姓) 마을이란 “같은 조상을 둔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외적 조건뿐만 아니라 이들 성씨 중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거나 학문·문장·덕행 등이 뛰어난 현조(顯祖)가 배출된 후 그를 중심으로 문중이 결성되어 사회생활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내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성마을로 간주되는 몇 가지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내 각성들과 인근 마을 및 지역사회에서 동성마을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 둘째, 예전 혹은 현재 마을 내에서 특정 성씨가 지배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셋째, 마을 내에서 특정 성씨가 지배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넷째, 마을 내에 특정 성씨의 문중이 조직되어 있으며 종가가 존재하는 경우 다섯째, 재실·누정·위토 등 문중의 존재를 드러내 주는 상징적 조형물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마을=반촌(班村)’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인데 실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동성마을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보급 및 실천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양반사족들이 형성한 것이다(한국국학진흥원, 2007a).

현재 동성마을은 반촌(班村)으로 통하고 있는데 반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종가(宗家)이다. 종가는 한 성씨의 문중에서 종손으로 줄곧 이어

은 가문의 큰집을 말한다. 종가는 동(同)조상의 위패를 모신 가묘(家廟), 부조묘(不祧廟)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종가에서 조상에 대한 차례를 제일 먼저 올리는 곳이었다. 또한 종회의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종중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었다. 종가는 이와 같이 종중의 모든 행사의 중심체 역할을 하였다. 종가는 가문의 맏이로서 부모·형제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며 그 대표적인 역할 담당자가 바로 종손으로 종가에 살면서 대대로 가문의 장손 역할을 수행하였다. 종손은 종가문화의 주인이고 종손의 등장은 장자상속제의 일반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종손은 묘소를 수호하는 임무를 지니며 이러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묘소주변에 세거지를 갖추고 조상과 후손으로 연결되는 혈족집단을 족보를 통해 유지 보존시켜 나가기도 한다. 이 때 종가가 종가로서 존재하고 종손이 종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종부의 피나는 노력과 집념이 크게 작용하였다. 종가에서 종부의 역할이나 의미는 매우 중요하였는데 그래서 절대 비워둘 수 없었다. 종가의 종손이 상처(喪妻)를 하고 나면 다시 혼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봉제사, 접빈객, 종가의 재산관리, 문중의 각종 부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역할을 종부가 담당하였다(서리나·유명의, 2003).

(1) 안동지역의 종가

안동지역은 주로 중심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종가를 구분할 수 있다. 안동지역 중심권에는 법흥동의 고성이씨(임청각: 불천위 이후영, 탑골종가), 노하동의 진주하씨, 안기동의 함안조씨, 정상동의 고성이씨(귀래정 종가) 등의 동성마을이 자리한다. 한편 태화동에는 광산김씨 후조당 종가(종택 건물은 오천 군자리 소재), 용상동에는 광산김씨 설월당 종가(불천위 김영, 종택 건물은 오천 군자리 소재) 송천동에는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불천위 배삼익)가 있는데 이들 모두 안동댐 건설로 인해 현재의 자리로 이주하였다. 또 수상동에

는 소산종가(불천위 이광정)가 자리하고 있다.

동부권에는 임하면 천전리의 의성김씨(청계종가: 불천위 김진, 귀봉종가: 불천위 김용, 제산종가: 불천위: 김성탁), 금소리의 예천임씨와 울진임씨, 신덕리의 의성김씨(운암종가), 임하리의 안동권씨(이우당 종가: 불천위 권환), 길안면 묵계리의 안동김씨(보백당 종가: 불천위 김계행) 등의 동성마을이 자리한다. 한편 임동면 수곡리, 박곡리, 고천리 일대에는 전주류씨(무실종가, 정재종가: 불천위 류치명, 백줄암 종가: 불천위 류직, 용와종가: 불천위 류승현, 호고와 종가: 불천위 류취문)의 동성마을이 있었으나 임하댐 수몰로 인해 용와 종가와 호고와 종가는 구미 일선면 해평리로 이주하였다. 또한 임동면 지례리에는 의성김씨 지촌종가가 자리하고 있다.

서부권에는 서후면 금계리의 의성김씨(학봉종가: 불천위 김성일), 원주변씨(동호종가, 간재종가: 불천위 변중일), 안동장씨(경당종가: 불천위 장홍효), 저전리의 한양조씨, 풍산읍 상하리의 전의이씨(난줄재 종가: 불천위 이산두)와 예안이씨(상리종가: 불천위 이정국, 고산종가: 불천위 이유장), 소산리의 안동김씨(돈소당 종가, 양소당 종가, 삼소재 종가), 오미리의 풍산김씨(허백당 종가: 불천위 김양진/김대현, 죽봉종가: 불천위 김간), 현애리의 안동김씨, 풍천면 가곡리의 안동권씨(시습재: 불천위 권구, 수곡종가), 하회리의 풍산류씨(양진당 종가: 불천위 류중영/류운룡, 충효당: 불천위 류성룡, 귀촌종가: 불천위 류경심), 광덕리의 풍산류씨(파산종가: 불천위 류중엄), 구담리의 순천김씨 등의 동성마을이 자리한다. 한편 서후면 교리에는 진주하씨 단계 종가(불천위 하위지)가 자리하고 있다.

남부권에는 일직면 망호리의 한산이씨(수은종가: 불천위 이홍조, 대산종가: 불천위 이상정), 대구서씨(유안당 종가: 소호헌), 귀미리의 의성김씨(귀와종가: 불천위 김굉), 조탑리의 일직손씨 등의 동성마을이 있다. 한편 일직면 송리에는 진성이씨 후산 종가(불천위 이종수)가 자리하고 있다.

북부권에는 북후면 도촌리의 안동권씨, 용천리의 진주강씨, 와룡면 주하리의

진성이씨(경류정 종가: 불천위 이정), 이상리의 안동권씨(송소종가: 불천위 권우), 태리의 청주정씨(죽헌종가: 불천위 정두), 가구리의 광산김씨(유일재 종가: 불천위 김언기), 능성구씨(백담종가: 불천위 구봉령, 원래는 지내리에 소재), 가야리의 안동권씨(등암종가: 불천위 권징), 도산면 온혜리의 진성이씨(퇴계종가: 불천위 이황, 동암종가: 불천위 이영도), 녹전면 원천리의 영천이씨(간재종가: 불천위 이덕홍), 진성이씨(반초당 종가: 불천위 이명익), 예안면 부포리의 봉화김씨(성성재 종가: 불천위 금난수), 주진리 전주류씨(삼산종가: 불천위 류정원) 등의 동성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 도산면 동부리에는 횡성조씨(월천 종가: 불천위 조목), 분천리의 영천이씨(농암종가: 불천위 이현보) 등의 동성마을이 있었으나, 월천종가는 부산으로 이주했으며 농암종가는 안동댐 건설로 인해 도산면 가송리로 옮겨갔다. 또한 온혜리에 있던 송재 종가(불천위 이우)는 안동시 옥정동으로 이건하였다. 와룡면 오천리에는 광산김씨 ‘오천군자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안동댐 건설로 인해 광산김씨 동성마을의 대표적 가옥 약 20채를 이곳으로 이건하였다(한국국학진흥원, 2007a).

(2) 봉화지역 종가

봉화지역의 대표적인 종가로는 봉화군 유곡리 닭실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안동권씨 충재 종가이다. 충재 권벌(1478~1548)선생이 중종 14년 기묘사화 때 파직당하여 물러나와 1521년 파평윤씨의 터전이었던 내성 유곡에 입향하여 세거지(世居地)를 형성하였다. 유곡마을은 마을모양이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으로 “금계포란형”의 지세라 하여 경북지역의 4대 길지 중에 하나이다.

또한 두곡종가(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도촌종가(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삼로종가(봉화군 봉화읍 도촌2리), 쌍벽당종가(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계서종가(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도은종가(봉화군 법전면 척곡리)가 있다. 그 외 한산군 종가, 팔오현 종가, 야옹정 종가, 백암종가, 학사종가, 망와종가, 장암

종가, 구전종가, 수서종가, 경암헌 종가, 만취당 종가, 난은종가, 노봉종가가 있다.

(3) 영양지역의 종가

영양군은 경북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태백산, 소백산, 일월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경사지가 넓은 반면 평야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 영양지역의 종가로는 일월권의 한양조씨의 집성촌인 주실마을의 옥천(玉川)종가, 조지훈의 생가인 호은(壺隱)종가, 동래정씨 석문(石文)파의 종가, 청기권의 낙안오씨(樂安吳氏)종가, 한양조씨의 사고(沙皐)종가·사월(沙月)종가, 수비권의 사의정사(思義精舍), 영양남씨 신암공파(愼庵公派)종가, 석보·입암권의 재령이씨 석계(石溪)종가, 김녕김씨의 오류정(五柳亭)종가 등이 있다(한국국학진흥원, 2009a).

(4) 경주지역의 종가

대표적인 경주지역의 종가로는 월성손씨 종가와 여강이씨 경주최씨 종가이다. 이중 월성손씨 종가와 여강이씨 종가는 양동마을내에 있으며 마을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월성손씨 종가는 5백년 동안의 영화를 누려온 유서 깊은 가문이며 당호인 '서백당(書百堂)'은 하루에 참을 인(認)자를 백번 쓴다는 뜻이다. 현재 노종부가 살고 있다. 또한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선생의 가문인 여강이씨 종가가 있다. 종택은 상류주택에 속해있는 사랑채의 연장 건물로 불천위 제사, 손님접대, 휴식, 책 읽기 등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다.

한편 경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이조리의 경주최씨 사성공파 종가를 들 수 있다. 정무공 최진립 장군이 중시조로 있는 가문으로 흠흠당이라는 당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종가로 4개 지역의 10가문을 선정하였다. 이들 가문은 종손과 종부가 종택을 지키며 살고 있으며 선조가 불천위⁷⁾에 추대되었으며 전통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종가로는 안동지역의 종가 6곳(의성김씨, 풍산류씨, 진성이씨, 안동장씨, 전주류씨, 영천이씨), 봉화지역의 종가 2곳(광산김씨, 안동권씨), 영양지역의 종가 1곳(동래정씨), 경주지역의 종가 1곳(경주최씨)이 있다.



<그림 2-2> 사례 연구대상 종가가 위치한 지역

7) 불천위(不遷位)는 4대 봉사원칙과 상관없이 후손들로부터 그야말로 천년만년 제례를 받을 수 있는 신위이다. 고려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하는 불천위 제도는 조선초기만 하더라도 주로 공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후대로 갈수록 공신과 상관없이 불천위로 추대되는 경향이 점차 증가되기에 이른다.

2) 종가혼례의 생활문화사적 의미

생활문화란 사람이 제한된 일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중심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관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활문화는 어떤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다함께 따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이자 그 사회에 전해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유행이다. 생활문화는 오랜 기간동안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교육환경 속에서 살아온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이숙 외, 2002). 우리의 삶속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식주(衣食住)와 관혼상제(冠婚喪祭)와 전통생활문화가 배경에 깔려있으며 그 깊은 저변에 한국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생활문화는 심오한 문화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소외되어왔지만 전통생활문화야 말로 모든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전통생활문화 속에서 그 민족의 정체성과 우수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가는 전통의 요소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종가는 가문의 종손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 종택을 유지하고 가문의 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한국의 독특한 가족형태이다. 특히 과거에는 종가를 중심으로 가문의 부와 명예, 그리고 각종 행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종가마을은 동족마을의 형태를 띄었고 종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문화가 유지되고 발달하였다(서리나·유명의, 2003). 따라서 종가는 지역 생활환경의 중심 역할을 하였고 주변마을의 의·식·주 및 가정의례의 모범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종가중심의 유형의 문화자원과 함께 가문을 중심으로 내려 온 가풍과 종가 내력사 같은 무형의 문화자원이 함께 공존하는 대표적인 생활문화자원이다. 특히 가정의례의 하나인 혼례는 각 가문마다 내려오는 전통의 혼례풍속을 알 수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이다.

종가가 동족마을에 위치하였고 종가의 혼례풍습이 가문의 잔치, 더 나아가 마을의 잔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가의 혼례는 마을 전체의 혼례를 관망한다고도 할 수 있다. 종가의 혼례풍습이 종손과 종부, 그리고 차세대 종손과

종부로 이어지면서 대를 이어 전승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횡적으로 종가의 혼례는 종가가 위치한 동족마을의 문중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혼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납채 시에 오고가는 청혼서, 허혼서, 사주단지, 택일단지, 납폐 시 오고가던 함, 함속의 물목기, 대례시의 흘기, 대례시 신랑·신부가 입는 치마저고리 및 원삼, 족두리, 그리고 사모관대, 폐백시 어른께 올리던 폐백음식, 시어른이 내려주시던 큰상 등 종가마다의 독특한 혼례문화는 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다. 이것은 종가의 생활문화가 종가가 위치하거나 위치했던 어떤 지역이나 마을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기호로 작용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종가의 전통이 유지되어 남아있는 문화적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가 혼례는 가문의 생활문화를 이끌어 가고 전승하는 역할을 할 뿐 만아니라 문중 또는 주변사람들에게까지 전승되어 온 한국사회 대표적인 유형의 문화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화기부터 미래까지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흐름을 분석하여 경북 지역 혼례문화의 변화와 계승, 향후 혼례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혼례문화변천에 관한 선행연구를 장하경(1995), 황경애(1996), 이길표·최배영(1999), 강정림(2001), 홍나영(2002), 박동철(2006), 안혜숙(2010) 참고하여 종가의 혼례문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 조사방법인 사례연구를 하였다. 사례연구는 일종의 구술연구라 할 수 있는데 면담자가 피면접자를 방문하여 일정 시간 내에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현지조사를 동반하는 연구방법으로(윤택림·함한희, 2006) 현지조사를 통한 사례연구는 구술자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종가의 혼례문화를 사례조사로 선정한 이유는 종가의 종손과 종부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작성하기가 어렵고 또한 종가 혼례문화에 대해 면접을 통하여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한 이유는 통계적 대표성을 위해서이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와 설문지법을 이용한 실태조사는 질문상의 내용이 서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1. 사례조사

경북지역의 전통적인 혼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 생활환경의 중심역할을 하였고 의·식·주 생활 및 가정의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종가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선정

연구대상자는 경북지역의 종가 중 종손과 종부가 현재 종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종가의 종손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위하여 종가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들 종가의 대부분은 문화재 관리청의 보호를 받고 있다.

혼례란 생활문화의 일부이므로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른 특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유에서 반드시 종가를 지키고 있는 종손과 종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차 연구대상자였던 23개 가문 중 연구용으로 공개 및 사용을 허락받은 10개 가문을 선택하였다.

1차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23개 가문의 선정은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속된 연구원과 하회마을 보존회의 사무장님의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2011. 3. 1. 실시).

총 23개 종가 중 종손과 종부가 종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례조사가 어려운 13가문을 제외한 10개 가문(의성김씨, 진성이씨, 풍산류씨, 광산김씨, 동래정씨, 안동장씨, 안동권씨, 경주최씨, 영천이씨, 전주류씨)의 종손과 종부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경북지역 종가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 사례조사 연구대상 선정

1차 연구대상 종가	영천이씨, 여강이씨, 월성손씨, 반남박씨, 재령이씨, 한양조씨, 한산이씨, 원주변씨, 청송심씨, 고성이씨, 예천권씨, 달성서씨, 순천김씨, 선산김씨, 의성김씨, 진성이씨, 풍산류씨, 광산김씨, 동래정씨, 안동장씨, 안동권씨, 경주최씨, 전주류씨(23가문)
연구대상 제외	여강이씨, 월성손씨, 반남박씨, 재령이씨, 한양조씨, 한산이씨, 원주변씨, 청송심씨, 고성이씨, 예천권씨, 달성서씨, 순천김씨, 선산김씨(13가문)
최종연구	의성김씨, 진성이씨, 풍산류씨, 광산김씨, 동래정씨, 안동장씨, 안동권씨, 경주최씨, 전주류씨, 영천이씨(10가문)

2) 면접 시기 및 장소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는 2011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4월 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면접이 이루어졌고 자료 보충이 필요한 가문은 9월 24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2차, 3차 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을 수락한 사례들은 안동을 중심으로 봉화, 영양, 경주 지역의 종부이다. 면접 시간은 대체적으로 3~4 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면접 장소는 대상자의 집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종가의 면접일정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면접 시기 및 장소

가문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장소
의성김씨 천전(川田)파 귀봉(龜奉)종가 종부	2011. 4. 9	2011. 9. 24		종가 마루
진성이씨 송재(松齋) 종가종부	2011. 4. 10	2011. 9. 25		종가 서재
풍산류씨 서애종가 종부	2011. 4. 16	2011. 10. 1		종가 마루
광산김씨 퇴촌공파 쌍벽당(雙璧堂) 종손	2011. 4. 17			종가 마루
동래정씨 석문(石文)파 종손	2011. 4. 30			종가 연못(서석지)
안동장씨 경당(敬堂) 종가종손	2011. 5. 1	2011. 10. 2	2011. 10. 8	종가 서재
안동권씨 충재(忠齋) 종가종손	2011. 5. 14			종가 박물관
경주최씨 사성공파 충의당(忠義堂) 종부	2011. 5. 21			종가 서재
전주류씨 정재종가 종부	2011. 5. 29			종가 서재
영천이씨 농암종가 종부	2011. 6. 4			종가 서재

3) 면접도구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을 병행하였으며 질문지외에 추가 질문을 하여 면접자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접내용에는 전통혼례절차인 의혼, 납채, 납폐, 대례, 현구고례 그리고 자체의 혼례는 어떻게 행하였는지 향후 올바른 혼례문화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의혼과 관련된 문항은 혼담과 중매에 관한 문항, 납채에 관한 문항은 청혼과 허혼의 절차, 혼인날짜의 결정, 사주단자, 택일단자 등을 주고받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납폐에 관한 문항은 주고받은 예단·예물의 구체적 사항, 함속의 물품, 함 받는 의식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례에 관한 문항은 혼인 당일 절차에 관한 문항, 현구고례에 관한 문항은 며칠만에 우귀하였는지, 폐백을 드리던 범위, 폐백음식, 조석문안, 사당 폐백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면접내용은 면접자의 사전 동의하에 모두 녹취하였으며 모두 문서화하였다.

2. 실태조사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와 계승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현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기혼, 미혼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기혼자는 주로 여성회관, 마을회관, 직장 등에서 설문하였고 미혼자는 대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경북 지역 전역에 설문지를 총 450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430부이며 이중 불성실한 자료를 27부를 제외한 총 403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래 혼례란 혼인의 예식 또는 예절로 유교사상의 전래에 따라 가례(家禮)의 하나로 중요시 되었는데 서로 혼인 의사를 묻는 의혼(議婚), 혼인 날짜를 정하는 납채(納采), 예물을 보내는 납폐(納幣), 혼례를 올리는 친영(親迎)의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 주자사례(朱子四禮)를 많이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도록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의혼, 납채, 납폐, 대례, 현구고례의 다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문항은 총 92문항이며 의혼에 관련된 3문항, 납채에 관련된 6문항, 납폐에 관련된 20문항, 대례에 관련된 52문항, 현구고례에 관련된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납폐는 예단, 예물, 함으로 나누어 예단에 관련된 6문항, 예물에 관련된 8문항, 함에 관련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례에 관련된 문항은 5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혼례식, 혼례복, 혼례음식, 혼례절차로 나누었다. 혼례식에 관련된 6문항, 혼례복에 관련된 1문항, 혼례음식에 관련된 11문항, 혼례절차에 관련된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현구고례에 관련된 문항은 1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폐백에 관련된 8문항, 신혼여행에 관련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혼과 납채에 관련된 문항은 안혜숙(2010)의 연구, 납폐의 절차인 예물·예단·함에 관련된 문항은 황경애(1996)의 연구를 중심으로 문항을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대례에 관련된 문항 중 혼례식에 관한 문항은 김인옥(2008)의 연구, 혼례

복에 관한 문항은 본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혼례음식에 관한 문항은 김준희(2007), 허영선(2007), 전해경·백종은·조용범(2009)의 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혼례절차에 관한 문항은 이윤금·서윤금(1997), 박혜인·조은숙(1998), 정영숙·권수애·장혜자(2001), 김인옥(2008), 주영애(2010)의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현구고례에 관련된 문항 중 폐백에 관련된 문항은 황경애(1996), 윤숙자·이미영(2002), 조희진·정해은(2008), 주영애(2010)의 연구, 신혼여행에 관련된 문항은 박부진(2007)의 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3) 분석 방법

통계처리를 위해 SPSS v.18.0을 이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혼례문화에 관한 비교를 위해 SPSS v.18.0의 기술통계량의 교차분석과 χ^2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혼례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IV. 경북지역 종가의 혼례문화 사례분석

1. 종가의 개괄적 분석

1) 의성김씨 천전(川田)파 귀봉(龜奉) 종가

의성김씨 천전(川田)파 귀봉(龜奉) 종가는 김진의 차남 김수일(1528~1583, 호는 귀봉)의 종가로서 ‘작은 종가’로 불린다. 원래 김수일은 한양조씨 처가와의 인연을 따라 일직면 귀미리에 정착했으나 41세 되던 해에 이곳으로 돌아왔다. 항간에서는 김수일의 장남 김용의 호를 따라 ‘운천종가’로도 부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김용이 불천위로 추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수일은 28세에 생원시 합격을 한 후 진사 회시에도 장원 급제하여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런데 42세 되던 해에 김명일·김복일과 함께 이듬해 봄에 개최될 대과 응시를 위해 상경했다가 김명일이 병으로 위급해 지자 과거를 포기하고 함께 귀향을 서둘렀으나 도중 김명일이 운명하였다. 이에 당시 한양에 남아있던 김복일은 과거에 급제했으나 김명일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김수일은 평생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4-1> 의성김씨 천전파 귀봉종가 일부전경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3호에 지정되어 있는 종택은 김수일의 현손 김학달이 터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종부가 종가를 지키며 살고 있다(한국국학진흥원, 2007a).

종부와의 면접은 종가 마루에서 진행되었다. 주말이라 서울에서 살던 아들 내외가 있어 종부의 면접을 거부하였다. 어머니가 지나온 이야기는 자식들에게도 들려주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가문의 기밀이 외부로 세어 나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여러 번의 설득 끝에 면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부가 첫날밤을 지낸 방 앞의 마루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1차 면접에서 미흡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9월 24일 종부와 2차 면접이 이루어졌다.

의성김씨 천전파 귀봉종가의 종부 금동길씨는 경북 안동군 예안면에서 1924년에 출생하였으며, 혼인날짜는 1940년 11월 3일이다. 봉화김씨 금성계 종가의 아버지와 김녕김씨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시아버지는 의성김씨, 시어머니는 전주류씨였다.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으며 중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다. 혼례는 신부집 마당에 거행되었으며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모두 중매혼을 통한 신식혼례를 하였다. 이 가문 혼례의 특징적인 점은 친정에서 혼례를 치른 후 당일 시댁으로 신행을 왔으며 첫날밤은 시댁 사랑방에서 치루었다. 또한 너무 어린나이(17세)에 시집을 왔다는 이유로 친정으로 가서 1년을 지내다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온 묵신행을 했다는 점이다. 혼인시 오가던 납채서는 한국전쟁 때에 피난을 하던 중 분실되어 현재 간직하고 있지 않으며 시집 오던 당시 시댁에서 준비해 주었던 농을 간직하고 있다.

2) 풍산류씨 서애(西厓)종가 충효당(忠孝堂)

풍산류씨 서애종가는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위치해 있으며 퇴계의 문인인 류성룡을 불천위로 모시고 있다. 풍산류씨 서애(西厓)종가의 대표적인 인

물인 류성룡 선생은 퇴계 이황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명종 19년(1564)에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도승지, 예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다(이연자, 2001). 명종 13년(1558)에 세종대왕의 아들 광평대군 5대손 이경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선조 37년(1604) 옥연정사에서 임진왜란의 회고록인 징비록을 저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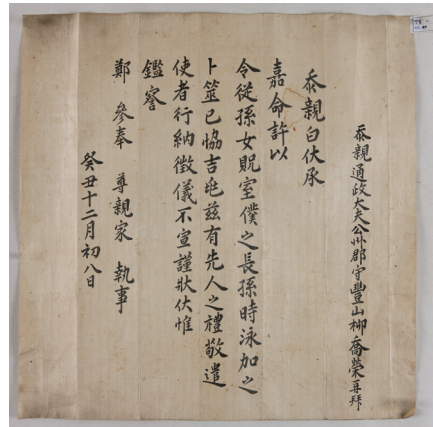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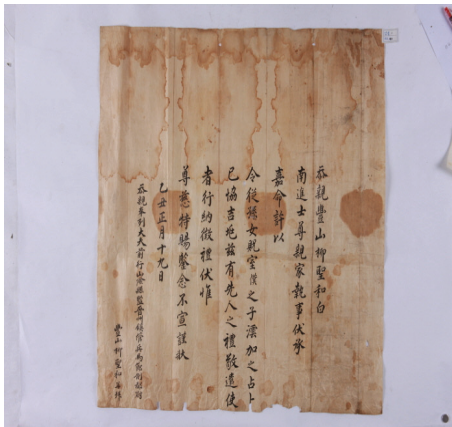
류성룡 선생은 40년에 걸친 관직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당시 거쳐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풍산 서미동의 허름한 초가에서 숨을 거두었으며 충효당은 선생의 사후에 그의 청렴한 인품을 추모하는 제자들이 힘을 모아 지은 집이다(이연자, 2001). 당호인 충효당은 평소 류성룡의 자손들에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말을 강조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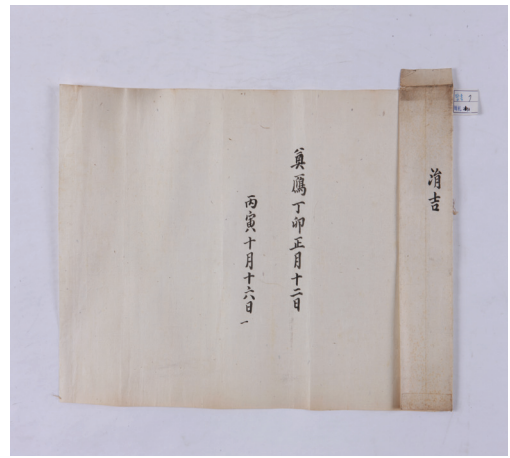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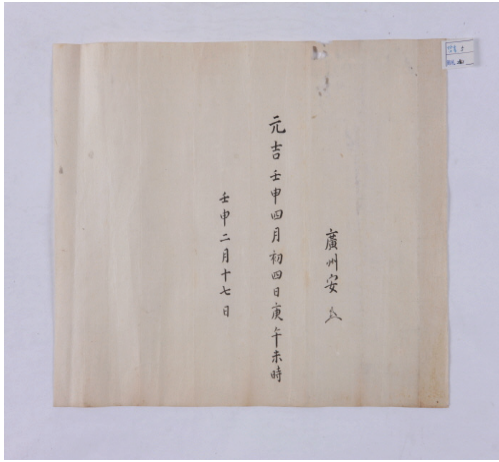
<사진 4-2> 풍산류씨 서애종가 일부전경과 사당

현재 충효당에는 류성룡 선생의 14대 종손인 류영하(柳寧夏, 85세)와 종부 최소희(崔小姬, 83) 씨가 살고 있다. 서애종가 종손·종부와의 면접은 종가 마루에서 진행되었다.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신 종손은 두루마기를 입고 나왔고 연구자가 절을 올리고 면접이 시작되었다. 그 후 자리를 옮겨 종부와는 안방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1차 면접에서 부족한 자료 보충을 위해 2차 면접이 이루어졌다.

풍산류씨 서애(西厓) 종가 종부는 경주최씨 아버지와 청주조씨 어머니 사이에서 1927년에 출생하였다. 만석꾼을 사랑하는 경주 교동 최씨 종가의 둘째 딸로 20살 나던 해, 1948년 12월 5일에 중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다. 시아버지는 풍산류씨, 시어머니는 진양정씨이다. 현재 2남 1녀를 두고 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받았고,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혼례는 전통방식으로 신부집 마당에서 거행되었고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중매혼을 통한 신식혼례로 하였다. 서애종가는 종부의 친정 고모가 서애종가로 시집와서 다시 중매를 하는 연줄혼이 행해졌으며, 시댁에 너무 가난하여 금반지 세돈만 받고 시집 올 정도로 예물을 약소하게 주고 받은 점, 혼인시 오가던 혼서지 및 연결서 사주단자 등의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사진 4-3> 풍산류씨 서애종가 혼서지



<사진 4-4> 풍산류씨 서예종가 사주단자 및 연결서

3) 광산김씨 퇴촌공파 쌍벽당(雙璧堂)

광산김씨 퇴촌공파의 시조 김언구(金彦球, ?~1507)는 조선조 중기 연산군 때의 성리학자 쌍벽당(雙碧堂)으로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이후 연산군 폭정으로 향리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벼슬을 하지 말라는 조상의 유언에 따라 조상대대로 진사까지만 벼슬을 한 가문이다. 현재 중요민속자료 170호로 지정된 ‘쌍벽당’은 500년 이상된 고택이며 유림이 김언구 선생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사진 4-5> 광산김씨 퇴촌공파 쌍벽당(雙碧堂) 일부전경과 사당

종택에는 쌍벽당 김언구 선생의 18대 종손과 종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종손과의 면접은 종가의 마루에서 이루어졌다. 종손은 종가를 지키면서 교직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정년퇴임을 하시고 500년 이상이 된 고택인 쌍벽당(雙璧堂)을 가꾸며 살고 있다. 종손의 출생지는 봉화군 봉성면 거촌리이고 1935년에 출생하였다. 혼인은 1952년 12월에 하였으며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중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으며 아버지는 광산김씨, 어머니는 안동권씨이다. 또는 종부의 아버지는 함양박씨, 어머니는 예안이씨이다. 현재 4남 1녀의 자제를 두고 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받았고, 약혼식은 하지 않았다. 혼례는 전통방식으로 신부집 마당에서 거행되었고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신식혼례로 하였지만 청혼서 허혼서는 주고받았다. 이 가문은 종손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가문을 이어 가야 했으므로 고3 때 혼인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4) 동래정씨 석문(石文)파

동래정씨 석문파 종가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시조인 정영방 선생은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원래는 예천군 용궁면에서 태어났으나, 뒤에 입암면 연당리로 이주하였다. 1605년(선조 38)에 성균 진사가 되었으며,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 이후 국사가 어지러워 입암면 연당리로 이주하여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였다. 그는 이곳에 연못을 파고 서석지(瑞石池)라 이름짓고,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 이 연못을 오늘날 영양 서석지(英陽瑞石池)라 하며 정자와 함께 중요민속자료 제108호이다(한국국학진흥원, 2009a).



<사진 4-6> 동래정씨 석문(石文)파의 서석지

현재 종가에는 종손과 종부가 살고 있으며 종손과의 면접은 종가의 연못인 서석지에서 진행되었다. 여느 집 종손과 다르게 청바지에 남방을 입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영양지역의 문화해설사가 함께 자리해 주셔서 분위기가 좋았다. 종손은 1937년 동래정씨 아버지와 전주류씨 어머니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출생지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이다. 1955년 10월 6일에 증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종부의 아버지는 재령이씨, 어머니는 안동김씨이며 현재 1남 3녀를 두고 있다. 양가 함을 서로 주고받았고,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 혼례는 전통방식으로 신부집 마당에 거행되었고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연애혼을 하였고 신식혼례를 하였다.

5) 안동장씨 경당(敬堂)종가

안동장씨 경당(敬堂)종가의 시조 장정필은 김선평, 권행과 함께 태조 왕건을 도운 삼태사이다. 안동장씨 경당종가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장정필의 후손 장이강의 아들 5형제는 단종 복위에 연루되어 벼슬을 버리고 각각 낙향을 한다. 이 가운데 넷째 아들 장의가 안동 서후면에 정착하였다. 그의 후손이 바로 경당(敬堂) 종가의 시조인 장흥요(張興孝, 1564~1633)이다. 장흥효는 어려서부터 김성일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속세를 벗어나 자연을 벗하며

학문을 탐구하는 삶을 추구해 온 까닭에 좀처럼 성내(城內)에 발을 들인 적이 없으며 심지어 이웃에서조차 그의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석계 이시명(재령이씨)에게 출가한 정부인 안동장씨이다. 입향조 장의가 금계리에 정착할 당시에는 광풍정 앞에 터전을 마련하였으나, 약 50년 전 지금의 건물을 매입하여 옮겨왔다. 장흥요를 불천위로 모시고 있다.



<사진 4-7> 안동장씨 경당종가 일부전경

현재 종손과 종부가 종가를 지키며 살고 있으며 종손과의 면접은 종가 서재에서 이루어졌다. 종부께서 내온 식혜를 먹으며 정부인 안동장씨의 이야기도 함께 하였다. 현재 고택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종손은 가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또한 1차 면접의 부족한 자료 보충을 위해 2011년 10월 2일 2차 면접이 이루어졌고, 혼례유물 촬영을 위해 2011년 10월 8일 3차 면접이 이루어졌다.

안동장씨 경당(敬堂) 종가의 종손은 1938년에 경북 안동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지는 안동장씨, 어머니는 전주류씨이다. 1965년에 중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으며 당시 26세의 나이였다. 종부의 아버지는 안동권씨, 어머니는 의성장씨이다. 현재 2남 2녀의 자제를 두고 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 받았고,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 혼례는 전통방식으로 신부집 마당에 거행되었고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장남은 전통혼례를 하였고 나머지는 신

식혼례를 하였으나 예식장에서 폐백을 치르지 않고 집에서 폐백례를 하였다. 이 가문은 종손이 상신(喪身)으로 혼인을 했기 때문에 신행시 종부가 소복을 입고 시택으로 왔으며 3년상을 치른 후에 일반옷으로 갈아입었다. 또한 신랑 다루기 풍습에서 처가에서 ‘소태 감주’를 만들어 신랑을 시험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6) 진성이씨 송재(松齋)종가

안동시 중심권에 위치한 진성이씨 송재(松齋)종가는 퇴계 이황의 숙부택으로 시조는 이우이다. 이우는 진성이씨 노송정(老松亭) 종가의 시조인 이계양(1424~1488, 호는 노송정)의 차남이며, 퇴계 이황의 아버지는 송재(松齋)종가 이우의 막내 동생이다. 퇴계 이황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숙부인 이우의 공로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숙부 이우는 총명하고 성실한 퇴계를 각별히 아낀 것으로 전하는데 퇴계의 이마가 시원스레 넓다고 하여 ‘광상(廣顙)’이라는 애칭을 붙여 주기도 했다. 송재종가는 원래 와룡면 은혜리에 있었으나 불타 없어져 안동시로 이주하였으며 종손과 종부가 현재 살고 있다.



<사진 4-8> 진성이씨 송재종가 전경

종가 서재에서 진행된 종부와의 면접은 가끔 종손께서 맞장구를 치기도 하면서 진행되었다. 또한 1차 면접의 부족한 자료의 보충을 위하여 2차 면접도

진행되었다.

진성이씨 송재(松齋)증가의 종부는 여주이씨 아버지와 아산장씨 어머니 사이에서 경북 경주시 양동에서 1941년에 출생하였다. 중매를 통해 1966년 2월 13일에 혼인을 올렸다. 26세에 혼인을 하였으나 그 당시로는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시아버지는 진성이씨이고 시어머니는 부림홍씨이다. 현재 1남 3녀를 두고 있다. 배우자 선택은 중매로 하였고, 함을 주고받았으며, 약혼식은 하지 않았다. 혼례는 신식으로 서울 시민회관에서 올렸으며 혼례 후 시민회관 내 폐백실에서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모두 신식혼례를 하였다.

7) 안동권씨 충정공파 충재(沖齋)증가

안동권씨 충정공파 충재(沖齋)증가는 조선 중종 때 문신으로 예조판서를 지낸 충재 권벌(1478~1548)이 시조이다. 충재 선생은 중종 2년 문과에 급제한 이래로 사관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기묘사화와 을사사화에 화를 입어 유배지인 평안도 삭주에서 생을 마쳤다. 조선중기 사림의 등장시기를 대표하는 문신 중의 한명으로 후대에 많은 존경을 받았다. 동왕 2년(1507년)에 마치 금빛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금계포란(金鷄抱卵)’형의 명당인 이곳에 정착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경학연구에 전념하였다. 마을 이름조차 이를 빗대어 닭실마을을 뜻하는 ‘유곡(酉谷)’이라 부른다. 영남 문필가들의 사랑채 역할을 한 청암정과 석천정이 있는 이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아름다운 암석으로 경관이 빼어나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이 지역을 경주의 양동, 안동의 내압, 풍산의 하회와 함께 삼남지역의 4대길지로 꼽고 있다. 현재 충재선생을 기리기 위해 박물관을 건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사진 4-9> 안동권씨 충정공파 ‘충재(沖齋)종가’ 솟을대문과 박물관

현재 18대 종손과 종부, 아들 내외, 손자와 손녀 3대가 함께 살고 있다. 종손과의 면접은 충재(沖齋) 선생의 유덕을 기리는 박물관에서 진행되었다. 종손은 경북 봉화군 닭실마을에서 1943년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는 풍산류씨였다. 1971년 11월 25일에 중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으며 혼인 당시 나이는 29세였다. 종부는 월성손씨 아버지와 경주이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재 3명의 아들을 두고 있으며 장남과 함께 살고 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받았고,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 혼례는 전통방식으로 신부집 마당에 거행되었고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중매혼을 통한 신식혼례를 하였으나 신행만큼은 집에서 일가친지를 모셔놓고 제대로 하였다.

8) 전주류씨 정재(定齋)종가

전주류씨 정재종가는 안동시 임동면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퇴계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류치명(1777-1861)의 종가로 종택은 경북문화재 자료 제52호로 등록되어 있다. 류치명은 류회문의 아들이면서 임동면 무실 입향조 류성의 11대손이다. 또한 대산 이상정의 외증손이기도 한데, 이러한 인연으로 외가마을인 일직면 망호리에서 출생하였다. 류장원(호는 동암)에게 수학했으며 이후 남한조(호는 손재)의 문인으로 들어갔다. 류치명은 이황-김성일-장

홍요-이현일-이재-이상정의 학통을 이어받으면서 퇴계 이황의 연원적전(淵源嫡傳)이라 불릴 정도로 학문을 크게 이루어 거유(巨儒)로 추앙되었다. 현재 불천위로 모셔져 있다.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52호인 종택 건물은 류치명의 증조부인 류관현이 건립한 것으로 전한다. 원래 임동면 수곡리에 있었으나 임하댐 건설로 인해 지금의 자리로 이진하였다. 봉제사 접빈객을 위해 조상대대로 빚어온 송화주(松花酒)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재종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자랑거리이기도 하다(한국국학진흥원, 200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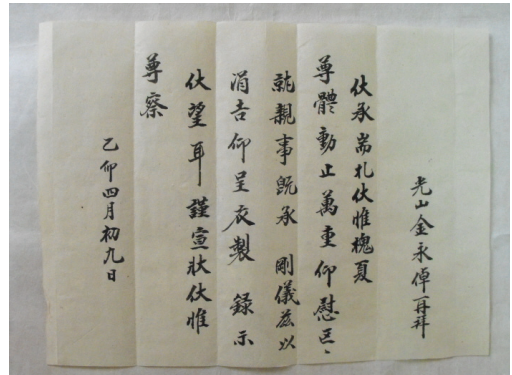
<사진 4-10> 전주류씨 정재종가 일부전경과 사당

현재 종가에는 종손과 종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종부와의 면접은 종가 안방에서 이루어졌다. 종부의 본관은 광산김씨이고 어머니는 옥천전씨이다. 시댁의 시아버지는 전주류씨, 시어머니는 성산이씨를 본관으로 하고 있다. 1953년에 태어났고, 현재 3남 2녀의 자제를 두고 있다. 혼례는 중매를 통하여 1975년에 예식장에서 신식으로 하였으나 폐백은 신행 후 종가에서 드렸다. 신혼여행은 원래 온양온천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친구들이 신혼여행을 따라 오는 터에 여행지를 팔공산 동화사로 바꾸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 받았고,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고 혼사말이 오가고 15일만에 혼례를 올렸다. 자제는 2남 3녀 중 두명만 출가를 하였으며 모두 신식혼례를 하였다.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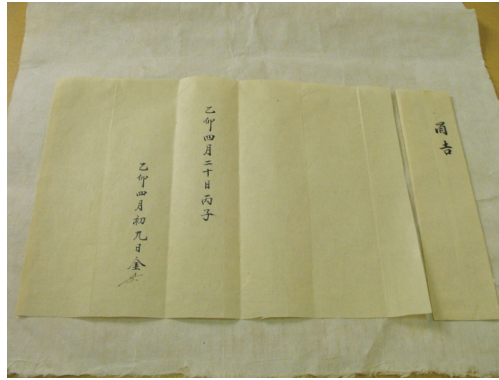
주류씨 정재(定齋) 종가에서는 혼서지 보, 혼서지, 연길서, 혼서지 및 단자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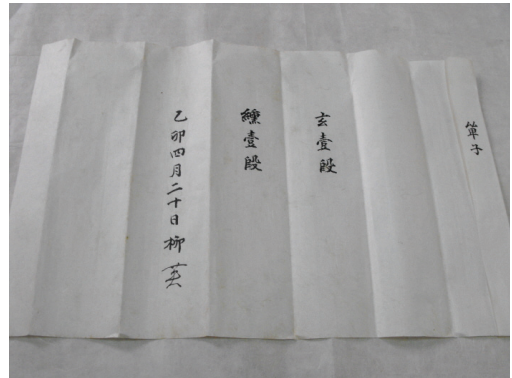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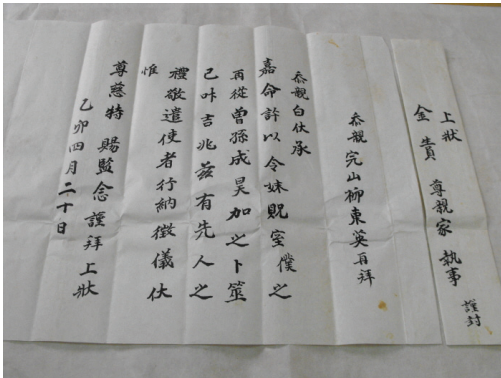
<사진 4-11> 전주류씨 정재종가 혼서지 보



<사진 4-12> 전주류씨 정재종가 혼서지



<사진 4-13> 전주류씨 정재종가 연길서



<사진 4-14> 전주류씨 정재종가 혼서지 및 단자



<사진 4-15> 전주류씨 정재종가 종부가 예물로 받는 치마저고리



<사진 4-16> 전주류씨 정재종가 종부가 예물로 받은 새색시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사진 4-17> 전주류씨 정재종가 종부가 예물로 받은 속저고리와 천담복

9) 영천이씨 농암종가

영천이씨 농암종가는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영천이씨 분천 입향조는 이현이며, 그의 현손이 이현보(1467-1555)이다. 이현보는 28세에 향해시(鄕解試) 합격을 하고 그 이듬해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30세에 성균관에 입학하여 32세 때 문과급제를 한 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벼슬길에 있는 중에도 분천 고향집 근처에 명농당(明農堂)을 세운 후 도연명의 귀거래도를 벽에 걸어 두었을 정도로 자연 속에서의 삶을 그렷은 것으로 전한다. 이후 76세 되던 해에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산과 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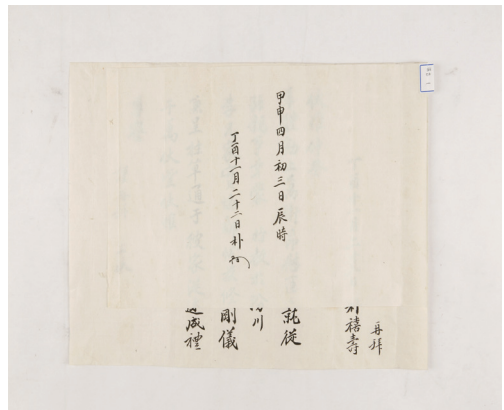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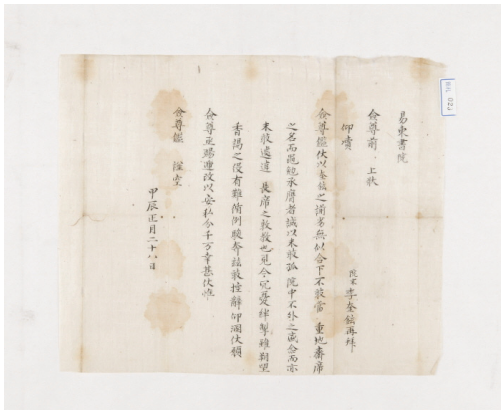
벗하면서 ‘어부가’ ‘농암가’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겨 이른 바 ‘강호문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현재 불천위로 모셔져 있다. 원래 종택 건물은 도산면 분천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안동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됨에 따라 일부 건물을 지금의 자리로 이동하였다. 종택 내에 자리한 공구당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28호로 지정되어 있다(한국국학진흥원, 200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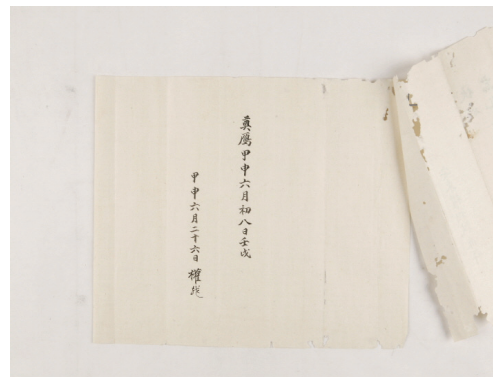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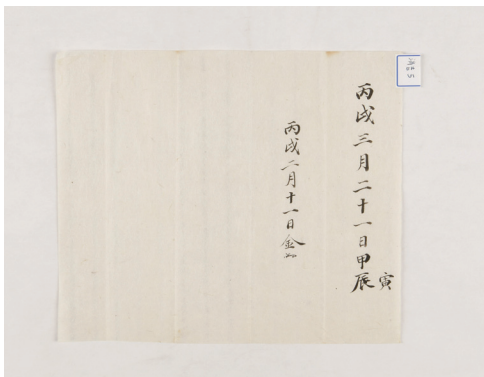
<사진 4-18> 영천이씨 농암종가 일부전경

현재 종가에는 종손과 종부가 고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종부와의 면접은 종가 서재에서 이루어졌다. 종부의 본관은 여강이씨이고 어머니는 학성이씨이다. 시댁의 시아버지는 영천이씨, 시어머니는 한양조씨를 본관으로 하고 있다. 1959년에 태어났고, 현재 2남 1녀의 자제를 두고 있다.

혼례는 중매를 통하여 1982년에 예식장에서 신식으로 하였으나 폐백은 신행 후 시댁에서 드렸다. 신혼여행은 온양온천으로 갔으나 첫날밤은 친정집에서 보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 받았고,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고 종손은 혼인 전 관례를 치렀다. 자제의 혼례는 아들 딸 상관없이 모두 종가에서 꼭 오실분만 초대해서 치르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자제 모두가 동의한 상태이다. 영천이씨 농암종가에서 혼례절차 중 소중한 자료인 혼서지, 연길서 등을 잘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4-19> 영천이씨 농암종가 혼서지와 사주단지



<사진 4-20> 영천이씨 농암종가 연길서

10) 경주최씨 사성공파 충의당(忠義堂) 종가

경주최씨 사성공파 충의당(忠義堂) 종가는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위치해 있다. 경주최씨 사성공파 충의당(忠義堂) 종가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경주 최씨 대종가의 시조는 조선의 명장 정무공 최진립 장군이다. 최진립 장군은 1594년 무과에 급제했으며, 1597년 정유재란 때 울산전투에 참가하여 서생포(西生浦)에서 공을 세웠다. 임진왜란 때 아우인 계종과 함께 창의하여 전공을 세우고 정유재란을 당해서는 권을 도와 항전하였다. 병자호란 때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용인에서 항전하다가 순절하였으며 자헌대부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청백리에 기록된 인물이다.

최진립 장군이 기거했던 종가의 사랑채는 ‘충의당(忠義堂)’이지만 본래는 ‘흠흠당(欽欽堂)’이며 이는 공경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말한다.



<사진 4-21> 경주최씨 사성공파 ‘충의당(忠義堂)’ 일부전경

현재 종손과 종부가 종가를 지키며 살고 있으며 종부와의 면접은 종가 서재에서 면접이 이루어졌다. 후덕하신 종부님 덕분에 차를 대접받았다.

종부의 본관은 합천이씨이고 어머니는 밀양박씨이다. 시댁의 시아버지는 경주최씨, 시어머니는 양동이씨를 본관으로 하고 있다. 1950년에 태어났고, 현재 3남 1녀의 자제를 두고 있다. 혼례는 중매를 통하여 1986년 11월 22일에 서울 영등포 OO예식장에서 신식으로 올렸다. 함은 생략하였고,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 혼례 후 폐백은 신행 후 종가에서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모두 신식혼례로 하였으나 막내는 서원(書院)에서 전통혼례를 올렸다고 한다. 함이나 이바지 등은 모두 생략하였다.

이상 경북지역 4개 지역 10가문의 종가 종손 및 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혼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종가 면접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면접대상	출생지	출생년도	연령	혼인년도	친정		시댁		자제	본인 혼례						자제 혼례
					부	모	부	모		배우자 선택	합	약혼식	혼례 형태	혼례 장소	폐백	
의성 김씨 종부	경북 안동	1924	88세	1940	봉화 금씨	김녕 김씨	의성 김씨	전주 류씨	2남	증매	O	X	전통	신부집 마당	시댁	신식 혼례
풍산 류씨 종부	경주 양동	1929	83세	1948	경주 최씨	청주 조씨	풍산 류씨	진양 정씨	2남 1녀	증매	O	X	전통	신부집 마당	시댁	신식 혼례
광산 김씨 종손	경북 봉화	1935	77세	1952	함양 박씨	예산 이씨	광산 김씨	안동 권씨	4남 1녀	증매	O	X	전통	신부집 마당	시댁	신식 혼례
동래 정씨 종손	경북 영양	1937	75세	1955	재령 이씨	안동 김씨	동래 정씨	전주 류씨	1남 3녀	증매	O	X	전통	신부집 마당	시댁	신식 혼례
안동 장씨 종손	경북 안동	1938	74세	1965	안동 권씨	의성 장씨	안동 장씨	전주 류씨	2남 2녀	증매	O	X	전통	신부집 마당	시댁	전통 혼례
진성이씨 종부	경주 양동	1941	71세	1966	여주 이씨	아산 장씨	진성이씨	부림 홍씨	1남 3녀	증매	O	X	서양	서울 시민회관	시민회관 폐백실	신식 혼례
안동 권씨 종손	경북 봉화	1943	69세	1971	월성 손씨	경주 이씨	안동 권씨	풍산 류씨	3남	증매	O	X	전통	신부집 마당	시댁	신식 혼례
전주 류씨 종부	경북 예안	1953	59세	1975	광산 김씨	옥천 전씨	전주 류씨	성산 이씨	3남 2녀	증매	O	X	서양	예식장	시댁	신식 혼례
영천 이씨 종부	경주 양동	1959	53세	1982	여강 이씨	학성 이씨	영천 이씨	한양 조씨	2남 1녀	증매	O	X	서양	예식장	시댁	전통 혼례
경주 최씨 종부	대구	1950	62세	1986	합천 이씨	밀양 박씨	경주 최씨	양동 이씨	3남 1녀	증매	X	X	서양+전통	서울 영등포 OO 예식장	시댁	신식 혼례

2. 종가의 혼례문화에 대한 분석

1) 의혼

10개 가문 중 진성이씨(1966년도 혼인), 전주류씨(1975년 혼인), 영천이씨(1982년 혼인), 경주최씨(1986년도 혼인) 가문은 중매혼을 통한 신식혼례를 하였고 나머지 6개 가문 의성김씨(1940년도 혼인), 풍산류씨(1948년도 혼인), 광산김씨(1952년도 혼인), 동래정씨(1955년도 혼인), 안동장씨(1965년도 혼인), 안동권씨(1971년도 혼인)는 중매혼을 통한 전통혼례를 하였다. 신식혼례를 하였더라도 진성이씨 가문을 제외하고 폐백만큼은 시댁에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문에 따라 혼인방법은 차이가 있었으나, 중매를 통한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혼인을 하는데 배우자가 될 사람의 얼굴도 모른 채 혼인을 했다. 혼인은 두 집안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했으며 배우자의 인품보다는 상대 집안의 조건을 철저히 따져 혼사가 이루어졌다. 의성김씨, 풍산류씨, 광산김씨, 동래정씨, 안동장씨, 안동권씨 가문은 혼인 당일 첫날밤이 되어서야 겨우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종가에서 종가로 시집을 왔어. 나는 금성제 종가의 종녀이고 상대는 유명한 의성김씨 귀봉종가의 종손이었지. 얼굴은 한 번도 안 봤지. 그땐 사진도 없고 옛날에는 앓은뱅이라 해도 혼사가 정해지면 혼인을 해야 했어.” (의성김씨 천전과 종부(88세), 1940년 혼인)

중매혼을 하였더라도 진성이씨, 경주최씨 가문은 사진을 통해 신랑 될 사람의 얼굴을 보았으며, 이 중 진성이씨(1966년도 혼인) 종부는 양가의 허락이 끝나고 그 후에 신랑 될 사람이 처가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안방에서 잠시 신랑의 얼굴을 보았다.

“양가 어른들이 만나서 통서(칭혼서, 허혼서 보내는 날)하던 날 신랑이 따라 나왔더라. 신랑이 우리 친정 아버지 보고 신부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절했어. 그 당시만 해도 내나 신랑이나 서울 물을 먹어서 모두 신식이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 날은 못보고 신랑이 우리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우리 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가 잠시 봤지 뭐”(진성이씨 종부(71세), 1966년 혼인)

이들의 중매는 대부분 집안어른이 하셨는데 주로 조부님이 많이 하셨고 더러는 시삼촌, 시고모가 중매를 선 집안도 있었다. 일반 민가에서는 주로 중신아버로 불렸던 중매인이 소개를 많이 하였으나 종가는 철저한 집안끼리의 만남이었다. 또한 집안끼리의 혼사이다 보니 같은 집안에서 윗대 아랫대 모두 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친정에서의 호칭이 시가에서는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종가의 혼인은 혼반(婚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이 문중 간에 수대에 걸친 학맥과 혼맥으로 중복혼의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중매를 하여 문중 상호간에 서로 격이 비슷하면서 중첩적인 혼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가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주로 친가의 ‘고모’나 ‘사촌’이 같은 문중으로 시집을 오고 그들에 의해 중매가 주선되기도 하였다.

“혼사말은 우리 조부가 하셨어. 우리 조부가 시댁 어른의 친구분이라... 신랑 집 사는거는 우리 친정 아버지 종고모한테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종고모가 풍산류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거든. 여기 시집 오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종고모가 내한테는 시종조모가 되셨어. 그래서 나는 할매라 불렀지”(풍산류씨 종부(83세), 1948년 혼인)

진성이씨 가문은 혼사 말이 오가고 난 후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을 남몰래 직접 보고 간 경우도 있었다.

“서울서 직장 댕기다가 내려오니까 고추를 다듬으라고 하대. 고추를 다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담배를 한 대 달라고 하셨어. 그래서 담배를 드리고 멀미가 난다고 조금만 누워 계시다가 가야겠다 해서 베개를 내어 드렸어. 마침 점심시간이라 밥도 차려드렸지. 그런데 가시면서 좋은 소식 온줄 모른다고 하셨어. 그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진성이씨 종부(71세), 1966년 혼인)

더러는 학맥에 의해 서로 교류하는 집안끼리 혼인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영천이씨 종부의 경우 시댁은 퇴계 이황의 학맥을 이어받은 가문이고, 친정은 회재 이언적의 자손이었다. 1982년에 신식혼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어르신들끼리의 교류로 인해 서로의 만남이 지속되었고 혼인에서 자신의 의견이란 없었다.

“시어른이 경주 양동의 딸 집에 놀러오셨다가 오래 계시니까 심심찮아. 그래서 선대때부터 회재 이언적 선생하고는 친분이 있어서 우리집에 놀러 오신 기라. 그래서 서로 이러니 저러니 대화 하시다가 우리 종손이 장가 못 갔으니 선 한번 보자 해서 이미 그 날 정혼을 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결정된 뒤에 형식으로 만남기라.....” (영천이씨 종부(53세), 1982년 혼인)

한편 전주류씨 종부의 경우 1970년대에 혼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가가 혼사말이 오가고 십오일만에 혼인을 하였다. 양가에서 이미 혼의(婚儀)가 있은터라 당사자의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에 불과하였다.

“양가에서는 아마 대충 혼의(婚儀)가 있었어요. 이 가문 이 가문 합치면 뭐 괜찮겠다. 뭐 정작 우리 두 사람 의견은 좀 무시를 한 거예요. 잘 모르면 싫다 좋다 이런 얘기 오고가면 안 되니까. 어른들이 앞에서 끌면 따라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봄 이후가 되거든 어느 날이든지 가장 좋은 날에 하자 이래 가지고 그날 저희 집안에 사주를 받고 저걸 해서 혼인이 될 만한가 아닌가... 무조

전 이 혼인은 된다 해서 만나고 십오일만에 혼인했어요.”(전주류씨 종부(59세), 1975년 혼인)

전주류씨 종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사 말이 오가고 혼인할 때까지는 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혼 과정에서 혼인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시집을 가라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라면 장가를 가야했다. 한국전쟁을 겪은 광산김씨 종손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여의고 할아버지 슬하에 자랐는데 고3때 장가를 가게 되었다. 전통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교적 규범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남녀가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1950년에 우리 아버지는 중앙에 공무원으로 계셨는데 그 당시 혼란한 시기라 이북으로 납북 되었어. 어머니는 6.25사변 나던 해에 요새말로 하면 위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 당시 61세이셨는데 내가 고등학교 맹길 때 환갑이셨어. 내가 종손이고 우리 형제가 5남매인데 모두 고아가 된 거지. 아버지도 안계시고 어머니도 안계시고 할아버지는 누워계시고 어렵사리 이 집이 얼마나 어설픈지 다 알지. 그러니까 내가 혼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래 가지고 혼례를 했는데 신부를 본적도 없고 고등학교도 졸업도 안하고 혼례를 하니깐 얼마나 슬프던지... 아무리 비밀로 해도 가까운 친구는 알꺼 아니여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아 방학 때 일사천리로 했어. 혼삿말 오가고 3개월 안에 한 거지” (광산김씨 종손(77세), 1952년 혼인)

궁합은 대부분의 가문이 따로 보지 않았다. 그저 집안 어른들끼리 좋으면 되었다.

“옛날에 양반가에는 미신 안 믿어. 종교도 없고... 근데 요새 와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금기사항 뭐 말도 많고 거 좋지 않다고 하고 사주도 보고 이런 참말로 진짜 양반집에는 그런 거 안 봤어” (풍산류씨 종손(85세), 1948년 혼인)

또한 혼인날도 날 잡아주는 사람을 통해 택일을 하기보다는 보다는 그냥 집안의 어른이 좋다고 하는 날에 혼인을 하였다.

“저희 시부모님은 궁합도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날도 어디가서 묻고 안잡으시대요. 저희 혼례 할 때만 해도 토요일은 반공일이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로 했어요. 아버님이 근무하고 올 수 있으면 오게 항상 그러시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히 집안 일할 때 날 잡는 일은 없었어요. 뭐 보러가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다만 생년기일 보고 농사가 복잡하지 않을 때 뭐 우기 이런 게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하시지 별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애들도 다 똑같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외조부가 중매하셨고 날짜도 잡으셨어요.”(경주최씨 종부(62세), 1986년 혼인)

경북지역 4개 지역 10가문의 종손 및 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에서 혼담과 배우자 선택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혼담과 배우자 선택

내용	혼인년도	혼인나이	현재연령	배우자 선택
의성김씨 종부	1940년	신부17세	88세	집안끼리 중매
풍산류씨 종부	1948년	신부20세	83세	집안끼리 중매
광산김씨 종손	1952년	신랑18세	77세	집안끼리 중매
동래정씨 종손	1955년	신랑19세	75세	집안끼리 중매
안동장씨 종손	1965년	신랑28세	74세	집안끼리 중매
진성이씨 종부	1966년	신부26세	71세	집안끼리 중매
안동권씨 종손	1971년	신랑29세	69세	집안끼리 중매
전주류씨 종부	1975년	신랑27세	53세	집안끼리 중매
영천이씨 종부	1982년	신부24세	59세	집안끼리 중매
경주최씨 종부	1986년	신부37세	62세	중매(신랑은 재혼)

2) 납채

청혼서와 허혼서 사주단자는 10개 가문이 모두 주고받았다. 그런데 정작 혼인 당사자는 혼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혼담이 들어온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혼인 당사자들의 의사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굳이 말해 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개인의 두 집안의 만남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 혼인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었다.

“나는 혼사 말이 언제 오갔는지 전혀 몰랐어. 그냥 할아버지가 올해 정혼을 했으니까 장가가라 캐서 간 거야” (풍산류씨 종손(85세), 1948년 혼인)

혼인날짜의 결정자는 전통적으로 신부측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진성이씨 가문만 신랑측에서 혼인 날짜를 결정하였다. 그 당시 신랑·신부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므로 신부집에서 혼인하기 좋은 날 이틀을 정해서 신랑댁에 전하였고 신랑집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청혼서와 허혼서는 10가문이 모두 주고 받았으나 3가문(풍산류씨, 영천이씨, 전주류씨)을 제외하고는 한국전쟁, 집안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간직하지 못한 종가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는 순진하게 편지해서 신랑집에서 이제 편지를 가져가지 신부를 이제 다고 이런 편지가 가면 그러면 저 짝집에서 준다고 편지를 쥐 가지고 보내주고 그래만 했지 딱 건 없었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내가 장가를 가겠다고 하는 그런 편지고 그래 인제 신부 집에서 그래 내 딸을 준다 그런 편지를 쥐서 보냈지 그럼 다 됐지. 우체국으로 편지가 멩기고 중매쟁이 그런 건 없었어. 그리고 나서 1년까지는 안 됐을거고 한 반년쯤 후에 혼인 했어” (의성김씨 종부(88세), 1940년 혼인)

경북지역 4개 지역 10가문의 종손 및 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에서 납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종가 면접대상자의 납채 현황

내용 종가	청혼서와 허혼서 여부	사주단지 교환여부	혼인날짜 결정자
의성김씨 종부	○	○	신부측
풍산류씨 종부	○	○	신부 측
광산김씨 종손	○	○	신부 측
동래정씨 종손	○	○	신부 측
안동장씨 종손	○	○	신부 측
진성이씨 종부	○	○	신랑 측
안동권씨 종손	○	○	신부 측
전주류씨 종부	○	○	신부 측
영천이씨 종부	○	○	신부 측
경주최씨 종부	○	○	신부 측

3) 납폐

(1) 예단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단으로는 주로 옷감, 이불감, 이불솜 등이 많았다. 이들 가문에서 도포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품목이었는데 도포는 혼수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도포의 유·무에 따라 잘해온 혼수와 그렇지 못한 혼수가 결정되고 거기에 시어머니의 체면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도포의 의미는 남달랐다. 그 당시 경상도 지방에서는 다

른 지역과 달리 농은 신랑집에서 하는 물품 중에 하나였다.

“농은 안 가져오고 도포는 3개 해 가지고 왔죠. 시조부 시아버지 신랑꺼 그때 저로서는 잘해온다고 했죠. 그때는 잘 살았으니까 길삼을 전부 노모 하고 모친하고 집에서 다했기 때문에 집에서 다 해 가지고 온 걸로 했어요. 이불은 명주이불 했어요. 전부 집에서 목화 따서 다 해가 오는 걸로 했죠. 옛날 농이 없고 상자처럼 생긴 대나무로 만든 싸리작대기로 만든 거에다 넣어 왔어요.”
(안동장씨 종부(72세), 1965년 혼인)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보내는 예단은 신랑집에서 보내온 이불감, 옷감으로 만든 시부모 및 시조부모 이불, 옷, 어른들 한복 두루마기를 혼수로 가져갔다. 예단의 범위는 시부모님, 시조부모님, 신랑 식구들이 주었다. 민가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에단도 해 가지고 갔으나 종가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에단은 해 가지 않았다(박동철, 2006).

“옛날에는 민촌은 몰라도 반촌은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안 해 가지고 와. 요새는 해 가지고 가는 사람 있다던데 우리 할 때는 없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 계시면 안했어.”(의성김씨 종부(88세), 1940년 혼인)

한편 영천이씨의 경우 시댁의 사촌이 너무 많아 시댁 어른 외에도 일가친척들에게 예단을 해야 했다. 예단을 드린 인원이 사오십명은 족히 되었다.

“우리는 사촌이 많아. 모두 열두명인데 짝 맞추면 스물네명에 시누이들이 모두 다섯집, 다섯집 시누가 들씩 낳아서 조카가 열명... 어림잡아 사 오십명은 되었어. 그래 가지고 여자들한테는 세탁할 수 있는 치마저고리 감으로 하고 남자들한테는 양복감으로 했지. 그게 실용적이고 좋더라고....” (영천이씨 종부(53세), 1982 혼인)

경북지역 4개 지역 10가문의 종손 및 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에서 예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보내는 예단

증가 \ 내용	예단 종류	예단 범위
의성김씨 종부	이불, 옷, 7첩 반상	시부모, 신랑 식구들
풍산류씨 종부	침구, 옷, 음식	시조부모, 시부모, 8촌 친척들
광산김씨 종손	이불, 옷	시부모 및 시댁어른
동래정씨 종손	음식, 전복	시부모 및 시댁어른
안동장씨 종손	시조부, 시아버지, 신랑 도포, 이불	시부모 및 일가친척
진성이씨 종부	시조부, 시부모님 이불, 도포, 신랑 옷	시부모, 신랑 식구들
안동권씨 종손	시어른 한복과 이불, 일가친척 버전	시부모 및 일가친척
전주류씨 종부	시어른 한복과 이불, 일가친척 버전	시어른 및 일가친척
영천이씨 종부	시어른 한복 및 이부자리, 12종반 치마저고리 및 양복감	시댁어른, 대소가 12종반
경주최씨 종부	이불, 어른들 한복, 두루마기	시부모, 시누이

(2) 예물

신부가 받은 예물로는 금반지, 금비녀, 한복감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종가가 당시 어렵게 살았으므로 특별히 많은 예물을 해 주지 못하였다.

“그 당시 우리집이 너무 못살아서 마이는 못해 보내고 어르신들께서 보내서 잘은 모르겠는데 뭐 옷가지하고 그리고 뭐 폐물은 금반지 하나 하고 보냈다 하던가 그래서 너무 약소하다고 했다고 나중에 그러대”(풍산류씨 종손(85세, 1948년 혼인)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 1980년대에 혼인한 영천이씨 가문의 경우는 치마저고리 및, 화장품, 금반지, 다이아몬드, 양산, 가방 등 예물의 품목이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함 안에 화장품 두 세트하고 보석함에 금반지, 다이아몬드, 루비가 있었고 치마저고리 여덟벌 있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2벌씩.... 양산 가방도 들어 있었고...”(영천이씨 종부(53세), 1982년 혼인)

경북지역 4개 지역 10가문의 종손 및 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에서 예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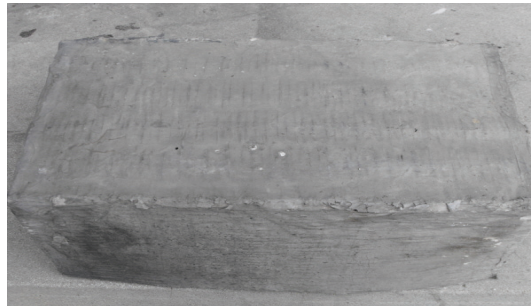
<표 4-5>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

내용	납폐물품	의식
증가 의성김씨 종부	웃웃, 빨간 치마 저고리	혼례 당일 함이 들어옴
풍산류씨 종부	옷가지, 금반지	신랑-대례 당일 같이 들어감 신부-봉치떡 없이 마루에서 받음
광산김씨 종손	반지	대례 전날 함지기와 함께 신부집 근처에서 잠
동래정씨 종손	치마 저고리, 반지	혼례당일 하인이 짊어지고 같이 감 대례 전날 신부집 근처에서 잠
안동장씨 종손	한복, 비로도	대례당일 함을 직접 갖고 들어감 신부측은 딱히 의식 없었음
진성이씨 종부	금반지, 한복 치마 저고리	한복 입고 받음. 딱히 의식 없었음
안동권씨 종손	금반지, 한복 치마 저고리	함지는 하인과 같이 감
전주류씨 종부	폐물, 치마저고리 열 벌	떡 한시루 상에 놓고 함
영천이씨 종부	치마저고리 여덟벌, 화장품 두 세트, 금반지, 다이아몬드, 양산, 가방	자리 깔고 함 받음
경주최씨 종부	생략	생략

(3) 혼수용 세간

신부가 해 간 혼수용 세간은 요강, 식기, 대접, 대야, 양푼이, 놋그릇, 이불 등을 주로 해 갔다. 종가이므로 놋그릇은 빠지지 않는 세간 중에 하나였다.

“저는 시집을 때 제사지낼 놋그릇과 요강 새이불 등을 해 왔는데 차가 귀하던 시절이라 많이는 못 가지고 오고 싸리나무로 만든 상자에 넣어왔니더.” (안동장씨 종부(1965년 혼인, 71세)



<사진 4-22> 안동장씨 경당종가 종부(1965년 혼인)가 혼수용 세간을 넣어온 상자

오늘날 중요한 세간 중에 하나인 농은 다른 지역은 주로 신부가 해가는 품목 중에 하나였는데 경상도 지방은 주로 남자가 마련하는 것이었다. 의성김씨 종부는 시집을 오니 시댁에서 농을 준비해 놓았다.

“내가 시집오니까 신방에 농이 하나 와 있대. 오동나무로 만든 아주 튼튼한 농이었어.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내 농이야”(의성김씨 종부(88세), 1940년 혼인)

전주류씨 종부(1975년 혼인)의 경우도 혼인하고 신혼집에 가 보니 농과 화장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혼수용 세간이라고는 특별한 것은 준비하지 않았고 가전제품과 예단, 폐백음식만 해서 시집을 왔다.

“그 당시에는 농 같은 것도 집에서 해 줬어요. 시집와서 신흠집에 가니까 통영 자기 농과 화장대가 안방에 있었어요.”(전주류씨 종부(59세), 1975년 혼인)



<사진 4-23> 의성김씨 천전과 귀봉종가 종부(1940년 혼인)의 농

경북지역 4개 지역 10가문의 종손 및 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에서 혼수용 세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표 4-6> 혼수용 세간

종가	혼수용 세간
의성김씨 종부	요강, 대접, 대야, 양푼이
풍산류씨 종부	요강 등 세간을 트럭으로 가지고 감
광산김씨 종손	요강, 놋그릇, 이불
동래정씨 종손	놋그릇, 새이불, 대접, 대야
안동장씨 종손	놋그릇, 새이불, 요강
진성이씨 종부	옷가지, 대접, 대야, 놋그릇
안동권씨 종손	요강, 옷가지, 대접, 7첩반상
전주류씨 종부	놋그릇, 텔레비전, 냉장고, 전기밥솥, 식기 등
영천이씨 종부	텔레비전, 냉장고, 전기밥솥, 병풍, 돛자리, 상, 병풍
경주최씨 종부	장롱, 서랍장 등

4) 대례

10개 가문 중 6개 가문은 전통혼례를 했으나 4개 가문은 신식 혼례를 하였다. 전통혼례에서는 혼례식을 하기 며칠 전에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관례를 했다. 관례는 그의 집에서 했는데 일가친척 어른들과 이웃 어른들이 모두 왔다. 10개 가문 중 2개 가문만이 관례를 치루었다.

“빈을 모시고 관복 갈아입고 도포 갈아입고 그 저 사모관대 쓰고 또 도포 갈아입을 때 갓 쓰고 그래 세 번 갈아 입어서 삼가례라 안켰나” (풍산류씨 종손(85세), 1948년 혼인)

영천이씨 종손의 경우 신식혼례를 하였으나 혼인을 하기전에 관례를 치렀다. 친지 어른들이 오셨고 음식들이 분주히 오고갔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에서 ‘관(冠)의 예’와 ‘혼(婚)의 예’가 조금의 시차를 두고 동시에 이루어진 셈이다. 관례의식에는 두 가지 의미 있는 절차가 있다. 하나는 ‘갓(冠)을 쓰는 일’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자(字)를 받는 일’이다. 나머지 시간은 혼례를 앞둔 예비 경사인 만큼 온종일 웃음과 음식과 환담으로 이어진다(이성원, 2008)

“제가 도포(道袍)라는 옷을 입고 사랑방으로 나가니 방안에 20여명의 단아한 노인들이 둘러앉아 계셨어요. 노인들 사이에서 몇 마디 대화가 오고 간 뒤 이윽고 그 가운데 한분이 일어나서 내게 갓을 씌워주시고 갓끈을 묶어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후 조그만 쪽지를 내게 보여 주셨어요. 거기에는 한자 두자가 정갈하게 씌어져 있었는데 계도(繼道)라는 자(字)였어요. 이를 계, 법도도..... 도를 이으라고.....지금 사문(斯文)의 도(道)가 쇠퇴하니 가문을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으셨대요.” (영천이씨 종손(55세), 1982년 혼인)

대례는 모두 신부집에서 치루었다. 대례가 이루어지는 곳을 대례청이라고

하는데 신부집 마당에 차려진다. 신랑은 집이 먼 경우 대부분 전날 신부집 근처에 와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당일 일찍 출발하여 대례를 치를 신부집으로 왔다. 대체로 버스를 타고 오거나 형편이 좋으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신부집 동네 어귀에서 말이나 가마를 타고 들어왔다. 또는 신부집 근처에 미리 와서 자고 당일 날 아침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집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안동서 기차타고 경주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래 거기서 자동차 타고 신부집 동네 어귀에 내려서 신부 집에 들어갈 때는 가마타고 갔지. 그 가서 그래 사랑방에 가 가지고 옷 갈아 입었어”(풍산류씨 종손(85세), 1948년 혼인)



<사진 4-24> 풍산류씨 서애종가 종손과 종부의 혼례식 사진(1948년)

보통 액막이는 신부가 신행 갈 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랑이 혼례를 치르러 신부집에 갈 때 하는 가문도 있다.

“가마 타고 들어가는데 그 모닥불같이 짙으로 불을 해놓고 이제 그 불을 가마꾼들이 타 넘는데 가마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끈 기억도 나고..”(동래정씨 종손(75세), 1955년 혼인)

신랑의 일가친척(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종숙어른)을 상객으로 모시고 왔으며

함은 혼례 당일 같이 오는데 하인이 짊어지고 신랑보다 먼저 도착하였다. 신부집에서는 혼례식을 치를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함 받는 의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요새같이 그런 거 없었어. 그 가져오면 증신애비가 짐 지고 오면 그거 받아오면 마루에 받아놓고 받는거여. [아 그럼 봉치떡 마련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럼 잔치에 일 많은데 떡 할 세가 어딴어” (풍산류씨 종부(83세), 1948년 혼인)

그러나 신식 혼례를 한 진성이씨 가문은 혼례 1주일 전에 함을 받았으며 새색시가 될 사람은 한복을 입었으며 신랑 될 사람 옆에 앉았다가 못 앉게 해서 그냥 방을 나갔다.

“한복입고 나왔지 분홍 치마에 노랑저고리 입었어. 신랑 왔는데 신랑 옆에 앉으니까 못 앉게 했어. 그래서 쫓겨 나갔지 뭐. 함 받을 때 아버지가 마루에서 봉치떡 놓고 그런 건 안했어”(진성이씨 종부(71세), 1966년 혼인)

신부집에서는 대례청 준비가 끝나면 혼례가 시작된다. 이때 신부는 치마저고리 위에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쓰고 남자는 관복 입고 사모관대를 썼다.

“할 때는 이제 여자는 원삼입고 족두리 쓰고 남자는 관대 옷 입고 관대 쓰고 했어” (의성김씨 종부(88세), 1948년 혼인)

신랑은 초행을 할 때 가져온 나무기러기를 가슴에 얹고 대례청으로 향한다. 신랑이 오면 신부의 어머니는 나무 기러기를 건네받아 대례상 앞에 놓인 신랑쪽 작은 상위에 놓는다. 그러면 신랑이 그것을 향해 절을 두 번 하는데

이것이 전안례를 하는 의식이다.

전안례를 마치면 신랑은 대례상 앞에 서고 신부의 어머니는 나무 기러기를 들고 안방으로 간다. 방안에는 신부가 대례 할 준비를 마치고 앉아 있다. 신부의 어머니는 나무 기러기를 신부앞에 던진다.

“응 그때는 혼례하는 데 함이 혼서 그 저런 상 차려놓고 함을 지고 오면 그 반에 올려놓고 받았어 그래 나무기러기 카는게 있어 함 안에 들은 나무기러기를 신부 방 있는데 던지고 그러면 땅은 머리를 이제 머리를 풀고 비너를 쫓고 그래 가지고 나가서 식을 올렸지” (의성김씨 종부(88세), 1940년 혼인)

이때 나무 기러기가 넘어지면 딸을 낳고 똑바로 서면 아들은 낳는다고 한다. 신랑이 가져온 나무 기러기가 신부에게 온 것은 전안례가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부는 일가친척 중 자식을 낳고 부정이 없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 대례청으로 나온다.

신부가 나오면 교배례를 하는데 이는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는 의식이다.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재배를 하면 신랑은 답으로 일배를 한다. 그리고 다시 신부가 재배를 하면 신랑은 답으로 일배를 한다. 이때 흘기 부르는 사람이 혼례식을 주관한다.

“절 하는 거는 서로 마주 세워놓고 흘기라는게 있어 흘기는 흘기 부르는 아저씨든 할배든 하는 사람이 신랑은 몇 번째라 신부는 몇 번째라 또 술을 부어가지고 순서대로 그거를 띄여 있는대로 읽어서 하지 [그거는 누가 봐요? 주로] 그거는 흘기 보는 사람이 하고 집안의 그런 사람 아니고? 집안이고 누구고 간에 읽을 줄 사람이하고 옛날엔 그런 것도 복이 좋은 사람 택해 가지고 읽으라고 주지 ” (의성김씨 종부(83세), 1948년 혼인)

절을 주고받고 나서는 합근례를 한다. 이는 신랑 신부가 술잔을 주고받는

의식이다. 신부를 도와주는 여자가 술잔에 술을 따라 신부에게 주었다가 다시 받아 신랑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신랑은 대야에 담긴 물로 손을 씻은 다음 술을 받아 마신다. 이번에는 반대로 신랑을 도와주는 사람이 술잔에 술을 따라 신랑에게 주었다가 다시 받아 신부를 도와주는 여자에게 준다. 신부는 팔에 한삼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팔이 자유롭지 못해 손은 씻지 않는다. 술잔을 받은 여자가 그것을 신부의 입에 대 주면 신부는 마시지 않고 입에 대기만 한다. 이렇게 해서 대례는 끝나고 신랑 신부는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

저녁이 되기 전까지 신랑은 중간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부의 일가친척들과 술을 마시며 지내다가 밤이 되어서야 신방으로 들어간다. 신랑은 방에 들어가서 관대를 벗고 큰상을 받은 다음 신방으로 인도되어 첫날밤을 보낸다. 동래정씨 종손의 경우 신방에 들어왔을 때 신부는 이미 와 있었으며 방안에는 작은 주안상이 하나 차려져 있었다.

“뉘 첫날밤 얘기도 안하고. 나중에 새벽되면 사람 없지. 밤에 잘 때 그저 신부 머리 풀고 그 머리 땀은 머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저 비녀 빼고 고름 풀어주었지” (동래정씨 종손(75세), 1955년 혼인)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보낼 때는 문밖에서 사람들이 방안을 들여다보려고 창호지 문구멍을 내는 등 장난을 친다.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는 공간은 대개 신부집 안방 또는 사랑방에 마련된 신방이다. 혼례식을 하는 날은 신부집의 잔칫날로 일가 친척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온 집안 곳곳에서 밤늦도록 음주 가무를 즐긴다. 거기다가 첫날밤에는 사람들이 신방 엿보기를 한다고 밤늦도록 신방의 문구멍을 뚫고 장난을 치며 신랑 신부의 공간을 방해한다.

“그래도 그 한 거는 장모님과 처남 처제들이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지 ‘아아 가시오 가시오 신랑 있는데’ 이래서 방어해주고 그래 했지” (광산 김씨 종손(77세), 1952년 혼인)

한편 신식혼례를 한 진성이씨 가문의 종부는 한복에 면사포 고무신을 신고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치렀다. 종손과 종부 모두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식혼례를 치를 때 의상은 전통예복과 서양예복을 혼합한 형태였다.

“드레스는 못 입고 한복입고 면사포 쓰고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입고 했어. 분홍입고 하면 재혼이라 해서 안 입었어 [그럼 구두 신으시구요?] 구두는 안 신었어 고무신 신고”(진성이씨 종부(71세), 1966년 혼인)

영천이씨의 경우 예식장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혼여행을 경주로 떠났으나 친정집에서 첫날밤을 치른 후에 신혼여행을 떠났다. 시부모님의 뜻인 만큼 정성들여 만든 원앙금침에서 부모의 연을 맺었다.

“아버님이 왜 남들이 자고 간 이불에서 첫날밤을 보내느냐고 하시면서 첫날 밤인만큼 정성들여 만큼 원앙금침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해서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영천이씨 종부(53세), 1982년 혼인)

혼례식을 마친 신부는 앞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시댁으로 길을 나서는데 이것을 ‘신행’이라고 한다. 신행은 혼례식을 하고 언제 시댁으로 가는가의 기간에 따라 나뉘는데 보통 1년 묵어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묵신행, 삼일만에 들어가는 삼일신행, 그리고 혼례식을 하고 그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는 도신행이 있다. 도신행을 할 경우 신랑 신부는 신랑집에서 첫날밤을 보낸다. 의성김씨 종부는 도신행을 해서 시댁에 왔으나 너무 어린데 일찍 왔다고 친

정에 다시 갔다가 1년 정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날 이집으로 왔지. 아침 6시쯤 홀기 부르고 행례하고 이리 오니라 일찍 했지. 이집 들어오는 시(時)가 있어가지고 그거 맞추느라고 일찍 했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인력거란게 있었어. 집에서는 가마타고 신리까지 나와서 신리에서 버스타고 왔지. 버스는 뺏 없으면 타지도 못했지. 보통 그때 차를 못 탔지. 우리는 버스회사에 사장을 알고 있어서 탔어. 그래 와 가지고 뭐 며칠 안 있다가 다시 친정에 갔어. 그때는 시도 그렇게 나고 날도 그렇게 나와서 혼례는 했는데 너무 일찍 왔다고 친정에 다시 갔다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왔어. 첫날밤은 저 방에서 보냈는데 시댁에서 자는거라 다른 사람들이 방해는 안했어”(의성김씨 종부(88세), 1940년 혼인)



<사진 4-25> 의성김씨 천전파 귀봉종가 종부(1924년 혼인)가 첫날밤을 지낸 방

신부가 삼일신행을 하면 신랑은 신부집에서 멀지 않은 일가친척 집이나 이웃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재행을 하는데 이것을 ‘인재행’이라고 한다.

“나는 삼일 만에 돌아왔어. 혼인날짜가 있고 그 다음날 인재행이라고 해서 처갓집에 안자고 처가 외가 집에 가서 자고 그래 다시 돌아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자동차 타고 장인하고 신부 데리고 그래 왔어. 그래가지고 마당에서 현구고례하는 것이 신행이야. 그 옛날 혼례는 신부 집에서 혼례식을 한번하고

돌아와서 신랑 집에서 한 번 더 현구례하는 혼례가 있고 두 번하지”(풍산류씨 종손(85세), 1948년 혼인)

한편 겨울에 혼인한 동래정씨 종손은 7일 만에 본가로 돌아왔는데 눈이 와서 발이 묶였다.

“신부 집에 있는데 보통 사흘부터 눈이 와가지고 그 집에 오래 있었어. 한 7일간 있었지 [아 눈이 와서요? 그럼 7일 동안 뭐하셨어요?] 7일 그때 뭐 신부 쪽에서 뭐 친구들과 와 가지고 뭐 밤낮으로 와 가지고 음식 먹고 놀고 했지 뭐”(동래정씨 종손(75세), 1955년 혼인)

신부가 신행을 갈 때 신랑집의 거리가 멀지 않으면 신부는 집에서부터 가마를 타고 신랑집으로 오거나 신부집과 신랑집이 가마를 타고 오기 어려울 정도로 먼 거리일 경우에는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와야 했다. 안동장씨 가문의 종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서 혼인을 했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삼일신행을 했다. 종부는 시집와서 3년 내내 색깔있는 옷을 한번도 입지 못했다.

“혼인하고 삼일 만에 오는데 내가 상주가 아닙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서 바로 혼인하셨어요?] 그렇죠 어머님은 10월달 가을에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정월달에 혼례했으니까 3~4개월 있다가 혼례한거지 [아 그러면] 상신(喪身)으로 혼례했기 때문에 신부가 새옷은 못입고 소복을 해서 신행을 했습니다.” (안동장씨 종손(74세), 1965년 혼인)

혼례식을 마친 신랑은 신부가 묵신행을 하면 보통 3일 정도 신부집에 머무르는데 신랑다루기와 신랑회가는 이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부가 도신행을 할 경우에는 혼례식을 마친 신랑이 신부와 함께 그 날 바로 본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신랑이 재행을 갔을 때 신랑다루기와 신랑회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부가 삼일신행을 할 경우에는 첫날밤을 보낸 신랑이 인재행을 갔

다 왔을 때 이것들이 이루어진다.

“뭐 특별한건 없고 지금 우린 땀 마찬가지고 혼인을 하고 자고 나면 그 이튿날은 우리 할아버지는 당일 돌아가시고 주무시지 않고 나 혼자 자고 일어나면 그 집 어른들 장인 장모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 부터는 그 집안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잔치가 되는 거죠”(안동장씨 종손(74세), 1965년 혼인)

신랑다루기를 할 때 장난꾼 역할은 신랑의 처남들과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맡는다. 이들은 신랑을 술방울로 찌르면서 신랑을 괴롭히거나 몽둥이로 발바닥을 때리기도 한다.

“그 신부집안 남자들이랑 안으로 하고 그 뭐 박수치고 웃고. 뭐 잘못하면 가락송이한다고 사람 팔다리 들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다가 옛날에 가락송이 해 가지고 사람이 상했어. 이 마루 꼬챙이에 등이 끼였는거라. 그래 가지고 그 길로부터 그게 없어졌다고”(동래정씨 종손(75세), 1955년 혼인)

안동장씨 가문의 종손은 처가에서 신랑을 시험하기 위하여 소태로 만든 감주를 먹였다. 매우 써서 못 먹을 정도 였으나 아무말 없이 마셔서 장서방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발바닥 때리고 그거는 기본이고 지금 기억하는 건 소태 카는거 아세요? 소태란게 나무예요. 그게 굉장히 써요. 나는 소태나무가 없는 지방에 살아서 술을 잘 못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못해요. 그런데 그 저녁에 집안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하는데 내가 술을 못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감주를 주더라고 감주를 주는데 불떡 마시는데 소태로 만든 감주예요. 얼마나 쓴지 [일부러? 그렇게 주신거예요?] 네 일부러 신랑 애 먹일려고 이제 한거지. 그 보통 목에서 넘어가지도 않는데 상황이 그렇다보니 뺄을 수도 없고 모른 체 하고 다 마셨어요. 꿀떡꿀떡 마시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거지. 이 사람이 못 먹고 뺄어야 하는데 다 먹으니까 좀 더 이상한거야. 자기네들이 맛을 보는 거

야 아닌 걸 먹은게 아닌가 그래 먹어보니까 쓰거든 그러니 장서방 대단하다 했어요. 그거는 기억나거든”(안동장씨 종손(74세), 1965년 혼인)

경북지역 4개 지역 10가문의 종손 및 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에서 대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증가 면접대상자의 대례 현황

증가	혼인당일 절차	첫날밤	혼례복	신랑다루기
의성김씨 종부	함 받고 나무기러기를 신부 방에 던진 후에 신부 뺨은 머리를 비너로 찌름	신랑집	혼삼에 치마저고리 족두리, 관대옷, 관대	하지 않음
풍산류씨 종부	잔치준비로 바빴 신부는 준비하고 방안에서 대기	신부집	전통혼례복	하지 않음
광산김씨 종손	잔치준비로 바빴 신부는 준비하고 방안에서 대기	신부집	전통혼례복	발바닥매리기
동래정씨 종손	신랑은 상방에서 기다리고 식사 후 사모관대 갓춤	신부집	전통혼례복	송침찌르기 발바닥매리기
안동장씨 종손	잔치준비로 바빴 신부는 준비하고 방안에서 대기	신부집	전통혼례복	발바닥매리기 소태로 만든 감주 마시기
진성이씨 종부	신식혼례, 차대절	경주	한복, 면사포, 고무신	발바닥매리기
안동권씨 종손	잔치준비로 바빴 신부는 준비하고 방안에서 대기	신부 집	전통혼례복	발바닥매리기
전주류씨 종부	신식혼례, 차대절	동화사	신식혼례복	송침, 발바닥매리기
영천이씨 종부	신식혼례, 차대절	신부집	신식혼례복	하지 않음
경주최씨 종부	신식혼례, 차대절	제주도	전통혼례복 신식혼례복	하지 않음

5) 현구고례

가마를 타고 신행 온 신부는 시택에 들어서면서부터 신랑집안에 통합되기 위한 의례를 거친다. 불이 붙은 짚불을 넘음으로써 나쁜 기운을 없애고 깨끗한 몸으로 통합을 준비한다. 그런 연후에 시부모와 신랑의 일가 친척 어른들께 일일이 절을 하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된 것을 신고한다. 이를 “폐백”이라고 한다. 경주최씨 종부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폐백복과 족두리를 입고 폐백례를 올렸다.

“치마 저고리 위에 원삼입고 족두리까지 쓰고 폐백 올렸어요. 원래 가문에서 내려온 옷이에요. 그게 굉장히 소박하고 많이 낡았었어요. 잠깐 보면 궁중 영화에 나오는 상궁들이 쓰고 나오는 족두리 있잖아요.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 그런데서 약간 꾸며놓은 거예요. 수 좀 놓고 예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때 찍은 사진 이런 게 다 같이 타버려 가지고 없어요”(경주최씨 종부(62세), 1986년 혼인)



<사진 4-26> 풍산류씨 서애종가 종손과 종부의 폐백례(1948년)

폐백음식은 신행을 때 가지고 온 음식으로 준비하였다. 주로 대추, 유과, 밤, 소고기, 다식, 엿 등이었다.

“폐백은 친정에서 올 때 해 가지고 온 술, 참외하고 유과하고 뭐 그런거였지. 대추, 밤, 빙사, 잔유과 등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노란물 분홍물 들인 과자야. 옛날 음식은 공이 많이 들어” (의성김씨 종부(88세), 1940년 혼인)

폐백례의 범위는 모든 가문이 시부모에서부터 문중어른까지 한 분도 빠짐 없이 올렸다.

“폐백은 신부가 제일 처음 시택에 오니까 따로 전통혼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마당에서 대추 밤 놓고 절 했어요. 그때는 마당에서 명석을 깔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절 드리고 그 다음에 문중어른들하고 인사하는 게 있어요. 문중어르신들한테 다 같이 할 때는 모르다가 돌아보니까 다들 갓 쓰고 도포입고 계시니까 놀래가지고.... 큰절을 한꺼번에 옛날에는 향렬에 맞춰서 절을 했는데 아버님이 힘들다고 다 같이 하라고 했어요. 맞절을 하고 어른들은 방으로 들어가시고..... 다 끝나고 들어가시고 뭐 이제 나중에 잔치했다고 좋다고 어머님이 솔뚜껑 들고 도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런 거 왜 그러는가 여쭙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경주최씨 종부(62세), 1986년 혼인)

폐백례를 올린 후 신부는 큰상을 받는다. 그때 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에게 먹을 것을 권한다. 의성김씨 종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떡국 국물을 조금만 먹었다.

“폐백 끝나고 뭐 큰상이라고 주는데. 뭐 어정쩡한데 맛있는걸 뭐 아노. 중간에서 대반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뭐 숟가락 들어라카고, 정신이 없어 떡국 국물 조금 먹었어”(의성김씨 종부(88세), 1940년 혼인)

폐백례를 올린 후 다음날 새 며느리는 사당폐백을 올린다. 경주최씨 종부는 불천위에다 4대 봉사까지 모두 스무번을 절 했다.

“아 사당폐백은 원래 사대봉사인데다가 불천위가 있으니까 절을 스무 번

하는 거예요. 사배씩 [스무 번 하시는 거 힘드셨겠네요] 절하는 건 안 힘들어요. 뒤에서 수모가 다 받쳐주니까요?] 아뇨 저는 혼자해요 나는 누가 잡아주니까 못하겠더라고 절하는 건 별로 안 어려웠어요”(경주최씨 종부(62세), 1986년 혼인)

시택에 와서 며칠을 지낸 신부들에게 신부회기도 중요한 의례적 행사였다. 신부회기란 신부가 시누이 등의 안내를 받아 가까운 신랑의 일가친척 어른들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신부가 시집오고 며칠 지난 다음에 회가라 케 가지고 일가 친척집을 도는 게 있습니다. 우린 종가니까 큰집은 없고 작은집을 돌아가면서 밥한끼를 먹습니다. 아침은 집에서 먹고 점심 저녁은 돌아가면서 친척덕에서서 먹는데... 시가에 그런 전문을 보고 배우는 거지. 지금도 맹 그래. 요즘도 신부가 오면 회가를 도는데 일일이 다 돌아요. 또 종택이니까 사당에 알현을 합니다. 신부하고 신랑하고 같이 와서 인사하고 지금도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안동장씨 종손(74세, 1965년 혼인)

조석 문안은 각 가문마다 기간이 달랐다. 적게는 하루에서부터 길게는 일 년까지 한 가문도 있다. 한편 상중에 혼례를 치른 안동장씨 종부는 3년을 빈소에 상식을 올렸다.

“그 당시 할아버지 아버지 양 대부가 계셨죠. 또 빈소가 할머니 시어머니하고 해서 두 분 계셨어요. 아침 상식을 두 번 드려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3년 상을 했죠” (안동장씨 종손(72세), 1965년 혼인)

비교적 최근에 혼인을 한 경주최씨 종부는 시택에 가서 3일 지내는 동안 딱 하루 조석 문안을 올렸다.

“아침문안은 하루 딱 했어요. 아버님이 하지말래요. 아버님이 그런 거는 이

제 물론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피곤할 수도 있고 어버님 어버님도 머느리 맞으려고 또 준비해야 하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한 방에 안 주무셔요. 어머님은 안체에 주무시고 아버님은 사랑채에 주무셔서....그래서 하루만 했는데 음식은 차로 드렸어요.”(경주최씨 종부(62세), 1986년 혼인)

경북지역 4개 지역 10가문의 종손 및 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에서 현구고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8>과 같다.

<표 4-8> 종가 면접대상자의 현구고례 현황

종가	우귀	조석문안	폐백범위	폐백음식	사당폐백
의성김씨 종부	도신행 후 묵신행	일주일	시부모, 시조부모 시삼촌, 시숙모, 시사촌	친정집 준비, 대추, 유과, 밤, 소고기, 다식, 엿	드림
풍산류씨 종부	3일 신행	일주일	빠짐없이 전부다	유과, 대추, 밤, 엿	드림
광산김씨 종손	3일 신행	일주일 넘게	시부모 및 일가친척	유과, 대추, 밤, 엿	드림
동래정씨 종손	7일 신행	한 달	팔촌까지	유과, 대추, 밤, 엿	혼례당일부터 신부는 3일 뒤
안동장씨 종손	3일 신행	3년	문중 어른들	유과, 엿, 밤, 대추	3일 만에
진성이씨 종부	신혼여행 후	일주일	시부모 및 일가친척	대추, 밤, 닭,	하지 않음
안동권씨 종손	7일 신행	1년	시부모 문중어른들	유과, 엿, 밤, 대추	드림
전주류씨 종부	3일신행	1년	시부모, 일가친척 8촌까지	구절판, 강정, 다식	스무번
영천이씨 종부	3일 신행	1년	시부모 및 일가친척, 문중 어른 시사촌	청주, 다식, 강정	스물네번
경주최씨 종부	신혼여행 후	하루	시부모, 문중 어른들	대추, 밤(시택준비)	스무번

6) 종가의 올바른 혼례문화 제안

종손과 종부로써 종가를 지키면서 종가 고유의 혼례관행의 여부와 종손과 종부가 제안하는 새로운 혼례문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종가 고유의 혼인관행

각 종가마다의 고유의 혼인관행은 없었으나 풍산류씨 가문은 집안 즉 가문과 사람 됨됨이를 중요시 하였다.

“어 부모 조상으로서 손자나 아들을 다 키웠고, 손부의 경우 역시 집을 많이 보지 가문을 보고 또 당자를 보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자손을 똑똑한 자손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 해. 뭐니뭐니해도 양반 아니여도 그거는 요새 달리 벼슬은 없으니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가고 똑똑한 아이랑 혼례시켜야 그래야 좋은 자손을 낳아 그 우생학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야만 삼대적 선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상으로써 가문하고 규수의 자질을 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손부로 맞고 싶지. 그러나 저네들이 연애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 (풍산류씨 종손(85세), 1948년 혼인)

경주최씨 가문 또한 집안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특히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가를 중시하였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집안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 집 자손이고 그 이전에 그 어머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다는 건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아는 문제부모에서 나온다고 하듯이 그 부모가 바깥으로 보이는 거 거창하게 그 사람이 교수고 그 집안이 벼슬을 어여하고 하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때 애들이 많이 비뚤어져 있더라구요. 제가 혼례를 해서 집에 최씨집안에 온 것 중 뭐가 제일 좋으냐 하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남에게 보인다고 보다는 어쨌던 간에 혼인하는데 있어서 뭐 그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고 그런 분이셨어요. 크게 사치스럽지도 않으시면서 남한테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걸 조금 좋아하시니까 그러는데 여기 어른들은 그런건 없어요. 그리고 형편이 그렇다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 봤을 때 보면 혼례는 실질

적이어야 한다고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제가 이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상을 다 차렸는데 편을 꺾어 놓고 제사 지내기 전에는 덮어 놓잖아요. 한지로 덮어놓고 상에 올리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 같은 정신을 어디다 놓고 하느냐고 나무라신다구요. 제사 지낼때는 긴장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오히려 한 두가지가 더 실수를 하게 되더라구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사 다 지내고 돌아셨는데 ‘어머 아버님 떡이 안 올라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카니까 ‘아 그렇구나 조상님이 귀신같이 알고 편하고 가셨을꺼다 다음부터는 안잊어 버리면 된다’ 하셨어요. 절대로 안 잊어 버릴 것 같아요. 어른은 나무라시는게 없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안 잊으면 되지 그러니까 음식을 하면서 불안하고 막 그런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집 며느리가 생선 굽다가 대가리를 동강을 내놔도 ‘어머님 어떡해요’ 하면 살짝 같다 붙여놓으라고 해요. 먹을 때 어차피 잘라서 먹어야 하니까 너그러운 것도 어른이 그러면 너그러워지고 전체적으로 집안이 푸근하고 너그러우세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집에서 자란 여식이 큰 며느리로 오면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왔는가 혼인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경주최씨 종부(62세), 1986년 혼인)

(2) 종가의 혼례문화에 대한 의견

혼례문화에 대한 의견은 각 가문마다 달랐다. 풍산류씨 종손은 바램이 있다면 후손들이 자식을 많이 생산했으면 하였다.

“거 부모말들 듣나 그렇지 저 둘이 좋아해야 되는 거지.....여기 이제 혼반(婚班) 카는게 있거든. 그거는 계급이 많아. 양반도 계급이 참 높은 양반도 있고 낮은 양반도 있고 중인 계급도 그래요 중인계급도 굉장히 높은 계급도 있고 낮은 계급도 있고 그 집 양반하고 대등하게 하고 아 그래서 집에 가격(家格)이 있어 가격(家格)이 있고 혼반(婚班)이 있고 그래가지고 가격(家格)이 맞는 집 끼리 혼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 했는데 요새 뭐 그런거 있나 아무리 좋은 규수가 있어도 좋은 신랑이 있다 하더라도 저 둘이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되는데. 뭐 말들

나 부모 말 안들어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는 요새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혼례를 한다고 하면은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야 해. 요새 뭐 혼례 해 가지고 금방 이혼하는 집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혼례 했으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돼. 양보하고 행복을 구축해 나가야해 아들 딸 놓고 제발 아들 딸 많이 놓았으면 좋겠어 그게 바램이야” (풍산류씨 종손(85세), 1948년 혼인)

동래정씨 가문의 종손은 성인도 시대를 따르라고 했다고 혼례도 시속을 따랐으면 하였다.

“뭐 옛날식으로 요새 안보고 지내지는 안 하잖아요. 서로 보고 뭐 서로 봐야 뭐 사겨 봐야 뭐 사람 어떤동 알거고 그게 정도고. 뭐 옛날같이 그래 혼례는 그건 시대상이 다르니까 그거는 단점이 많다고 봐야지. 그냥 시대를 따라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속담에도 성인도 시대를 따르라고 했으니” (동래정씨 종손(75세), 1955년 혼인)

안동장씨 가문의 종손은 현대의 주말에 행해지는 혼례날짜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전통혼례를 후손들이 했으면 하였다.

“내 입장가지고 되는데 아니고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전통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 아십니까? 자기들 편리한 거 날 받는게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래 받아가지고 관습은 저버리고 본인들 편안한 걸 위주로 하는데 하객 입장으로써는 내가 종손이니까 서울도 많이 갑니다. 그게 부담이 되고 그래요. 꼭 토요일 일요일날로 잡으니까 중첩이 되요. 어떤 날은 세군데 네 군데 가야 되는데 안동 같은데 다닐 순 있는데 서울은 불가분 가야 되니까 딱 데는 못 가게 되고 한집만 가게 되죠. 앞으로 혼례하는 거는 주말을 이용하지 말고 평일날도 날 받아서 하면 서로 덜 답답할 수도 있고 내입장으로써는 신혼보다는 구혼을 해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유지 해 줬으면 싶은 마음이고 손자가 혼례하게 되면 내가 그때까지 사지를 못하지 싶습니다만은 애들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말손자는 구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동장씨 종손(74세), 1965년 혼인)

안동권씨 종손은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예식장의 축의금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으면 하였다.

“예식장에서 하는 거 나도 하기는 했지만 나는 예식장에서 하는 거 반대예요. 예식이라고 하는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초정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조금 받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혼례는 서로 간에 뜻이 있고 그런 걸로 축하해 줄 사람이 와서 해야지.... 지금 하는 혼례식장에서 봉투 들고 와서 밥 먹으러 가는데 축하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지 그거는 품앗이 갚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내 동생 혼례시킬 때 일체 청첩을 안했어요. 청첩을 내는 것은 축하해 주러 오라는 것인데 내가 청첩을 했으면 100명을 했으면 100명이 타는 버스 대절해야지. 요즘은 대절버스에 가족들이 다 타니까 갈 사람이 못가는 거야. 그래서 돈 봉투만 내고 가는 거야.” (안동권씨 종손(69세), 1971년 혼인)

경주최씨 종부는 예단의 허례허식이 바뀌었으면 하였다.

“막내 혼인 할 때는 사돈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태상을 받는 것도 우리는 큰집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해서 안 되고. 요즘은 폐백이라고 하는 게 전부다 밖에 나와서 맞춰다 오니까 장사하는 사람 벌이를 해주는 거지 옛날처럼 그 집 가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해 온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집 안에는 어지간히 불일때도 없으니까 아예 없던 걸로 하자도 했고 예단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단 혼례하면 장모님이 애들을 돌봐주고 장모님 사랑이라도 많이 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혼인할때는 우리는 주고받는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섭섭하셨어요?] 안그래도 남편도 섭섭하지 않냐고 물어봐서 벗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를 왜 힘들게 하냐고... 왜냐하면 제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느끼게 예단을 보낸다 뭐하는데 목돈을 쪼가리 내고 쓸모없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 돈을 목돈 만들어서 애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혼인을 시키는거지 그게 왜 어른들이 잔치하듯이 하는 게 항상 못마땅했으니까요 그걸 내가 이제 실현을 한번 해 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사돈도 좋고 또 만사람들도 좋고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대단한 결심인양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요즘 혼인하는 건 점점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고 내가 왜냐하면 내가 아들가진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색시집에서는 좋다고 할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대요. 처음엔 의심하시던데 혼인을 하고 나니까 괜찮은 가봐요” (경주최씨 종부(62세), 1986년 혼인)

3. 종가 혼례문화의 특징

지금까지 경북지역의 종가 10가문을 대상으로 종가의 혼례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보다는 집안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슷한 가격(家格), 선조의 공통된 학통이나 연원 등을 근간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다. 종가의 경우 퇴계 이황의 학맥을 중심으로 누대에 걸쳐 혼인한 가문이 많았으며 집집마다 혼인이 잘 되는 가문, 혼인을 피하는 가문이 따로 존재하였다. 전주류씨의 경우 원혼(遠婚)을 많이 하였으며, 영천이씨의 경우 혼인을 피하는 성씨가 따로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길혼(吉婚)의 경험이 있는 문중들 간에 통혼관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혼반(婚班)은 연출혼을 낳게 된다. 본 연구에서 만난 대다수 종부들이 친가와 시가 간에 친족들이 서로 ‘오고 간’ 혼인을 통해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친가의 ‘고모’나 ‘사촌’이 같은 문중으로 시집을 오고 그들에 의해서 중매가 주선되기도 하였다. 서애종가 종부는 친정이 ‘만석살림’을 하는 부유한 가문이었으나 시댁의 살림살이는 많이 어려웠다. 그러나 조부의 권고와 시집이 ‘종가’라는 이유로 혼인하였다. 또한 종가는 혼인시 궁

합을 따로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가의 상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가의 혼례문화를 연구한 박동철(2006)의 연구에 의하면 혼인 시 궁합을 보는 것은 당연했고 궁합이 좋지 않으면 혼인이 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종가의 경우 궁합은 보지 않았고 여러 정황으로 가장 편안한 날에 잡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둘째, 혼인시 오가는 납채서는 시대가 많이 변하였지만 10가문 모두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전쟁, 댐건설로 인한 종가의 이사, 화재 등으로 인하여 납채서를 간직하고 있는 가문은 3가문 정도였다. 전주류씨 가문의 경우 홍선대원군이 쓴 현판과 사당안에 있던 수많은 고서를 모두 도난당하는 등의 아픔을 겪었다. 종손이 도난당한 조상의 보물을 찾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2달을 찾아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 다행히 혼인과 관련된 유물은 종부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셔서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오늘날 미혼 남녀들은 납채서를 아예 모르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혼례에 있어서 의식과 절차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한글 납채서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1969년 가정의례준칙의 발표로 인해 폐백실이 예식장안에 설치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백을 예식장내에서 올렸다. 종가의 경우 신식혼례를 올린 가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9개 가문이 시댁에서 폐백례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식혼례를 올린 한 가문은 신랑 신부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시댁과의 거리가 원거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혼수, 예단, 예물 등은 모든 종가가 주고받았으나 약소하게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40~1950년대에 비해 1970~1980

년대에 혼인한 경우는 혼수품이 다양화되기는 하였으나 사치스럽거나 호화롭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가 예물로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치마 저고리인데 치마 저고리를 10벌까지 받은 가문도 있었다. 한편 신부가 해가는 혼수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았다. 신랑이 농과 화장대까지 준비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북지역만의 혼례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부가 해가는 예단으로 빠질 수 없는 품목 중의 하나는 시어른 이부자리와 옷이었으며 특히 시아버지의 도포는 필수품 중에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지만 종가혼례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문화 중의 하나로 대표적인 유형의 문화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가도 서구문화의 유입, 외래 종교의 유입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종가의 혼례를 보존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V.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실태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현 실태와 향후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경북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기혼자는 232명이 설문에 응했다. 그 중 남자는 96명(41.4%), 여자는 136명(58.6%)이다.

가족 수의 경우 2명 이하가 41명(17.7%), 3명이 58명(25.0%), 4명이 107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5명이 20명(8.6%), 6명 이상이 6명(2.6%)이다.

연령대의 경우를 보면 30세 미만이 23명(9.9%), 30~40세미만이 96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40~50세미만이 70명(30.2%), 50세 이상이 43명(18.5%)이었다.

직업의 경우 전문기술직이 53명(22.8%), 사무직이 59명(25.4%), 판매서비스직이 26명(11.2%), 자영업이 19명(8.2%) 주부가 43명(18.5%), 기타가 32명(13.8%)이었다.

수입을 보면 100~200만원 미만이 76명(32.8%), 200~300만원 미만이 96명(41.4%), 300~400만원 미만이 35명(15.1%), 400~500만원 미만이 16명(6.9%), 500만원 이상이 9명(3.9%)이었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이 66명(28.4%), 전문대졸이 39명(16.8%), 대학교(재)졸이 88명(37.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대학원 이상은 26명(11.2%)이었다.

종교의 경우에는 불교가 46명(19.8%), 기독교가 70명(30.2%), 천주교가

16명(6.9%), 무교가 91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9명(3.9%)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 미혼자는 171명이 설문에 응했다. 미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그 중에 남자는 105명(61.4%), 여자는 66명(38.6%)이다. 가족 구성원 수를 보면 2명 이하가 17명(9.9%), 3명이 25명(14.6%), 4명이 87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5명이 34명(19.9%), 6명 이상은 8명(4.7%)이다.

연령대의 경우를 보면 30세 미만이 138명(80.7%)으로 가장 많았고, 30~40세미만이 32명(18.7%), 40~50세미만이 1명(0.6%)이다.

직업의 경우 전문기술직이 29명(17.0%), 사무직이 54명(31.6%), 판매서비스직이 8명(4.7%), 기타가 80명(46.8%)이다.

수입을 보면 100~200만원 미만이 107명(62.6%), 200~300만원 미만이 45명(26.3%), 300~400만원 미만이 12명(7.0%), 400~500만원 미만이 4명(2.3%), 500만원 이상이 3명(1.8%)이었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이 21명(12.3%), 전문대졸이 27명(15.8%), 대학교(재)졸이 119명(69.6%)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대학원 이상은 4명(2.3%)이었다.

종교의 경우에는 불교가 43명(25.1%), 기독교 49명(28.7%), 천주교가 10명(5.8%), 무교가 63명(36.8%)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6명(3.5%)으로 나타났다.

<표 5-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 수		기혼자(232명)		미혼자(171명)	
		N	%	N	%		
성별	남자	96	41.4	105	61.4		
	여자	136	58.6	66	38.6		
가족 수	2명 이하	41	17.7	17	9.9		
	3명	58	25.0	25	14.6		
	4명	107	46.1	87	50.9		
	5명	20	8.6	34	19.9		
	6명 이상	6	2.6	8	4.7		
연령	30세 미만	23	9.9	138	80.7		
	30~40세 미만	96	41.4	32	18.7		
	40~50세 미만	70	30.2	1	0.6		
	50세 이상	43	18.5	0	0.0		
직업	전문기술직	53	22.8	29	17.0		
	사무직	59	25.4	54	31.6		
	판매서비스직	26	11.2	8	4.7		
	자영업	19	8.2	0	0.0		
	주부	43	18.5	0	0.0		
	기타	32	13.8	80	46.8		
수입	100~200만원 미만	76	32.8	107	62.6		
	200~300만원 미만	96	41.4	45	26.3		
	300~400만원 미만	35	15.1	12	7.0		
	400~500만원 미만	16	6.9	4	2.3		
	500만원 이상	9	3.9	3	1.8		
학력	고졸미만	13	5.6	0	0.0		
	고졸	66	28.4	21	12.3		
	전문대졸	39	16.8	27	15.8		
	대학교(재)졸	88	37.9	119	69.6		
	대학원이상	26	11.2	4	2.3		
종교	불교	46	19.8	43	25.1		
	기독교	70	30.2	49	28.7		
	천주교	16	6.9	10	5.8		
	무교	91	39.2	63	36.8		
	기타	9	3.9	6	3.5		

2. 혼례문화에 대한 분석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현 상황과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전통혼례의 절차인 의혼, 납채, 납폐, 대례, 현구고례의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의혼

의혼(議婚)이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신랑 집과 신부 집이 서로 혼사(婚事)를 의논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혼례형태, 중매주체, 혼례준비주체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2>와 같다.

(1) 혼례형태

혼례형태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77명(68.7%)이 연애혼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연애와 중매의 절충혼 73명(18.1%), 중매혼 53명(13.2%)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조사대상자 232명 중 연애혼이 152명(65.5%)으로 가장 많았고, 중매혼이 43명(18.6%), 연애+중매혼이 37명(15.9%)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를 보면 조사대상자 171명 중 연애혼이 125명(73.1%)으로 가장 많았고, 연애+중매혼이 36명(21.1%), 중매혼이 10명(5.8%)으로 나타났다.

기혼과 미혼자의 경우 큰 차이점은 기혼자는 연애혼, 중매혼이 많은데 비해 미혼자의 경우는 연애나 연애+중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들의 혼례관에 대해 연구한 김영옥(1999)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기혼, 미혼에 따른 혼례형태 선호도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혼례형태는 중매혼은 점차 줄어들고 연애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중매주체

본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중매로 혼인했거나 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5명이다. 그 중 기혼자는 66명이고, 미혼자는 3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중매 주체가 친인척인 경우는 28명(26.7%), 직장동료인 경우는 22명(21.9%), 기타인 경우는 17명(16.2%), 부모인 경우는 16명(15.2%)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는 친인척이 19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동료가 17명(25.8%), 기타가 14명(21.2%)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결혼정보회사가 11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이 9명(23.1%), 부모가 8명(20.5%), 직장동료가 5명(12.9%)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중매 주체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혼자의 경우에는 결혼정보회사가 단지 1명(1.5%)에 불과했지만 미혼자의 경우에는 11명(28.2%)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혜숙(2010)의 연구에서도 2000년도 이전에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배우자를 소개받은 사람이 없었지만 2000년대에는 조사대상자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개를 받았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기혼, 미혼에 따른 중매 주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혼인의 중매 주체는 결혼정보회사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혼례준비 주체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혼례준비 주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199명(49.4%)이 부부 스스로 혼례를 준비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도움이 132명(32.8%), 웨딩플래너의 도움이 39명(9.7%)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를 보면 부부 스스로가 111명(47.8%), 부모님 도움이 101명

(43.5%), 문중 어른 및 친인척 도움이 20명(8.6%) 순으로 나타났으나 미혼자의 경우에는 부부 스스로가 88명(51.5%), 웨딩플래너의 도움이 39명(22.8%), 부모님 도움이 31명(18.1%) 순으로 나타나 기혼자, 미혼자 간의 혼례준비 주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들은 향후 혼인 시에 웨딩플래너의 도움을 받겠다는 사람이 39명(22.8%)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기혼자들은 한 사람도 웨딩플래너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 미혼자 간의 혼례준비에 주체에 대한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혼례 준비 시 웨딩플래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혼에 대한 분석 결과 혼례형태는 중매혼은 점차 줄어들고 연애혼, 연애+중매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중매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중매의 주체가 친인척, 직장동료에서 결혼정보회사의 커플매니저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례준비 주체도 부모나 부부 스스로 혼례준비를 했지만 앞으로는 웨딩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혼인준비를 하는 신세대 예비부부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웨딩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혜숙(2010)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1960년대까지는 혼인을 결정하기까지 배우자와 만난 경로는 부모님 소개로 만남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부모님소개와 더불어 친척이나 친구등 친지의 소개로 만남의 경로가 전환되었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당사자 간의 만남을 통한 배우자선택 경로가 변화되었다. 특히 대학교나 교회, 직장 등 사회활동 중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5-2> 의혼

형태		혼례형태			전체
		연애혼	중매혼	연애+중매혼	
기혼	빈도(%)	152(65.5)	43(18.6)	37(15.9)	232(100)
미혼	빈도(%)	125(73.1)	10(5.8)	36(21.1)	171(100)
전체	빈도(%)	277(68.7)	53(13.2)	73(18.1)	403(100)
		$\chi^2=14.287,$			
		$df=2,$			
		$p=.001***$			

주체		중매 주체							전체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전문 중매인	결혼 정보	기타	
기혼	빈도(%)	8(12.1)	19(28.8)	5(7.6)	17(25.8)	2(3.0)	1(1.5)	14(21.2)	66(100)
미혼	빈도(%)	8(20.5)	9(23.1)	1(2.5)	5(12.9)	2(5.1)	11(28.2)	3(7.7)	39(100)
전체	빈도(%)	16(15.2)	28(26.7)	6(5.7)	22(21.9)	4(3.8)	12(11.4)	17(16.2)	105(100)
		$\chi^2=23.417,$							
		$df=7,$							
		$p=.001***$							

주체		혼례 준비 주체				전체
		부부 스스로	부모님 도움	문중어른 및 친인척 도움	웨딩플래너 도움	
기혼	빈도(%)	111(47.8)	101(43.5)	20(8.6)	0(0.0)	232(100)
미혼	빈도(%)	88(51.5)	31(18.1)	13(7.6)	39(22.8)	171(100)
전체	빈도(%)	199(49.4)	132(32.8)	33(8.2)	39(9.7)	403(100)
		$\chi^2=75.898,$				
		$df=4,$				
		$p=.000***$				

*** : p<.001

2) 납채

납채(納采)는 양가사이에 의혼(議婚)이 이루어진 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례를 청하는 서신을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신랑집으로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 예(禮)를 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채 시 이루어지는 혼례서식과, 혼례일 결정방법과 혼례장소 결정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3>과 같다.

(1) 혼례서식

청혼서 교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주고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76명(19.8%),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51명(62.3%),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6명(18.9%)로 나타나 대체로 청혼서를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주고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85명(79.7%), ‘주고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6명(19.8%),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명(0.4%)으로 나타났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주고받지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6명(38.6%), ‘주고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0명(17.5%),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5명(43.9%)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청혼서 교환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에는 청혼서 교환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허혼서 교환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주고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57명(14.1%), ‘주고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66명(66.0%),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0명(19.9%)로 나타나 대체로 허혼서를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주고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01명(86.6%), ‘주고받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명(12.9%),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명(0.4%)으로 나타났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주고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5명(38.0%), ‘주고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7명(15.8%),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9명(46.2%)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허혼서 교환여부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 기혼자에 비해 허혼서 교환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사주단자 교환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주고받

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39명(34.5%), '주고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97명(48.9%),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7명(16.6%)로 나타나 대체로 사주단자를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주고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26명(54.3%), '주고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5명(45.3%),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명(0.4%)으로 나타났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주고 받지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1명(41.5%), '주고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4명(19.9%),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6명(38.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에는 사주단자 교환여부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에는 사주단자 교환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자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택일단자 교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주고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18명(29.3%), '주고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14명(53.1%),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1명(17.6%)으로 나타나 대체로 택일단자를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택일단자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41명(60.8%), '주고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0명(38.8%),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명(0.4%)으로 나타났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주고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3명(42.7%), '주고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8명(16.4%),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0명(40.9%)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택일단자 교환 여부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에는 택일단자 교환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2) 혼례일 결정주체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혼례일 결정의 주체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신랑측에 결정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1명(7.7%), 신부 측에서 결정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5명(26.1%), 양가합의하에 결정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42명(60.0%), 형편대로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5명(6.2%)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양가합의에 의해 결정한 사람이 117명(50.4%), 신부측에서 결정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84명(36.2%), 신랑측에서 결정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1명(9.1%)으로 나타났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양가합의하에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25명(73.1%), 신부 측에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1명(12.3%), 형편대로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5명(8.8%), 신랑 측에서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5.8%)에 불과 했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혼례일 결정 주체에 있어는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 기혼자에 비해 양가합의하에 혼례일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신부 측에서 결정했다는 응답이 미혼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는 혼례일 결정에 있어서도 주도권이 신부측에서 양가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추세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영숙 외(2001)의 연구에서도 혼례일 결정의 주체로 대학생들의 경우 양가합의(79.4%), 형편대로 결정한다(18.9%)로 나타났고, 어머니도 양가 합의로 결정했다(78.2%), 형편대로 결정했다(17.8%)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혼례장소 결정주체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혼례장소 결정의 주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신랑측에 결정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0명(9.9%), 신부 측에서 결정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9명(19.6%), 양가합의하에 결정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52명(62.5%), 형편대로 결정한다

고 응답한 사람이 32명(7.9%)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양가합의에 의해 결정한 사람이 137명(59.1%), 신부 측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명(22.8%), 신랑측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4명(10.3%), 형편대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명(7.8%)으로 나타났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양가합의하에 결정하겠다는 115명(67.3%), 신부 측에 결정하겠다는 26명(15.2%), 신랑 측에서 결정하겠다는 16명(9.4%), 형편대로 결정하겠다는 14명(8.2%)에 불과 했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혼례장소 결정 주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례장소 결정은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양가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례장소 결정 주체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납체에 대해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혼례서식(청혼서, 허혼서, 사주단자, 택일단자)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었다. 기혼자들은 청혼서, 허혼서, 택일단자를 대부분 주고받지 않았지만 미혼자들은 청혼서, 허혼서, 택일단자 자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특히 기혼자들은 사주단자와 택일단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혼례서식과 비교해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정·윤혜현(2007)의 혼례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혼례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김인옥(2008)의 연구에서는 혼례서식 중 사주단자는 계속 계승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5-3> 납채

혼례여부		여부	칭혼서			전체	
			주고 받았다	주고받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혼	빈도(%)		46(19.8)	185(79.7)	1(0.4)	232(100)	
미혼	빈도(%)		30(17.5)	66(38.6)	75(43.9)	171(100)	
전체	빈도(%)		76(18.9)	251(62.3)	76(18.9)	403(100)	
$\chi^2=125.481$, df=2, p=.000***							
혼례여부		여부	허혼서			전체	
			주고 받았다	주고받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혼	빈도(%)		30(12.9)	201(86.6)	1(0.4)	232(100)	
미혼	빈도(%)		27(15.8)	65(38.0%)	79(46.2)	171(100)	
전체	빈도(%)		57(14.1)	266(66.0)	80(19.9)	403(100)	
$\chi^2=139.709$, df=2, p=.000***							
혼례여부		여부	사주단자			전체	
			주고 받았다	주고받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혼	빈도(%)		105(45.3)	126(54.3)	1(0.4)	232(100)	
미혼	빈도(%)		34(19.9)	71(41.5)	66(38.6)	171(100)	
전체	빈도(%)		139(34.5)	197(48.9)	67(16.6)	403(100)	
$\chi^2=107.921$, df=2, p=.000***							
혼례여부		여부	택일단자			전체	
			주고 받았다	주고받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혼	빈도(%)		90(38.8)	141(60.8)	1(0.4)	232(100)	
미혼	빈도(%)		28(16.4)	73(42.7)	70(40.9)	171(100)	
전체	빈도(%)		118(29.3)	214(53.1)	71(17.6)	403(100)	
$\chi^2=114.633$, df=2, p=.000***							
혼례여부		여부	혼례일 결정주체				전체
			신랑 측	신부 측	양가합의	형편대로	
기혼	빈도(%)		21(9.1)	84(36.2)	117(50.4)	10(4.3)	232(100)
미혼	빈도(%)		10(5.8)	21(12.3)	125(73.1)	15(8.8)	171(100)
전체	빈도(%)		31(7.7)	105(26.1)	242(60.0)	25(6.2)	403(100)
$\chi^2=34.525$, df=3, p=.000***							
혼례여부		여부	혼례장소 결정주체				전체
			신랑 측	신부 측	양가합의	형편대로	
기혼	빈도(%)		24(10.3)	53(22.8)	137(59.1)	18(7.8)	232(100)
미혼	빈도(%)		16(9.4)	26(15.2)	115(67.3)	14(8.2)	171(100)
전체	빈도(%)		40(9.9)	79(19.6)	252(62.5)	32(7.9)	403(100)
$\chi^2=4.109$, df=3, p=.250							

* : p<.05, ** : p<.01, *** : p<.001

3) 납폐

납폐(納幣)는 허혼이 이루어진 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서(婚書)인 서신과 폐백인 채단을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그것을 받고 답신을 보내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물, 예단, 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예물

예물에 있어서 예물 교환 여부, 예물교환시기, 예물형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4>와 같다.

① 예물 교환 여부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예물 교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예물을 주고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30명(81.9%), 주고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73명(18.1%)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예물을 주고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04명(87.9%), 주고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8명(12.1%)으로 나타났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예물을 주고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26명(73.7%), 예물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5명(26.3%)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10개 종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예물을 주고받지 않은 경주최씨를 제외하고, 1940년에 혼인을 한 의성김씨, 1948년에 혼인을 한 풍산류씨, 1952년에 혼인한 광산김씨, 1955년에 혼인한 동래정씨, 1965년에 혼인을 한 안동장씨, 1966년에 혼인한 진성이씨, 1971년에 혼인한 안동권씨, 1975년에 혼인한 전주류씨, 1982년에 혼인한 영천이씨의 사례에서도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간소하게나마 예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예물교환이 혼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다.

미혼자의 경우 혼인을 하게 될 경우에 기혼자 보다 예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26.3%로 기혼자의 12.1%보다 높게 나타나 예물교환이 혼인을

하는 양 당사자에게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경제상황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예물 교환여부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예물교환 시기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예물교환시기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약혼식 때 예물을 교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3명(18.1%), 함 넣을 때 교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83명(45.4%), 폐백 시 교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4명(6.0%), 신행 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8명(6.9%), 기타 응답자가 95명(23.6)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함 넣을 때 예물을 교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14명(49.1%),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67명(28.9%), 약혼식 때 예물을 교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2명(13.8%)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함 넣을 때 예물을 교환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9명(40.4%), 약혼식 때 교환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1명(24.0%),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28명(16.4%), 신행 후에 교환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1명(12.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예물교환시기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에는 약혼식 때 예물을 교환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기혼자 13.8% 보다 많았다.

③ 예물형태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예물형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현금으로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7명(6.7%), 물품으로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53명(38.0%), 현금 및 물품으로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79명(44.4%),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44명(10.9%)으로 나타

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현금과 물품을 예물로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3명(48.7%), 물품으로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86명(37.1%),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8명(7.8%), 현금으로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5명(6.5%)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물품으로 예물을 주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7명(39.2%), 현금 및 물품으로 예물을 주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6명(38.6%), 예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6명(15.2%), 현금을 주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2명(7.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예물형태를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에는 예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기혼자 7.8%보다 많은 15.2%로 나타났다.

이상 예물에 대해 경북지역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혼례 시 대부분 예물을 주고 받지만 미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물을 주고받지 않고 혼례를 치르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예물교환시기는 함에다 예물을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물의 형태는 현금 및 물품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다.

황경애(1996)의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혼례행례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시택에 예물을 주는 시기로는 함속에(56.4%), 약혼식 때(19.7%), 폐백을 받을 때(8.5%), 기타(9.0%), 신행 후(6.4%)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5-4> 예물

혼례 여부		예물교환 여부		전체			
		주고받음	주고받지 않음				
기혼	빈도(%)	204(87.9)	28(12.1)	232(100)			
미혼	빈도(%)	126(73.7)	45(26.3)	171(100)			
전체	빈도(%)	330(81.9)	73(18.1)	403(100)			
$\chi^2=13.471, \quad df=1, \quad p=.000***$							
혼례 여부		예물교환 시기					전체
		약혼식	함넣을 때	폐백 시	신행 후	기타	
기혼	빈도(%)	32(13.8)	114(49.1)	12(5.2)	7(3.0)	67(28.9)	232(100)
미혼	빈도(%)	41(24.0)	69(40.4)	12(7.0)	21(12.3)	28(16.4)	171(100)
전체	빈도(%)	73(18.1)	183(45.4)	24(6.0)	28(6.9)	95(23.6)	403(100)
$\chi^2=26.561, \quad df=4, \quad p=.000***$							
혼례 여부		예물형태				전체	
		현금	물품	현금 및 물품	하지 않음		
기혼	빈도(%)	15(6.5)	86(37.1)	113(48.7)	18(7.8)	232(100)	
미혼	빈도(%)	12(7.0)	67(39.2)	66(38.6)	26(15.2)	171(100)	
전체	빈도(%)	27(6.7)	153(38.0)	179(44.4)	44(10.9)	403(100)	
$\chi^2=7.425, \quad df=3, \quad p=.060$							

*** : $p < .001$

④ 예물에 대한 인식

예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기혼자와 미혼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예물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기혼자(3.06)와 미혼자(3.20) 모두 혼인을 할 때 예물에 대해서는 중요한 요소로 여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기혼자와 미혼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예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예물에 대한 인식차이

변수	Mean	SD	F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기혼(232)	3.06	.944	3.713	1.324	401	.186
미혼(171)	3.20	1.083				

(2) 예단

예단에 대한 교환여부, 예단의 필요성, 예단이 불필요한 이유, 예단의 범위, 조상예단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① 예단교환 여부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예단 교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예단을 주고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51명(62.3%), 주고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52명(37.7%)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예단을 주고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71.1%), 주고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7명(28.9%)으로 나타났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예물을 주고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6명(50.3%), 예물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5명(49.7%)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에는 혼인을 하게 될 경우 기혼자보다 예단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응답이 49.7%로 기혼자의 28.9%보다 높게 나타나 예단에 대해 의미를 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경애(1996)의 연구에서도 시댁에 드리는 예단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66.5%), 필요하지 않다(33.5%)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안혜숙(2010)의 연구에서는 1980년도에 예단을 주고받은 사람이 74.4%였지만 2000년대에는 43.8%로 예단을 보냈다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고 대신 예단을 대신하여 현금으로 보냈다는 사람이 47.6%를 차지하고 있어 예단 대신

간편한 현금으로 예단을 대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예단교환 여부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예단의 필요성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예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시댁과의 첫인사라고 응답한 사람이 103명(25.6%), 부족해도 잘 봐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9명(12.2%), 정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22명(30.3%), 체면상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6명(11.4%), 기타가 83명(20.6%)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시댁과의 첫인사라고 응답한 사람이 72명(31.0%), 정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9명(29.7%),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33명(14.2%), 체면상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2명(13.8%), 부족해도 잘 봐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6명(11.2%)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정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명(31.0%),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50명(29.2%), 시댁과의 첫인사라고 응답한 사람이 31명(18.1%), 부족해도 잘 봐주길 바라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명(13.5%), 체면상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4명(8.2%)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10개 증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에서는 1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단의 품목은 이불과 시댁식구들의 옷이 대부분이었다.

황경애(1996)의 연구에서도 시댁에 예단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 시댁 가족과의 첫인사(45.7%), 정성(44.1%), 부족해도 잘 봐주길 바라며(5.9%), 체면상(2.1%), 기타(2.1%)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정립(2001)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도 서울지역은 경상도 지역에 비해 간소한 예단문화를 보이고 있으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색이 유입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예단의 품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반지’가 등장하는 등 품목의 고급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사회문제로까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예단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예단을 체면상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 또한 시댁과의 첫인사라고 응답한 사람이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많았다.

③ 예단이 불필요한 이유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예단이 불필요한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명(5.7%), 첫 생신 때 인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3명(3.2%), 허세 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84명(45.7%), 뇌물을 의미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7명(6.7%),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156명(38.7%)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예단을 허세부린다고 응답한 사람이 122명(52.6%),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73명(31.5%), 뇌물을 의미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7명(7.3%), 전통에 어긋난다고 응답한 사람이 15명(6.5%), 첫 생신에 인사하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5명(2.2%)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83명(48.5%), 예단을 허세부린다고 응답한 사람이 62명(36.3%), 뇌물을 의미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5.8%), 전통에 어긋난다고 응답한 사람이 8명(4.7%), 첫 생신에 인사하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8명(4.7%)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예단이 불필요한 이유에는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허세부림이라고 하여 예단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22명(52.6%)인데 반해 미혼자들은 기

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83명(48.5%)으로 가장 많았다. 기혼자의 경우 황경애(1996)의 연구에서는 ‘전통에 어긋난다’라고 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④ 예단의 범위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예단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배우자 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113명(28.0%),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라고 응답한 사람이 131명(32.5%),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67명(16.6%),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8명(14.4%),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34명(8.4%)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라고 응답한 사람이 75명(32.3%),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9명(21.1%), 배우자 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48명(20.7%),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39명(16.8%),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21명(9.1%)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65명(38.0%),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라고 응답한 사람이 56명(32.7%),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28명(16.4%),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13명(7.6%), 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명(5.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예단의 범위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예단의 범위를 배우자 부모에게만 하여 간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조상에 대한 예단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조상에 대한 예단 교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조상예단을 주고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46명(11.4%), 주고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357명(88.6%)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조상예단을 주고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5명(15.1%), 주고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97명(84.9%)으로 나타났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조상예단을 주고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1명(6.4%), 조상예단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60명(93.6%)으로 나타났다.

홍나영 외(2002)의 연구에서도 조상예단이라고 하여 당목으로 만든 치마·저고리, 버선을 준비해 묘지 앞에서 태우는 등 돌아가신 시댁 조상에게도 예단을 준비하는 독특한 풍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상예단 교환 여부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에는 혼인을 하게 될 경우 기혼자 보다 조상예단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93.6%로 기혼자의 84.9%보다 높게 나타나 조상예단까지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예단을 점차 줄이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 예단교환에 대해 경북지역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예단교환 의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혼자들은 혼례 시 예단교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9.7%에 이르렀다. 예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정성, 시댁과의 첫인사로 여기고 있어 시댁에 예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한편 예단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허세부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최근 간소하게 혼례를 치루고 싶어 하는 미혼자들에게는 예단이 불필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단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예단에 대해서는 기혼자, 미혼자 모두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홍나영 외(2002)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5-6> 예단

혼례 여부		여부		예단교환			전체		
				주고받음		주고받지 않음			
기혼	빈도(%)			165(71.1)		67(28.9)	232(100)		
미혼	빈도(%)			86(50.3)		85(49.7)	171(100)		
전체	빈도(%)			251(62.3)		152(37.7)	403(100)		
				$\chi^2=18.179,$					
				$df=1,$					
				$p=.000***$					
혼례 여부		이유		예단 필요성					전체
				시댁과의 첫인사	부족해도 잘 봐주길	정성	체면상	기타	
기혼	빈도(%)			72(31.0)	26(11.2)	69(29.7)	32(13.8)	33(14.2)	232(100)
미혼	빈도(%)			31(18.1)	23(13.5)	53(31.0)	14(8.2)	50(29.2)	171(100)
전체	빈도(%)			103(25.6)	49(12.2)	122(30.3)	46(11.4)	83(20.6)	403(100)
				$\chi^2=20.361,$					
				$df=4,$					
				$p=.000***$					
혼례 여부		이유		예단 불필요성					전체
				전통에 어긋나서	첫 생신 인사	허세 부림	뇌물 의미	기타	
기혼	빈도(%)			15(6.5)	5(2.2)	122(52.6)	17(7.3)	73(31.5)	232(100)
미혼	빈도(%)			8(4.7)	8(4.7)	62(36.3)	10(5.8)	83(48.5)	171(100)
전체	빈도(%)			23(5.7)	13(3.2)	184(45.7)	27(6.7)	156(38.7)	403(100)
				$\chi^2=15.977,$					
				$df=4,$					
				$p=.003**$					
혼례 여부		기준		예단 범위					전체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부모, 배우자형제 ·자매, 조부모	배우자부모, 배우자형제 ·자매, 조부모, 친척	기타	
기혼	빈도(%)			48(20.7)	75(32.3)	39(16.8)	49(21.1)	21(9.1)	232(100)
미혼	빈도(%)			65(38.0)	56(32.7)	28(16.4)	9(5.3)	13(7.6)	171(100)
전체	빈도(%)			113(28.0)	131(32.5)	67(16.6)	58(14.4)	34(8.4)	403(100)
				$\chi^2=27.999,$					
				$df=4,$					
				$p=.000***$					
혼례 여부		유무		조상예단			전체		
				한다		하지 않는다			
기혼	빈도(%)			35(15.1)		197(84.9)	232(100)		
미혼	빈도(%)			11(6.4)		160(93.6)	171(100)		
전체	빈도(%)			46(11.4)		357(88.6)	403(100)		
				$\chi^2=7.290,$					
				$df=1,$					
				$p=.007**$					

** : p<.01, *** : p<.001

⑥ 예단에 대한 인식

예단에 대한 기혼자와 미혼자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7>과 같다. 예단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기혼자(2.65)와 미혼자(2.78) 모두 혼인을 할

때 예단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예단에 대한 인식차이

혼례 여부	결과치	Mean	SD	F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기혼(232)		2.65	1.008	.742	1.258	401	.209
미혼(171)		2.78	1.098				

(3) 함

함받기 의식의 여부, 함속의 물품, 함을 받을 때 입는 의복, 함보내는 시기, 함전달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5-8>과 같다.

① 함 받기 의식 여부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함 받기 의식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함 받기 의식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5명(50.9%), 함 받기 의식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98명(49.1%)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함 받기 의식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27명(54.7%), 함 받기 의식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5명(45.3%)으로 나타났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함 받기 의식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8명(45.6%), 함 받기 의식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93명(54.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함 받기 의식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에는 혼인을 하게 될 경우 기혼자보다 함 받기 의식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4.4%로 기혼자의 45.3%보다 높게 나타나 함 받기 의식에 대한 의미를 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10개 종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경주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대상자들은 모두 함을 주고 받았으며, 홍나영 외(2002)의 연구에서

도 서울지역과 경상도 지역 모두 1960년대까지는 함 의식이 흔히 행해졌으나 1970년대부터는 간단하게 하거나 생략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는 시루떡 위에 함을 올리거나 쪽박을 깨는 등 액막이 행위는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청·홍 옷감으로 자손을 점치는 의식은 거의 생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도 지역의 경우에는 1990년대까지도 촛불을 켜고 조상께 고하는 의식이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울 지역에 비해 전통의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정림(2001)의 연구에서도 과거에 함은 혼례 전에 신부를 위해 수공예품으로 만들어진 품목들로 따로 만들어졌으며 1950년대까지는 보편적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차츰 ‘여행용 가방’ 형식의 함이 등장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것이 혼례절차에도 반영되어 전통적인 관습 및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실질적인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혜숙(2010)의 연구에서는 함 여부에 대해 1960년대 80.6%, 1970년대 80.7%, 1980년대 83.5%, 1990년대 70.5%, 2000년대 67.6%의 조사대상자가 함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전통혼례에 있어 중요한 함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의식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함 속 물품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함 물품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혼서지, 청홍양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4명(8.4%), 혼서지, 청홍양단, 곡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4명(6.0%), 혼서지, 청홍양단, 폐물, 계절옷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5명(23.6%), 폐물, 계절옷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명(5.7%),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18명(4.5%),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209명(51.9%)으로 나타났다.

황경애(1996)의 연구에서는 함속에 넣는 것으로 혼서지, 청홍양단, 황낭(목화솜, 콩이 든 주머니)을 넣은 사람(33.5%), 혼서지, 청홍양단, 폐물을 넣은 사람(33.5%), 혼서지, 청홍양단, 폐물, 사계절 옷감(10.6%), 혼서지, 사계절 옷감, 청홍양단을 넣은 사람(7.4%), 폐물, 사계절 옷감을 넣은 사람(3.2%)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했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경우를 보면 기혼자의 경우에는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04명(44.8%), 혼서지, 청홍양단, 폐물, 계절옷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6명(28.4%), 혼서지, 청홍양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7명(7.3%), 혼서지, 청홍양단, 곡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6명(6.9%), 폐물, 계절옷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5명(6.5%),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14명(6.0%)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05명(61.4%), 혼서지, 청홍양단, 폐물, 계절옷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9명(17.0%), 혼서지, 청홍양단라고 응답한 사람이 17명(9.9%), 혼서지, 청홍양단, 곡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4.7%), 폐물, 계절옷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4.7%),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4명(2.3%)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함 속 물품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함 물품의 내용으로 혼서지, 청홍양단, 폐물, 계절옷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함 물품의 내용에는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함 받을 때 입는 의복

기혼자와 미혼자가 함을 받을 때 신부는 어떤 옷을 착용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한복을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1명(32.5%), 양장을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54명(13.4%), 평상복을 착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80명(19.9%),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138명(34.2%)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경우를 보면 기혼자의 경우에는 신부는 함을 받을 때 기타 다른 의복을 입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90명(38.8%), 한복을 입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71명(30.6%), 평상복을 입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43명(18.5%), 양장을 입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28명(12.1%)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함을 받을 때 신부는 한복을 입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0명(35.1%),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48명(28.1%), 평상복을 입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7명(21.6%), 양장을 입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26명(15.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례 여부에 따른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함 받을 때 입는 의복으로는 한복을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례 여부에 따른 함 의복 형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함 보내는 시기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함을 보내는 시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혼인 당일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2.5%), 1주일 전에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이 157명(39.0%), 2주일 전에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이 42명(10.4%), 3주일 전에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명(4.5%), 한 달 전에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명(5.0%),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156명(38.7%)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104명(44.8%), 1주일 전에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이 79명(34.1%), 2주일 전에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명(8.6%), 3주일 전에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이 14명(6.0%), 한 달 전에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이 8명(3.4%), 혼인 당일에 보냈다고 응답한 사람이 7명(3.0%)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1주일 전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8명(45.6%),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52명(30.4%), 2주일 전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2명(12.9%), 한 달 전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2명(7.0%), 3주일 전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명(2.3%), 혼인 당일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명(1.8%)으로 나타났다.

황경애(1996)의 연구에서 함을 보내는 시기를 보면 혼인 전날(39.9%), 혼인 전 양가 편리한 날(26.1%), 받지 않는다(12.2%), 사주와 함께(9.6%), 혼인 전 일요일에(8.0%), 기타(4.3%)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함 보내는 시기에는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미혼자의 경우는 대체로 혼례를 올리기 1주일 전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함 전달자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함을 전달하는 사람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신랑 친구가 전달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47명(36.5%), 신랑의 형제나 일가친척이 전달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8명(9.4%), 신랑이 전달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8명(19.4%),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140명(34.7%)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92명(39.7%), 신랑친구가 전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8명(29.3%), 신랑이 직접전달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6명(24.1%), 신랑의 형제나 일가친척이 전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6명(6.9%)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신랑친구가 전달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9명(46.2%),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48명(28.1%), 신랑이 직접전달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2명(12.9%), 신랑의 형제나 일가친척이 전달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2명(12.9%)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함을 전달하는 사람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혜숙(2010)의 연구와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주로 신랑친구가 함진아비 역할을 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랑이 직접 함진아비를 역할을 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

이상 함받기에 대한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황경애(1996), 강정림(2001), 안혜숙(2010)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함받기 의식을 생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들이 함 받기 의식을 생략하는 것으로 나타나 함받기 의식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함에 들어가는 물품으로는 혼서지, 청홍양단, 폐물, 계절옷감을 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혼자들은 함에 들어가는 물품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함 의복으로는 한복과 기타 의복을 착용하고 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을 보내는 시기는 주로 혼인 1주일 전에 보내며 함 전달자는 신랑친구가 가장 많았다.

<표 5-8> 함 받기

여부		함 받기 여부		전체
		주고 받는다	주고받지 않는다	
혼례	빈도(%)	127(54.7)	105(45.3)	232(100)
미혼	빈도(%)	78(45.6)	93(54.4)	171(100)
전체	빈도(%)	205(50.9)	198(49.1)	403(100)

$\chi^2=3.281$, $df=1$, $p=.070$

종류		함 속 물품					전체	
		혼서지 청홍양단	혼서지, 청홍양단, 곡식	혼서지, 청홍양단, 폐물, 계절옷감	폐물, 계절옷감	기타		잘 모름
혼례	빈도(%)	17(7.3)	16(6.9)	66(28.4)	15(6.5)	14(6.0)	104(44.8)	232(100)
미혼	빈도(%)	17(9.9)	8(4.7)	29(17.0)	8(4.7)	4(2.3)	105(61.4)	171(100)
전체	빈도(%)	34(8.4)	24(6.0)	95(23.6)	23(5.7)	18(4.5)	209(51.9)	403(100)

$\chi^2=15.899$, $df=5$, $p=.007^{**}$

종류		함 받을 때 입는 의복				전체
		한복	양장	평상복	기타	
혼례	빈도(%)	71(30.6)	28(12.1)	43(18.5)	90(38.8)	232(100)
미혼	빈도(%)	60(35.1)	26(15.2)	37(21.6)	48(28.1)	171(100)
전체	빈도(%)	131(32.5)	54(13.4)	80(19.9)	138(34.2)	403(100)

$\chi^2=5.114$, $df=3$, $p=.164$

시기		함 보내기					전체	
		혼인당일	1주일 전	2주일 전	3주일 전	한 달 전		기타
혼례	빈도(%)	7(3.0)	79(34.1)	20(8.6)	14(6.0)	8(3.4)	104(44.8)	232(100)
미혼	빈도(%)	3(1.8)	78(45.6)	22(12.9)	4(2.3)	12(7.0)	52(30.4)	171(100)
전체	빈도(%)	10(2.5)	157(39.0)	42(10.4)	18(4.5)	20(5.0)	156(38.7)	403(100)

$\chi^2=16.536$, $df=5$, $p=.005^{**}$

시기		함 전달자				전체
		신랑친구	신랑의 형제나 일가친척	신랑	기타	
혼례	빈도(%)	68(29.3)	16(6.9)	56(24.1)	92(39.7)	232(100)
미혼	빈도(%)	79(46.2)	22(12.9)	22(12.9)	48(28.1)	171(100)
전체	빈도(%)	147(36.5)	38(9.4)	78(19.4)	140(34.7)	403(100)

$\chi^2=23.464$, $df=4$, $p=.000^{***}$

* : $p<.05$, ** : $p<.01$, *** : $p<.001$

⑥ 함 보내기에 대한 인식

함 보내기에 대한 기혼자와 미혼자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9>와 같다.

함 보내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기혼자(2.57)와 미혼자(2.70)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대체로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좀 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혼인을 할 때 함 보내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애(2010)의 연구에서는 함보내기와 함들이기에 대해 남자(3.12), 여자(3.66)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함 보내기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9> 함 보내기에 대한 인식차이

결과치 혼례 여부	Mean	SD	F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기혼(232)	2.57	.913	.322	1.282	401	.200
미혼(171)	2.70	.995				

4) 대례

대례(大禮)는 혼례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사람이 평생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큰 의례절차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례식, 혼례복, 혼례음식, 혼례절차 순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혼례식

혼례식이란 실제 혼례를 치르는 행위이므로 혼례식 때 필요한 혼례장소 및 위치, 혼례형태, 혼례시간, 혼례식 소요시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는 <표 5-10>과 같다.

① 혼례장소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혼례장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예식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57명(63.8%), 호텔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4명(15.9%), 컨벤션 센터라고 응답한 사람이 19명(4.7%), 교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20명(5.0%), 성당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0명(2.5%), 사찰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명(0.7%),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18명(7.8%)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예식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74명(75.0%), 컨벤션 센터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명(12.9%), 호텔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0명(8.6%), 교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3.4%), 성당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3.4%),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6명(2.6%), 사찰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명(0.4%)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예식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3명(48.5%), 호텔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명(25.7%), 컨벤션 센터라고 응답한 사람이 16명(9.4%), 교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12명(7.0%),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12명(7.0%), 성당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명(1.2%), 사찰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명(1.2%)으로 나타났다.

김인옥·류미현(2007)의 연구에서도 예식장 형태로 일반예식장 56.6%, 호텔 20.6%, 종교기관 및 기타가 22.8%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안혜숙(2010)의 연구에서도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 혼례장소로 예식장이 가장 많았지만 특이한 점은 1980년대부터 호텔이 예식장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에는 5.5%, 2000년대에는 무려 14.3%가 호텔에 혼례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에는 주로 예식장에서 미혼자의 경우에는 예식장과 호텔에서 혼례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혼례장소로는 예식장보다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호텔에서 더 많은 예식이 거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혼례식 장소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혼례식장 위치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혼례식장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신랑 집 근처라고 응답한 사람이 96명(23.8%), 신부 집 근처라고 응답한 사람이 184명(45.7%),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123명(30.5%)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신부 집 근처라고 응답한 사람이 107명(46.1%), 신랑 집 근처라고 응답한 사람이 65명(28.0%),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60명(25.9%)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신부 집 근처라고 응답한 사람이 77명(45.0%),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63명(36.8%) 신랑 집 근처라고 응답한 사람이 31명(18.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혼례식장의 위치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에는 기혼자의 비해 신랑 집 근처에서 혼례식을 하겠다는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혼례형태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혼례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전통혼례라고 응답한 사람이 9명(2.2%), 호텔혼례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명(13.2%), 예식장 혼례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48명(61.5%), 종교기관 혼례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7명(14.1%), 이벤트 예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7명(6.7%),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9명(2.2%)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예식장 혼례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73명(74.6%), 종교기

관 혼례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4명(14.7%), 호텔혼례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2명(5.2%), 전통혼례라고 응답한 사람이 7명(3.0%), 이벤트 예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명(1.3%), 기타가 3명(1.3%)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예식장 혼례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5명(43.9%), 호텔혼례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1명(24.0%), 이벤트 예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4명(14.0%), 종교기관 혼례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명(13.5%),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6명(3.5%), 전통혼례라고 응답한 사람이 2명(1.2%)으로 나타났다.

혼례형태에 있어서 기혼자의 경우는 주로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올렸으나 미혼자의 경우는 예식장뿐만 아니라 호텔, 이벤트 예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신세대들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색다른 혼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조사에서 조사대상인 10개의 증가 중 6개의 증가에서 전통혼례식을 올렸으며 혼례연도가 대부분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임을 고려했을 때 1960년대 이후 신식혼례가 급속히 보편화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김인옥(2006)은 결혼예식산업이 세분화되고 시장형성이 활발함에 따라 혼인문화도 복잡, 다양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어 혼례문화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혼례 전문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안혜숙(2010)의 연구에서도 1960년대 전통혼례(91.7%)가 대부분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1%에 불과했고 반면 신식혼례는 1960년대 6.9%에서 2000년대에는 80.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주도의 혼례 현대화 정책인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것으로 전통혼례식이 신식으로 대체되고, 집에서 행하였던 혼례식이 예식장이라는 혼례 전문 장소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혼례형태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혼례시간

기혼자와 미혼자의 혼례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오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73명(42.9%), 오후라고 응답한 사람이 203명(50.4%), 저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1명(5.2%), 기타로 응답한 사람이 6명(1.5%)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오후에 혼인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4명(49.1%), 오전에 혼인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2명(48.3%), 저녁에 혼인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명(2.2%), 기타로 응답한 사람이 1명(0.4%)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오후에 혼인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9명(52.0%), 오전에 혼인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1명(35.7%), 저녁에 혼인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6명(9.4%), 기타로 응답한 사람이 5명(2.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오전보다는 오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에는 기혼자의 비해 저녁시간대에도 혼례식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혼례시간 선호에는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혼례 소요시간

기혼자와 미혼자의 혼례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15명(53.3%), 1~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55명(38.5%), 2~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8명(6.9%),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1.2%)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29명(55.6%), 1~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8명(37.9%), 2~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5명(6.5%)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6명(50.3%), 1~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7명(39.2%), 2~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

이 13명(7.6%),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2.9%)으로 나타났다.

이상 대례에 관련해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혼자들은 대부분 예식장에서 혼례를 올렸지만 미혼자들은 예식장에서 혼례를 올리는 것은 점차 줄고 호텔에서 혼례를 치르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안혜숙(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장하경(1996)의 연구에서도 1940년 이전에 예식장에서 혼례를 하지 않았지만 1960년대 이전까지는 8.8%, 1980년대 이전까지는 50.6%, 1990년대에는 77.2%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향후 혼례장소는 예식장보다는 호텔이나 기타(야외혼례, 이벤트 혼례)의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혼례식장의 위치는 기혼자, 미혼자 모두 신부집 근처에 잡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례형태는 기혼자들은 예식장에서 신식혼례를 올렸지만 미혼자들은 기혼자에 비해 호텔, 이벤트 예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례시간대는 오전, 오후 반반 정도로 나타나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례소요시간은 대부분 2시간 이내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례에서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큰 차이는 혼례형태로 예식장 이외의 장소인 호텔, 이벤트 예식을 하려고 경향이 많아 미혼자들의 색다른 혼례를 추구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들 혼례형태에 우리의 전통혼례의 의식과 절차를 좀 더 가미한 새로운 혼례문화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5-10> 혼례식

혼례 여부		장소	혼례장소						전체	
			예식장	호텔	컨벤션	교회	성당	사찰		기타
기혼	빈도(%)		174(75.0)	20(8.6)	30(12.9)	8(3.4)	8(3.4)	1(0.4)	6(2.6)	232(100)
미혼	빈도(%)		83(48.5)	44(25.7)	16(9.4)	12(7.0)	2(1.2)	2(1.2)	12(7.0)	171(100)
전체	빈도(%)		257(63.8)	64(15.9)	19(4.7)	20(5.0)	10(2.5)	3(0.7)	18(7.8)	403(100)
			$\chi^2=47.914,$ $df=6,$ $p=.000***$							
혼례 여부		위치	혼례식장 위치			기타	전체			
			신랑 집 근처	신부 집 근처						
기혼	빈도(%)		65(28.0)	107(46.1)	60(25.9)	232(100)				
미혼	빈도(%)		31(18.2)	77(45.0)	63(36.8)	171(100)				
전체	빈도(%)		96(23.8)	184(45.7)	123(30.5)	403(100)				
			$\chi^2=7.955,$ $df=2,$ $p=.019*$							
혼례 여부		형태	혼례형태				전체			
			전통 혼례식	호텔 혼례식	예식장 혼례식	종교기관 혼례식		이벤트 예식	기타	
기혼	빈도(%)		7(3.0)	12(5.2)	173(74.6)	34(14.7)	3(1.3)	3(1.3)	232(100)	
미혼	빈도(%)		2(1.2)	41(24.0)	75(43.9)	23(13.5)	24(14.0)	6(3.5)	171(100)	
전체	빈도(%)		9(2.2)	53(13.2)	248(61.5)	57(14.1)	27(6.7)	9(2.2)	403(100)	
			$\chi^2=69.179,$ $df=5,$ $p=.000***$							
혼례 여부		시간	혼례시간				전체			
			오전	오후	저녁	기타				
기혼	빈도(%)		112(48.3)	114(49.1)	5(2.2)	1(0.4)	232(100)			
미혼	빈도(%)		61(35.7)	89(52.0)	16(9.4)	5(2.9)	171(100)			
전체	빈도(%)		173(42.9)	203(50.4)	21(5.2)	6(1.5)	403(100)			
			$\chi^2=17.715$ $df=3,$ $p=.001***$							
혼례 여부		시간	혼례 소요시간				전체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기혼	빈도(%)		129(55.6)	88(37.9)	15(6.5)	0(0.0)	232(100)			
미혼	빈도(%)		86(50.3)	67(39.2)	13(7.6)	5(2.9)	171(100)			
전체	빈도(%)		215(53.3)	155(38.5)	28(6.9)	5(1.2)	403(100)			
			$\chi^2=7.527,$ $df=3,$ $p=.057$							

* : p<.05, *** : p<.001

(2) 혼례복

기혼자와 미혼자간의 혼례복 형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5-1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전통복장(한복)을 입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8명(4.5%), 현대복장(웨딩드레스)를 입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85명(95.5%)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경우를 보면 기혼자의 경우에는 현대복장(웨딩드레스)를 입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22명(95.7%), 전통복장(한복)을 입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4.3%)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현대복장(웨딩드레스)를 입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63명(95.3%), 전통복장(한복)을 입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명(4.7%)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혼례복으로 현대복장(웨딩드레스)를 입겠다는 사람이 95.5% 이상으로 나타나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에 혼례복 형태 선호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혜숙(2010)의 연구에서도 1960년대에는 마을에 보관하고 있는 전통복장을 입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거의 그 전통은 사라지고 점차 예식장내 드레스 룸에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전문드레스 룸에서 대여하는 경우가 많아 일생에 한번 입는 혼례복에 대한 신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표 5-11> 혼례복 형태

혼례 여부 \ 형태		전통복장(한복)	현대복장(웨딩드레스)	전체
기혼	빈도(%)	10(4.3)	222(95.7)	232(100)
미혼	빈도(%)	8(4.7)	163(95.3)	171(100)
전체	빈도(%)	18(4.5)	385(95.5)	403(100)
		$\chi^2=.031,$	$df=1,$	$p=.860$

(3) 혼례음식

혼례음식이란 혼례와 관련된 음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함을 받을 때 하는 떡인 봉채떡, 현구고례 시 시어른께 올리는 폐백음식, 새색시가 시어른께 내러받는 큰상, 그리고 현대혼례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이바지음식, 신행음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이바지음식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이바지 음식의 교환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2>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주고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205명(50.9%), 음식을 교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98명(49.1%)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경우를 보면 기혼자의 경우에는 주고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42명(61.2%), 음식을 교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90명(38.8%)으로 나타났다. 허영선 외(2008)의 연구에서도 이바지음식을 주고받은 사람이 76.9%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음식을 교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08명(63.2%), 주고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63명(36.8%)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 주고받지 않겠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다. 그런데 기혼자의 경우만 보면 주고받았다는 사람이 61.2%이고, 미혼자의 경우를 보면 주고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63.2%로 나타나 향후에는 이바지 음식이 양가에 교환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이바지 음식의 교환여부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혼례음식 유형

혼례의식에 따른 전통의례음식은 제례음식이나 회갑연 음식과는 달리 향응의 음식이라기보다는 기복의 주술적인 면을 갖고 있으며 의례상에 놓인 음식의 생김새(용떡)나 빛깔(붉은 팔고물), 음식의 본체(밥, 대추, 국수)로 다산, 풍요, 장수, 생남, 제액 등의 기원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허영선 외(2008)의 연구에서 전통혼례음식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으로 1위가 큰상(31.6%), 2위는 이바지음식(29.4%), 3위는 폐백음식(27.8%), 4위는 봉채떡(9.2%)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혼례음식 유형별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2>와 같다. 혼례음식 유형별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봉채떡의 경우를 보면 기혼자의 경우는 알고 있다가 21.6%, 미혼자의 경우에는 9.4%로 조사되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봉채떡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봉채떡에 대한 인지도에는 유의한 차이($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영선(2007)의 경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잘 알고 있다가 9.1%, 관심없다가 33.1%로 나타나 경북지역 주민들에 비해 전통혼례 음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폐백음식의 경우를 보면 기혼자의 경우는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9.0%, 미혼자의 경우에는 45.0%로 조사되어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들이 폐백음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폐백음식에 대한 인지도에는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상의 경우를 보면 기혼자의 경우는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47.0%, 미혼자의 경우에는 70.2%로 조사되어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들이 큰상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큰상에 대한 인지도에는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바지음식의 경우를 보면 기혼자의 경우는 알고 있다가 전체 조사대상자

의 56.5%, 미혼자의 경우에는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57.9%로 조사되어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들이 이바지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이바지음식에 대한 인지도에는 유의한 차이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행음식의 경우를 보면 기혼자의 경우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9.2%였지만, 미혼자의 경우에는 76.6%가 신행음식을 잘 알지 못한다고 조사되어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들이 신행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신행음식에 대한 인지도에는 유의한 차이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 본 혼례음식에 대한 혼례 유형별 인지도에 있어 경북지역의 기혼자와 미혼자 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바지음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당수의 기혼자들은 이바지음식이 혼례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미혼자들은 반대로 이바지음식을 혼례절차에서 생략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

혼례음식 중 기혼자들은 폐백음식, 이바지음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봉채떡, 큰상은 잘 모르고 있으며, 미혼자들은 봉채떡, 폐백음식, 큰상, 이바지음식, 신행음식 등 모든 혼례음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우리의 전통혼례에 있어 의미가 있는 혼례음식에 대한 종류, 의미에 대해 미혼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채떡은 부부화합과 이별을 막아주며, 다산과 풍요, 액운을 막아준다는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요즘 혼인하는 부부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표 5-12> 이바지음식 교환여부와 혼례음식 유형별 인지도

교환여부		이바지음식			전체	
		혼례여부		주고받음		주고받지 않음
기혼	빈도(%)			142(61.2)	90(38.8)	232(100)
미혼	빈도(%)			63(36.8)	108(63.2)	171(100)
전체	빈도(%)			205(50.9)	198(49.1)	403(100)
$\chi^2=23.383, \quad df=1, \quad p=.000***$						
유형	유형별 인지도					전체
	혼례여부		알고 있다	모른다	관심 없다	
봉채떡	기혼	빈도(%)	50(21.6)	140(60.3)	42(18.1)	232(100)
	미혼	빈도(%)	16(9.4)	122(71.3)	33(19.3)	171(100)
	전체	빈도(%)	66(16.4)	262(65.0)	75(18.6)	403(100)
$\chi^2=10.847, \quad df=2, \quad p=.004**$						
폐백음식	기혼	빈도(%)	156(67.2)	44(19.0)	32(13.8)	232(100)
	미혼	빈도(%)	63(36.8)	77(45.0)	31(18.1)	171(100)
	전체	빈도(%)	219(54.3)	121(30.0)	63(15.6)	403(100)
$\chi^2=40.197, \quad df=2, \quad p=.000***$						
큰상	기혼	빈도(%)	87(37.5)	109(47.0)	36(15.5)	232(100)
	미혼	빈도(%)	20(11.7)	120(70.2)	31(18.1)	171(100)
	전체	빈도(%)	107(26.6)	229(56.8)	67(16.6)	403(100)
$\chi^2=34.410, \quad df=2, \quad p=.000***$						
이바지음식	기혼	빈도(%)	131(56.5)	63(27.2)	38(16.4)	232(100)
	미혼	빈도(%)	42(24.6)	99(57.9)	30(17.5)	171(100)
	전체	빈도(%)	173(42.9)	162(40.2)	68(16.9)	403(100)
$\chi^2=46.561, \quad df=2, \quad p=.000***$						
신행음식	기혼	빈도(%)	91(39.2)	92(39.7)	49(21.1)	232(100)
	미혼	빈도(%)	9(5.3)	131(76.6)	31(18.1)	171(100)
	전체	빈도(%)	100(24.8)	223(55.3)	80(19.9)	403(100)
$\chi^2=70.492, \quad df=2, \quad p=.000***$						

** : p<.01, *** : p<.001

③ 혼례음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혼례음식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표 5-13>과 같다. 폐백음식(2.717), 이바지음식(2.479), 신행음식(2.387), 큰상(2.377), 봉채떡(2.273) 순으로 나타났다.

혼례음식들이 혼례절차에서 혼인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혼례음식 중에서 기혼자와 미혼자가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먼저 봉채떡을 보면 기혼자(2.15)와 미혼자(2.44) 간에는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백음식은 혼례절차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72)와 미혼자(2.71)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상이 혼례절차에 있어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26)와 미혼자(2.54)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바지음식이 혼례절차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41)와 미혼자(2.57)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행음식이 혼례절차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37)와 미혼자(2.42)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례음식 중 봉채떡과 큰상만이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혼례에 있어 혼례음식의 준비하고 음식을 보내는 풍속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의 전통혼례에서 혼례음식이 가지고 있는 기복과 주술적인 의미를 되살리면 메뉴의 간소화, 가격의 저렴화, 폐백음식 선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윤숙자·이미영, 2002).

<표 5-13> 혼례음식 유형별 필요성

결과치 유형	N	Mean	SD	VAR
봉채떡	403	2.273	0.957	0.915
폐백음식	403	2.717	1.055	1.114
큰상	403	2.377	1.035	1.071
이바지음식	403	2.479	1.030	1.061
신행음식	403	2.387	1.017	1.034

결과치 유형	혼례여부	Mean	SD	F	t-검정	자유도	유의확률
봉채떡	기혼(232)	2.15	.966	.727	3.014	401	.003**
	미혼(171)	2.44	.921				
폐백음식	기혼(232)	2.72	1.066	.317	-.155	401	.877
	미혼(171)	2.71	1.044				
큰상	기혼(232)	2.26	1.016	.007	2.699	401	.007**
	미혼(171)	2.54	1.042				
이바지음식	기혼(232)	2.41	1.015	.057	1.579	401	.115
	미혼(171)	2.57	1.046				
신행음식	기혼(232)	2.37	1.048	1.333	.476	401	.634
	미혼(171)	2.42	.975				

** : p<.01

(4) 혼례절차

혼례절차란 남녀의 만남에서부터 혼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식혼례의 절차와 전통혼례의 절차를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과정의 중요성과 필요성, 전통혼례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① 혼례절차의 중요성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혼례절차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4>와 같다.

양가상견례가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4.13)와 미혼자(4.44)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양가 상견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교환이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60)와 미혼자(2.62)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사주교환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진단이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3.44)와 미혼자(3.52)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건강진단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궁합보기가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56)와 미혼자(2.74)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는 궁합보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혼식이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09)와 미혼자(2.67)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들이 기혼자에 비해 약혼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물교환이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89)와 미혼자(3.15)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예물교환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단하기가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56)와 미혼자(2.75)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예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단이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 들이기가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

(2.32)와 미혼자(2.64)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함 들이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함 들이기가 혼례절차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바지음식이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27)와 미혼자(2.46)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이바지음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바지음식이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첩장 발송이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3.63)와 미혼자(4.22)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청첩장 발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촬영이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88)와 미혼자(3.62)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야외촬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례식이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4.25)와 미혼자(4.47)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와 미혼자들 모두 혼례식을 혼례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미혼자들이 혼례식을 혼례절차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폐백이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3.11)와 미혼자(3.22)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나 미혼자 모두 폐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피로연 음식접대가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3.31)와 미혼자(3.82)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피로연 음식접대를 혼례절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혼여행이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4.02)와 미혼자(4.45)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신혼여행을 혼례절차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인사 하는 것이 혼례절차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4.00)와 미혼자(4.27)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감사인사 하는 것을 혼례절차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찾아오신 하객들에게 감사의 글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관례화 되고 있다.

혼례절차 중 기혼자, 미혼자 모두 양가상견례, 혼례식, 신혼여행, 감사인사, 청첩장 발송, 피로연 음식접대, 건강진단 등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촬영, 약혼식, 청첩장 발송, 신혼여행 등은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변화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혼례절차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서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혼례절차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기혼자들은 자신이 혼례를 직접 했기 때문에 혼례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여겨 이제는 점차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혼자들은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표 5-14> 혼례절차에 대한 중요도

혼례 절차	혼례 여부	Mean	SD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양가 상견례	기혼(232)	4.13	1.013	3.206	401	.001***
	미혼(171)	4.44	.889			
사주 교환	기혼(232)	2.60	1.258	.167	401	.867
	미혼(171)	2.62	1.189			
건강 진단	기혼(232)	3.44	1.226	.711	401	.477
	미혼(171)	3.52	1.134			
궁합 보기	기혼(232)	2.56	1.298	1.417	401	.157
	미혼(171)	2.74	1.146			
약혼식	기혼(232)	2.09	1.028	5.241	401	.000***
	미혼(171)	2.67	1.212			
예물 교환	기혼(232)	2.89	1.121	2.197	401	.029*
	미혼(171)	3.15	1.182			
예단 하기	기혼(232)	2.56	1.071	1.701	401	.090
	미혼(171)	2.75	1.133			
함 들이기	기혼(232)	2.32	1.066	2.936	401	.004**
	미혼(171)	2.64	1.136			
이바지 음식	기혼(232)	2.27	1.061	1.807	401	.071
	미혼(171)	2.46	1.025			
칭찬장 발송	기혼(232)	3.63	1.121	5.793	401	.000***
	미혼(171)	4.22	.844			
야외 촬영	기혼(232)	2.88	1.173	6.439	401	.000***
	미혼(171)	3.62	1.080			
혼례식	기혼(232)	4.25	.923	2.600	401	.010**
	미혼(171)	4.47	.792			
폐백	기혼(232)	3.11	1.153	.947	401	.344
	미혼(171)	3.22	1.157			
피로연 음식접대	기혼(232)	3.31	1.123	4.889	401	.000***
	미혼(171)	3.82	.948			
신혼 여행	기혼(232)	4.02	.930	4.982	401	.000***
	미혼(171)	4.45	.761			
감사 인사	기혼(232)	4.00	.942	3.009	401	.003**
	미혼(171)	4.27	.819			

* : p<.05, **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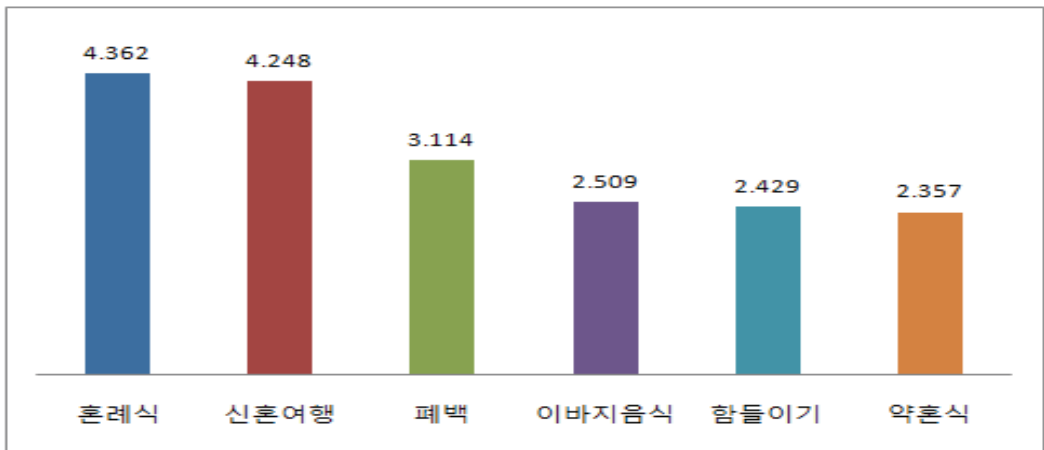
② 혼례절차 중 통과의례의 필요성

혼례절차 중 통과의례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표 5-15>와 같다. 혼례절차 중 혼례식(4.362), 신혼여행(4.248), 폐백(3.114), 이바지음식

(2.509), 함들이기(2.429), 약혼식(2.357)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5-15> 통과례의 필요성

절차	N	Mean	SD	VAR
약혼식	403	2.357	1.157	1.340
함들이기	403	2.429	1.127	1.270
혼례식	403	4.362	0.863	0.744
폐백	403	3.114	1.187	1.410
신혼여행	403	4.248	0.924	0.854
이바지음식	403	2.509	1.116	1.246



<그림 5-1> 통과례의 필요성

통과례로서 혼례식 절차에 약혼식, 함들이기, 폐백, 신혼여행, 이바지음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기혼자와 미혼자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6>과 같다.

혼례여부에 따른 혼례 절차 중 통과례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약혼식이 통과례로서 혼례식 절차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11)와 미혼자(2.69)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약혼식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들이기 행사가 통과의례로서 혼례식 절차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31)와 미혼자(2.58)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함들이기 행사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함들이기 행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례식이 통과의례로서 혼례식 절차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4.29)와 미혼자(4.46) 간에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혼례식 행사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백 행사가 통과의례로서 혼례식 절차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3.09)와 미혼자(3.14)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폐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혼여행 가는 것이 통과의례로서 혼례식 절차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4.09)와 미혼자(4.47)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신혼여행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자, 미혼자 모두 혼례식 절차에서 신혼여행을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바지음식이 통과의례로서 혼례식 절차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44)와 미혼자(2.61)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이바지음식의 필요성을 대체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례절차 중 통과의례의 필요성으로 혼례식, 신혼여행, 폐백 순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약혼식, 이바지음식, 함들이기는 점차 생략하고 혼례를 치루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6> 통과례의 필요성 검증

혼례 절차	혼례 여부	Mean	SD	F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약혼식	기혼(232)	2.11	1.071	1.321	5.107	401	.000***
	미혼(171)	2.69	1.190				
함들이기	기혼(232)	2.31	1.121	.001	2.392	401	.017*
	미혼(171)	2.58	1.121				
혼례식	기혼(232)	4.29	.920	8.483	2.000	401	.046*
	미혼(171)	4.46	.761				
폐백	기혼(232)	3.09	1.188	.707	.380	401	.704
	미혼(171)	3.14	1.190				
신혼여행	기혼(232)	4.09	.977	7.736	4.181	401	.000***
	미혼(171)	4.47	.799				
이바지 음식	기혼(232)	2.44	1.145	3.249	1.539	401	.125
	미혼(171)	2.61	1.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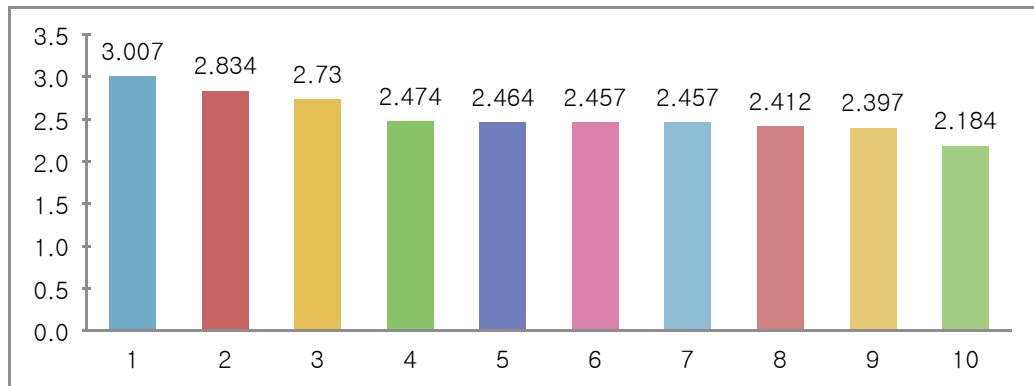
* : p<.05, *** : p<.001

(5) 전통혼례관습의 계승 필요성

전통혼례관습의 계승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17>과 같다. 전통혼례관습 중 예물주고받기(3.007), 폐백올리기(2.834), 예단 주고받기(2.730), 전통혼례예식하기(2.474), 택일단자 주고받기(2.464), 함보내기와 함들이기(2.457), 이바지음식 주고받기(2.457) 순으로 나타나 예물주고받기, 폐백올리기 등은 특히 계승되어야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전통혼례 계승 필요성

유형 \ 결과치	N	Mean	SD	VAR
사주단지 주고받기	403	2.412	1.190	1.417
혼서지 주고받기	403	2.397	1.091	1.190
택일단지 주고받기	403	2.464	1.131	1.279
함보내기와 함들이기	403	2.457	1.129	1.274
전통혼례 예식하기	403	2.474	1.091	1.190
폐백올리기	403	2.834	1.099	1.209
사당폐백 올리기	403	2.184	1.049	1.101
예물 주고받기	403	3.007	1.064	1.132
예단 주고받기	403	2.730	1.043	1.088
이바지음식 주고받기	403	2.457	1.072	1.149



- | | | | |
|-------------|---------------|--------------|-------------|
| 1. 예물주고받기 | 2. 폐백 올리기 | 3. 예단주고받기 | 4. 전통혼례예식하기 |
| 5. 택일단지주고받기 | 6. 함보내기와 함들이기 | 7. 이바지음식주고받기 | |
| 8. 사주단지주고받기 | 9. 혼서지주고받기 | 10. 사당폐백 올리기 | |

<그림 5-2> 전통혼례 계승 필요성 의식정도

전통혼례 계승 측면에서 혼례관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혼례관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표 5-18>과 같다.

사주단자 주고받기 관습이 전통혼례 계승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35)와 미혼자(2.49)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사주단자 주고받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서지 주고받기 관습이 전통혼례 계승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32)와 미혼자(2.50)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혼서지 주고받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일단자 주고받기 관습이 전통혼례 계승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47)와 미혼자(2.45)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택일단자 주고받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보내기 함들이기 관습이 전통혼례 계승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31)와 미혼자(2.66)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함보내기 함들이기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혼례 관습이 전통혼례 계승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40)와 미혼자(2.57)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전통혼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백 올리기 관습이 전통혼례 계승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85)와 미혼자(2.81)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폐백올리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당폐백 올리기 관습이 전통혼례 계승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07)와 미혼자(2.34)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사당폐백 올리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물 주고받기 관습이 전통혼례 계승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97)와 미혼자(3.06)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예물 주고받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단 주고받기 관습이 전통혼례 계승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68)와 미혼자(2.80)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예단 주고받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바지 주고받기 관습이 전통혼례 계승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2.34)와 미혼자(2.61)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이바지 주고받기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거 전통혼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혼례관습의 대부분이 생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혼자들은 예물주고받기, 폐백올리기, 예단주고받기 등은 계속 계승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당폐백 올리기, 택일단자주고받기, 사주단자주고받기, 혼서지주고받기, 전통혼례 예식하기 등의 혼례관습은 계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혼례관습을 오늘날 시대에 맞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학계나, 정부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8> 혼례관습의 계승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전통혼례 관습	혼례 여부	Mean	SD	F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사주단지 주고받기	기혼(232)	2.35	1.240	4.451	1.149	401	.251
	미혼(171)	2.49	1.119				
혼서지 주고받기	기혼(232)	2.32	1.071	.049	1.584	401	.114
	미혼(171)	2.50	1.113				
택일단지 주고받기	기혼(232)	2.47	1.147	.203	-.209	401	.835
	미혼(171)	2.45	1.112				
함보내기 함들이기	기혼(232)	2.31	1.100	.034	3.154	401	.002**
	미혼(171)	2.66	1.138				
전통혼례 예식하기	기혼(232)	2.40	1.068	.117	1.569	401	.117
	미혼(171)	2.57	1.116				
폐백 올리기	기혼(232)	2.85	1.093	1.709	-.327	401	.744
	미혼(171)	2.81	1.111				
사당폐백 올리기	기혼(232)	2.07	1.013	.530	2.573	401	.010
	미혼(171)	2.34	1.080				
예물 주고받기	기혼(232)	2.97	1.029	3.707	.826	401	.409
	미혼(171)	3.06	1.110				
예단 주고받기	기혼(232)	2.68	1.021	.411	1.184	401	.237
	미혼(171)	2.80	1.072				
이바지 주고받기	기혼(232)	2.34	1.058	.783	2.453	401	.015*
	미혼(171)	2.61	1.076				

* : p<.05, ** : p<.01

(6) 혼례절차의 학습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혼례절차에 대한 학습(부모·일가친지 등)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9>와 같다.

혼례절차의 학습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혼례절차를 학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48명(36.7%), 학습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55명(63.3%)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경우를 보면 기혼자의 경우에는 학습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20명(51.7%), 혼례절차를 학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2명(48.3%)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학습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35명(78.9%), 혼례절차를 학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6명(21.1%)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혼례절차를 부모나 일가친지들로부터 배우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혼례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례절차 학습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많이 배우고 들은 것으로 나타나 미혼자들은 혼례절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례절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전문가 양성 등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 우리의 전통혼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혼례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5-19> 혼례절차에 대한 학습 경험

혼례 여부 \ 경험		경험		
		있다	없다	전체
기혼	빈도(%)	112(48.3)	120(51.7)	232(100)
미혼	빈도(%)	36(21.1)	135(78.9)	171(100)
전체	빈도(%)	148(36.7)	255(63.3)	403(100)
		$\chi^2=31.395,$	$df=1,$	$p=.000***$

*** : $p < .001$

(7) 전통 혼례관에 대한 분석

혼례여부에 따른 전통 혼례관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전통혼례 절차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5-20>과 같다. 먼저 전통 혼례관에 대해 분석

한 결과를 보면 전통혼례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9명 (9.7%), 형식은 변화하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11명 (52.4%), 시대에 맞지 않아 계승하기 곤란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9명 (14.6%), 혼례형식과 절차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4명 (23.3%)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형식은 변화하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19명 (51.3%), 혼례형식과 절차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5명 (23.7%), 시대에 맞지 않아 계승하기 곤란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5명 (15.1%), 전통혼례를 원형 보존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명 (9.9%)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형식은 변화하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92명 (53.8%), 혼례형식과 절차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9명 (22.8%), 시대에 맞지 않아 계승하기 곤란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4명 (14.0%), 전통혼례를 원형 보존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6명 (9.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전통 혼례관을 보면 모두 전통혼례의 형식은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고 그 정신은 계승시켜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혼례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혼례 절차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예단($p < .05$), 폐백 ($p < .001$), 함($p < .01$) 등은 주고 받은 사람과 주고 받지 않은 사람 간의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원형 그대로’, ‘형식은 변화하되 정신은 계승’ 하겠다고 응답을 했을 경우 예단이나 폐백, 함 절차를 대체로 하는 경향을 띄었으며 ‘시대에 맞지 않음’, ‘개인의 선택이므로 논할 가치가 없음’이라고 응답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들을 하지 않는 경향을 띄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우리의 전통도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혼례를 원형보존하거나 형식은 변화하더라도 그 정신은 계승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혼례문화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의 전통 혼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리라 예상된다.

<표 5-20> 전통 혼례관과 혼례절차에 대한 교차분석

혼례관		전통 혼례				전체
		전통혼례 원형 보존	형식변화, 정신계승	시대에 맞지 않아 계승곤란	혼례형식, 절차 개인 선택	
기혼	빈도(%)	23(9.9)	119(51.3)	35(15.1)	55(23.7)	232(100)
미혼	빈도(%)	16(9.4)	92(53.8)	24(14.0)	39(22.8)	171(100)
전체	빈도(%)	39(9.7)	211(52.4)	59(14.6)	94(23.3)	403(100)
$\chi^2=.258, \quad df=3, \quad p=.968$						
절차		전통 혼례관				전체
		원형그대로	형식은 변화, 정신은 계승	시대에 맞지 않음	개인의 선택 논의 가치 없음	
예단	주교받음	26(10.4)	145(57.8)	33(13.1)	47(18.7)	251(100)
	안받음	13(8.6)	66(43.4)	26(17.1)	47(30.9)	152(100)
	전체	39(9.7)	211(52.4)	59(14.6)	94(23.3)	403(100)
$\chi^2=11.091, \quad df=3, \quad p=.011*$						
폐백	함	32(10.6)	172(57.0)	37(12.3)	61(20.3)	302(100)
	하지않음	7(6.9)	39(38.6)	22(21.8)	33(32.7)	101(100)
	전체	39(9.7)	211(52.4)	59(14.6)	94(23.3)	403(100)
$\chi^2=15.658, \quad df=3, \quad p=.001***$						
함	함	23(11.2)	113(55.1)	35(17.1)	34(16.6)	205(100)
	하지않음	16(8.1)	98(49.5)	24(12.1)	60(30.3)	198(100)
	전체	39(9.7)	211(52.4)	59(14.6)	94(23.3)	403(100)
$\chi^2=11.447, \quad df=3, \quad p=.010**$						

* : p<.05, ** : p<.01, *** : p<.001

5) 현구고례

현구고례는 혼례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부와 신랑이 부부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고 신랑의 가족들에게 첫 인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혼례 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폐백과, 신식혼례가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신혼여행을 현구고례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1) 폐백

신부가 시가에 와서 시부모님과 시댁친척들에게 첫인사를 드리는 禮로 신부가 그 덕 가문의 한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의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백의식 여부, 폐백시기와 장소, 폐백대상, 폐백음식, 폐백음식준비, 폐백 후 안부전화기간, 폐백의 의미, 폐백의식의 중요성 인식 등에 대하여 기혼자와 미혼자의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5-21>과 같다.

① 폐백의식 여부

혼례절차에서 폐백의식을 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폐백의식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302명(74.9%), 폐백의식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1명(25.1%)으로 나타났다.

황경애(1996)의 연구에서 폐백을 받는 여부를 조사한 결과 폐백의식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8.7%, 폐백의식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1.3%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폐백의식을 생략하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 본 연구의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폐백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폐백의식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5명(88.4%), 폐백의식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7명(11.6%)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폐백의식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97명(56.7%), 폐백의식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4명(43.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폐백의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폐백을 하지 않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폐백시기와 장소

기혼자와 미혼자의 폐백시기와 장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신행 후 시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4명(3.5%), 혼례식 후 시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4명(6.0%), 혼례식 후 예식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89명(71.7%), 생략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5명(11.2%), 기타 장소라고 응답한 사람이 31명(7.7%)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혼례식 후 예식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82.8%), 생략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4명(6.0%), 신행 후 시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명(3.9%), 혼례식 후 시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명(3.9%), 기타 장소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3.4%)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혼례식 후 예식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7명(56.7%), 생략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1명(18.1%), 기타 장소라고 응답한 사람이 23명(13.5%), 혼례식 후 시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5명(8.8%), 신행 후 시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명(2.9%)으로 나타났다.

폐백시기와 장소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자는 대부분 혼례식 후 예식장에서 하지만 미혼자의 경우에는 폐백을 생략하거나 기타 장소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폐백시기와 장소에 대한 생각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례관행을 연구한 장하경(1996)의 연구에서 폐백 장소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1950년대 이전에는 시집이 81.6%였고, 1950~1960년대에도 역시 시집이 75.8%, 1980년대가 되면서 시집과 예식장이 각각 48.1%, 34.2%로 예식장이 많아졌고, 현재에는 81.2%가 예식장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에

(1996), 김인옥(2008), 안혜숙(2010)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안혜숙(2010)의 연구에 의하면 현구고례 장소로 1960년대에는 시댁(본가)가 87.5%, 예식장 내 폐백실이 7.9%였지만, 2000년대에는 예식장 내 폐백실이 82.7%로 가장 많았고, 시댁(본가)은 2.9%로 크게 감소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날에는 전통혼례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하경(1996)의 연구 또한 1981년 이후 폐백장소는 예식장내에 있는 폐백실에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폐백은 그 형식과 의미가 많이 변화된 형태로서 절차만이 현재 신식혼례에 남아 있다.

③ 폐백대상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폐백대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신랑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27명(6.7%), 신랑신부 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74명(18.4%), 신랑부모 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8명(19.4%), 신랑신부 부모, 신랑 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3명(18.1%), 신랑신부 부모, 신랑신부 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3명(28.0%), 상황에 따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8명(9.4%)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신랑신부 부모, 신랑신부 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5명(32.3%), 신랑신부 부모, 신랑신부 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0명(25.9%), 신랑부모 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6명(24.1%), 신랑신부 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18명(7.8%), 신랑 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15명(6.5%), 상황에 따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명(3.4%)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신랑신부 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56명(32.7%), 신랑신부 부모, 신랑신부 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8명(22.2%), 상황에 따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0명(17.5%), 신랑부모 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명(12.9%), 신랑신부 부모, 신랑신부 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3명(7.6%), 신랑 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12명(7.0%)으로 나타났다.

폐백대상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자는 신랑신부 부모, 신랑신부 친척까지 확대하는 반면 미혼자들은 혼인을 할 때 신랑신부 부모에게 하겠다는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황경애(1996), 김인옥(2008)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폐백대상에 대한 생각에는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10개 종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와 비교했을 때, 폐백의식의 범위가 신랑측 시부모를 비롯해 시조부모, 시삼촌, 시숙모를 비롯한 문중어른들과 8촌까지 폐백의례가 행해졌던 것과 비교하면 폐백 대상이 최근에는 많이 축소되었고 신랑 측 뿐만 아니라 신부 측 부모와 친척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정림(2001)의 연구에서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랑측 어른들께만 폐백을 드렸으나 1990년대부터는 신부의 부모님께도 폐백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홍나영 외(2002)의 연구에서 경상도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신랑 신부가 폐백을 드릴 때 양가에 모두 절을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이전에는 서울, 전라도, 충청도 등은 시댁어른들만 받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의 신부를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보내면 자칫 섭섭해 할 수도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남아선호사상이 줄어들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에 따른 것으로, 혼례의 의미가 과거처럼 여성이 남성의 가족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만나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의미로 변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④ 폐백음식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폐백음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대추와 고기라고 응답한 사람이 51명(12.7%), 대추, 고기, 닭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7명(9.2%), 대추, 고기, 닭, 구절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1명(7.7%), 대추, 고기, 닭, 구절판, 술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34명

(33.3%),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50명(37.2%)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대추, 고기, 닭, 구절판, 술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4명(40.5%),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1명(30.6%), 대추와 고기라고 응답한 사람이 25명(10.8%), 대추, 고기, 닭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명(9.9%), 대추, 고기, 닭, 구절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명(8.2%)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9명(46.2%), 대추, 고기, 닭, 구절판, 술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0명(23.4%), 대추와 고기라고 응답한 사람이 26명(15.2%), 대추, 고기, 닭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4명(8.2%), 대추, 고기, 닭, 구절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2명(7.0%)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는 김인옥(2006)의 조사결과와 일치하고 하였다. 따라서 폐백음식의 종류 인지에 대해서는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p < .01$)가 나타났다.

⑤ 폐백음식 준비

폐백음식의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폐백음식을 마련하는 주체가 폐백음식전문점 162명(40.2%), 예식장에서 의뢰 145명(36.0%), 신부 어머니 58명(14.4%) 순으로 조사되어 폐백음식을 마련하는데 이미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혼자는 폐백음식 준비를 폐백전문 음식점 91명(39.2%), 예식장에서 의뢰하는 곳 81명(34.9%)에서 준비하였고, 미혼자들은 폐백음식 준비를 폐백음식전문점 71명(41.5%), 예식장에서 의뢰하는 곳 64명(37.4%)에서 준비하겠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폐백음식 준비 주체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폐백 후 안부전화 기간

폐백 후 조석 문안인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혼례여부에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문안인사 기간에 대해 잘 모른다가 40.0% 정도로 나타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1주일(27.3%), 3주 이상(22.3%) 순으로 나타나 조석 문안인사의 기간은 비교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백 후 안부전화 기간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폐백의 의미

폐백의 의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혼자의 경우를 보면 폐백의 의미를 옛날부터의 풍습 97명(41.8%), 혼례 후 시택에 인사하는 것 81명(34.9%), 혼례식의 당연한 절차 38명(16.4%)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미혼자들은 폐백의 의미를 옛날부터의 풍습 92명(53.8%), 혼례 후 시택에 인사하는 것 34명(19.9%), 혼례식의 당연한 절차 31명(1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숙자·이미영(2002)의 조사에서 서울지역 주부들이 ‘혼례 후 시택에 인사를 드리는 것(55.2%)’,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35.8%)’ 순으로 대답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주영애(2010)는 전통혼례절차 및 방법 중 함, 폐백, 예물과 예단 등의 절차는 계승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폐백은 다른 절차보다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혼례절차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폐백의 의미에 대한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폐백에 대한 경북지역 기혼자, 미혼자의 의식을 보면 폐백은 대체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폐백시기와 장소는 혼례식 후 예식장에서 대부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폐백대상은 양가부모 및 친척들이며, 폐백음식으로는 대추, 고기, 닭, 구절판, 술 등이나 미혼자들은 이러한 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백음식 준비는 주로 폐백전문점이나 예식장에서 의뢰하는 곳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폐백음식이 갈수록 격식만 차리는 것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폐백 후 안부전화 기간은 사람마다 다양한데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1주일 정도가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폐백의 의미에 대해 기혼자, 미혼자 모두 옛 풍습, 혼례 후 인사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특히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되면서 혼례 후 가족 간 인사인 폐백례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혼례가 단순히 부부가 되기 위해 예식의 절차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의 관련학과에서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폐백음식과 같은 전문분야의 교육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⑧ 폐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폐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5-22>와 같다. 폐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기혼자(2.96)와 미혼자(2.88)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폐백의 중요성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에 간의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애(2010), 황경애(1996)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도 폐백 절차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폐백에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1> 폐백

혼례 여부		여부		폐백 의식			전체
		한다	안 한다				
기혼	빈도(%)	205(88.4)			27(11.6)		232(100)
미혼	빈도(%)	97(56.7)			74(43.3)		171(100)
전체	빈도(%)	302(74.9)			101(25.1)		403(100)
$\chi^2=52.463, \quad df=1, \quad p=.000***$							
혼례 여부		유형		폐백 시기와 장소			전체
		신행 후 시택	혼례 후 시택	혼례 후 예식장	생략	기타 장소	
기혼	빈도(%)	9(3.9)	9(3.9)	192(82.8)	14(6.0)	8(3.4)	232(100)
미혼	빈도(%)	5(2.9)	15(8.8)	97(56.7)	31(18.1)	23(13.5)	171(100)
전체	빈도(%)	14(3.5)	24(6.0)	289(71.7)	45(11.2)	31(7.7)	403(100)
$\chi^2=39.217, \quad df=4, \quad p=.000***$							
혼례 여부		대상		폐백대상			전체
		신랑 부모	신랑신부 부모	신랑부모, 친척	양가 부모, 신랑친척	양가 부모, 양가 친척	
기혼	빈도(%)	15(6.5)	18(7.8)	56(24.1)	60(25.9)	75(32.3)	232(100)
미혼	빈도(%)	12(7.0)	56(32.7)	22(12.9)	13(7.6)	38(22.2)	171(100)
전체	빈도(%)	27(6.7)	74(18.4)	78(19.4)	73(18.1)	113(28.0)	403(100)
$\chi^2=82.435, \quad df=5, \quad p=.000***$							
혼례 여부		종류		폐백음식			전체
		대추, 고기	대추, 고기, 닭	대추, 고기, 닭, 구절판	대추, 고기, 닭, 구절판, 술	잘 모름	
기혼	빈도(%)	25(10.8)	23(9.9)	19(8.2)	94(40.5)	71(30.6)	232(100)
미혼	빈도(%)	26(15.2)	14(8.2)	12(7.0)	40(23.4)	79(46.2)	171(100)
전체	빈도(%)	51(12.7)	37(9.2)	31(7.7)	134(33.3)	150(37.2)	403(100)
$\chi^2=17.137, \quad df=4, \quad p=.002**$							
혼례 여부		주체		폐백음식 준비			전체
		신부 어머니	예식장 외뢰	폐백전문 음식점	기타		
기혼	빈도(%)	43(18.5)	81(34.9)	91(39.2)	17(7.3)		232(100)
미혼	빈도(%)	15(8.8)	64(37.4)	71(41.5)	21(12.3)		171(100)
전체	빈도(%)	58(14.4)	145(36.0)	162(40.2)	38(9.4)		403(100)
$\chi^2=9.382, \quad df=3, \quad p=.025*$							
혼례 여부		기간		폐백 후 안부전화			전체
		1주일	2주일	3주일	3주 이상	잘 모름	
기혼	빈도(%)	61(26.3)	11(4.7)	6(2.6)	61(26.3)	93(40.1)	232(100)
미혼	빈도(%)	49(28.7)	20(11.7)	5(2.9)	29(17.0)	68(39.8)	171(100)
전체	빈도(%)	110(27.3)	31(7.7)	11(2.7)	90(22.3)	161(40.0)	403(100)
$\chi^2=10.275, \quad df=4, \quad p=.036*$							
혼례 여부		의미		폐백의 의미			전체
		혼례 후 시택 인사	옛 풍습	혼례식 절차	기타		
기혼	빈도(%)	81(34.9)	97(41.8)	38(16.4)	16(6.9)		232(100)
미혼	빈도(%)	34(19.9)	92(53.8)	31(18.1)	14(8.2)		171(100)
전체	빈도(%)	115(28.5)	189(46.9)	69(17.1)	30(7.4)		403(100)
$\chi^2=11.208, \quad df=3, \quad p=.011*$							

* : p<.05, ** : p<.01, *** : p<.001

<표 5-22> 폐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혼인여부 \ 결과치	Mean	SD	F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기혼(232)	2.96	.834	1.051	-.972	401	.332
미혼(171)	2.88	.889				

(2) 신혼여행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신혼 여행지, 신혼여행 후 첫 방문 장소, 신혼 여행 후 처가 체류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5-23>과 같다.

① 신혼 여행지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신혼여행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미혼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혼 여행지로 국외 144명(84.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국외 96명(42.3%)보다는 국내 131명(57.5%)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혜숙(2010)의 연구에서도 1960년대에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이 89.8%였고 대부분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국내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이 16.7%에 불과하고 83.3%의 사람들은 국내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1980년대에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은 2.4%에 불과하고, 처음으로 국외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2.4%에 달했다. 2000년대에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이 0.3%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 여행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장소 결정에는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신혼여행 후 첫 방문 장소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신혼여행 후 첫 방문 장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신혼여행 후 첫 방문 장소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신부 친정이라는 응답이 249명(6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랑본가 75명(18.6%), 신혼집 73명(18.1%)순으로 나타나 황경애(1996)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신혼여행 후 첫 방문 장소에 대해 기혼자와 미혼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신혼여행 후 처가 체류기간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신혼여행 후 처가 체류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신혼여행 후 체류기간이 1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20명(54.6%), 2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0명(27.3%), 3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9명(9.7%), 4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명(2.0%),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명(6.5%)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는 1일 체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43명(61.6%)로 가장 많았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1일 체류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2일, 3일 체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에 비해 많았다. 따라서 신혼여행 후 처가 체류기간에는 기혼자와 미혼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여행은 1960년대까지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 여유를 가진 중산층 이상만이 신혼여행을 갔으며 특히 이 시절은 택시를 타고 근교 유원지, 온천 등을 주로 갔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 시작했고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와 1990년대 경제적 풍요와 함께 나타난 신혼여행 문화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이다.

1990년대 초에는 많은 예식대행업체가 생기고, 1992년 최초 대규모 결혼

상품전시회가 개최되어 이들 대행업체에서 혼례식장 예약, 피로연 대행, 결혼/약혼 실내음악연주, 사진/비디오 촬영, 신부용 부케/화환제작, 가전, 신혼여행 알선 여행사, 자동차 대여업 등 혼례준비에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책임지게 되었다(박부진, 2007).

이제 신혼여행지로는 대다수 신혼부부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며, 신혼여행 후에는 첫 방문지로는 신부의 친정을 들리며, 신부의 친정에 체류기간은 1~2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며칠 동안 머물렀지만 산업사회에 전환되면서 기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3> 신혼여행지, 신혼여행 후 첫 방문지 및 처가체류기간

혼례 여부		장소	신혼여행			전체
			국내	국외	가지 않음	
기혼	빈도(%)		131(57.5)	96(42.3)	5(2.2)	232(100)
미혼	빈도(%)		27(15.8)	144(84.2)	0(0.0)	171(100)
전체	빈도(%)		158(39.2)	240(59.6)	5(2.2)	403(100)
			$\chi^2=75.553$	df=2	p=.000***	

혼례 여부		장소	신혼여행 후 첫 방문				전체
			신랑본가	신부 친정	신혼집	기타	
기혼	빈도(%)		34(14.7)	157(67.7)	37(15.9)	4(1.7)	232(100)
미혼	빈도(%)		41(24.0)	92(53.8)	36(21.1)	2(1.2)	171(100)
전체	빈도(%)		75(18.6)	249(61.8)	73(18.1)	6(1.5)	403(100)
			$\chi^2=9.281$	df=3,	p=.026*		

혼례 여부		기간	신혼여행 후 처가 체류					전체
			1일	2일	3일	4일	기타	
기혼	빈도(%)		143(61.6)	61(26.3)	15(6.5)	1(0.4)	12(5.2)	232(100)
미혼	빈도(%)		77(45.0)	49(28.7)	24(14.0)	7(4.1)	14(8.2)	171(100)
전체	빈도(%)		220(54.6)	110(27.3)	39(9.7)	8(2.0)	26(6.5)	403(100)
			$\chi^2=19.043$	df=4	p=.001***			

* : p<.05, *** : p<.001

VI. 논의 및 결론

1. 논의

지금까지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종가, 기혼자, 미혼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가의 혼례를 통하여 과거의 혼례문화를 이해하고 기혼자의 혼례를 통하여 현재의 혼례문화를 파악하고 미혼자의 혼례를 통하여 향후 혼례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생활문화 중의 하나인 혼례는 전통적으로 가문과 가문 또는 개인과 개인의 성스러운 결합으로 그 과정이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의미하는 소중한 의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통 혼례문화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막중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문대대로 전통을 지키며 살아온 종가에서조차도 전통혼례문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경북지역의 10개 종가 중 본인의 혼례를 전통혼례로 치른 가문은 8가문이었으나 자제의 혼례를 전통으로 한 가문은 2가문 뿐이었다.

이러한 종가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종가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유교적 사상을 국시로 삼던 조선시대에서 개화기를 거치면서 일제문물과 서구식 문화가 유입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힘입어 근대사회로 진입되어 빠른 산업화를 겪게 되면서 가치관이 크게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외래종교의 유입으로 인한 외래사상과 전통의례간의 마찰과 갈등으로 야기된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혼례의 정신과 원형은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가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로 많은 부분이 신식혼례와 희석되었지만 혼례의 마지막 절차인 폐백례 만큼은 집에서 치른 점, 혼인 시 오가던 납채의 절차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점 등에서 전통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통혼례의 원형을 복원하여 그 의미와 절차를 오늘에 맞게 재조명한 후 신식혼례에 접목시킴으로써 전통혼례의 정신과 의미를 국민들이 가슴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체, 학계,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혼례를 이어가기 위해 전통문화알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현재 여러 지자체나 문화원에서 전통문화 알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홍보부족과 관심 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2000년 들어 국가정책으로 ‘한스타일’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이 지정되어 한국을 알리는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어 그나마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혼례문화에 대한 발굴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진다. 본 연구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23가문 중에 10가문을 제외하고 13가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중 6가문 이상이 종손과 종부가 연로한 경우였다. 현재 50~60대의 종부들은 거의 신식교육을 받은 신여성들로 전통혼례를 많이 접해 보지는 못했지만 가문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해들은 경우가 많아 실

제의 상황을 제대로 전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물질만능주의로 야기되는 현대사회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져 갈지도 모르는 종가의 노종손, 노종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혼례문화에 대한 사례조사를 하여 소중한 자료(구술 및 기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또한 생각 외로 종가에서 간직하고 있는 혼례유물은 많지 않았다. 각 가문에서 기탁하여 국학진흥원에서 펴낸 책자에도 고서, 고문서, 목판, 서화류 및 기타유물 등이 있었으나 혼례와 관련된 유물은 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문화의 하나인 혼례가 역사 속에서 가끔은 소홀시 또는 경원시 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혼례와 관련된 유물들은 청혼서, 허혼서, 사주단지, 택일단지, 물목기, 홀기 등의 혼례서식, 혼서보, 연길보, 폐백보, 사주보 등의 보자기, 함, 채단, 부용향, 황낭 등의 납폐물, 봉치상, 전안상, 대례상, 시부모 폐백상, 신랑신부큰상, 그리고 증인들의 구술 등이 있다. 이들 유형·무형의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고 자료화하여 전통의 형식과 격식을 보존하고 기록하여 영구히 그 맥을 이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혼례 절차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록물로 남기는 작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전통방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전통혼례 예법을 신식혼례에 맞게 변형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현대의 젊은이들은 전통혼례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고 한다. 전통혼례의 의미와 절차를 살린 새로운 혼례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과도한 혼례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을 혼례식장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 협의체’를 구성, 혼례가이드북 제작 보급 등의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혼상제 문화 개선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며 특히 장·차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호화 혼례식을 자율적으로 자제하여 혼례가 자신의

위신과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회풍토를 바로 잡고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신성한 출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신세대들은 혼례의 절차와 의미에 대해 사전 교육이 전혀 없이 혼인하다 보니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쉽게 이혼하는 가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신세대들에게 혼례의 본래 의미를 고취시키고 혼례절차와 혼례관습을 제대로 알려주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영애(2009)는 전통혼례절차에 교육적 확대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과목에서의 전통문화교육이나 대학의 교양과정 그리고 사회교육으로 진행되는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 마스크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구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전통혼례문화에 대한 교육은 전통혼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전통혼례방식으로 혼례를 원하는 신세대들이 쉽게 예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결론

본 연구는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종가, 기혼자, 미혼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실태조사를 통해 혼례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혼례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의 전통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경북지역의 10개 종가의 종손과 종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현 혼례문화의 실태와 향후 혼례문화의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자, 미혼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혼 시 경북지역 10개 종가 모두 중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으며 2개 종가를 제외한 8개 종가에서 전통혼례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혼인 연도는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까지 다양하였다. 경상도와 서울 지역의 혼례문화의 변천에 대해 연구한 홍나영 외(2002)의 조사에서는 서울 지역은 1950년대부터, 경상도 지역은 1960년대부터 서양식 혼례를 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경상도 지역이 서울 지역보다 신식 혼례의 도입이 늦었음을 알 수 있다. 면접대상인 10개의 종가 중 6개의 종가에서 전통혼례를 치른 것은 경상도지역의 신식혼례 도입이 늦었던 점도 있으나 종가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기혼자의 3.0%가 전통혼례를 하였으며, 미혼자의 경우 1.2%만이 전통혼례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재는 서양식 혼례가 굉장히 보편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1969년에 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것으로 정부주도하에 혼례의식을 현대화하고자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매혼을 한 경우 중매의 주체는 종가의 경우 일가친척 및 친지들이 주로 하였으나 기혼자는 친인척 및 직장동료, 미혼자는 결혼정보회사의 도움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회사원,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최근에는 초혼 뿐만 아니라 재혼도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핵가족화와 바쁜 도시생활 등으로 인해 일가친지의 뵙는 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혼인을 알선 해 주는 전문기관이 등장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혼정보회사는 1990년대부터 등장하여 현재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대표적인 결혼정보회사인 듀오, 선우, 닥스, 행복출발 등의 활약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들 기관을 통해 혼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가의 가입비, 성혼의 어려움 등으로 이러한 기관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만남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또한 미혼자의 경우 혼인 준비를 할 때 웨딩 플래너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향후 웨딩플래너를 통한 혼례준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혼례를 치르는 장소로 과거는 신부집 앞마당이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이 거의 예식장(75.0%) 향후에도 예식장(48.5%) 또는 호텔(25.7%) 등에서 행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혼례식이 가능한 예식장 수가 2,269개로 이중 일반웨딩홀이 1,330개, 호텔웨딩홀이 253개로 나타나 앞으로도 두 장소를 중심으로 많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송홍규, 2010). 이 중 호텔예식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컨벤션 등의 일반예식장과 비용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므로 미혼자(25.7%)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성 있는 혼례식을 원하는 신랑 신부가 많아져 이벤트 예식이 성행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납채의 경우 10개의 증가 대부분 청혼서와 허혼서, 사주단자, 연길을 주고

받는 의식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기혼자들의 약 70%이상이 청혼서와 허혼서, 사주단자와 택일단자를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자들은 모른다와 주고받지 않는다가 대부분이어서 납채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업 종사자들의 전통혼례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조사한 김인옥(2008)의 연구에 따르면 혼인 준비가 시작되는 납채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납폐와 친영 등 혼례의식 전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납채는 혼례과정 중 초입 단계로서 양가의 혼인에 대한 의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식업 종사자들의 납채에 대한 의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신랑신부를 비롯하여 양가 부모님을 상담하고 혼례를 진행시켜주는 중개자이자 진행자로서의 역할에 우려할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납폐의 경우 함은 10개 종가 중 경주최씨를 제외한 9개 종가에서 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 대례 당일 신랑과 함께 들어간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지역과 경상도 지역 모두 1960년대까지는 함 의식이 흔히 행해졌으나 1970년대부터는 간단하게 하거나 생략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는 시루떡 위에 함을 올리거나 쪽박을 깨는 등 액막이 행위는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청·홍 옷감으로 자손을 점치는 의식은 거의 생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도 지역의 경우에는 1990년대까지도 촛불을 켜고 조상께 고하는 의식이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울 지역에 비해 전통의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림(2001)의 연구에서도 과거에 함은 혼인 전에 신부를 위해 수공예품으로 만들어진 품목들로 따로 만들어졌으며 1950년대까지는 보편적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차츰 ‘여행용 가방’ 형식의 함이 등장하고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것이 혼례 절차에도 반영되어 전통적인 관습 및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실질적인 방향으

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는 시댁에 예단으로서 이불과 옷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물의 경우에도 사례가 여의치 않더라도 간소하게나마 예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예물 교환이 혼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예단, 예물을 주고받는 여부에 대하여 기혼자와 미혼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일수록 예물, 예단을 주고받겠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과거 경제 성장기에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예물과 예단의 고급화에 의한 반작용 현상과 한국의 경제 침체 등의 복합적인 사회적 여건에 의한 현상이라고 여겨지며 이에 따라 혼인 절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례의 경우 10개 종가의 경우 전통혼례를 치른 6개 가문에서 신부집 마당에서 거행했지만 앞으로는 예식장과 호텔 내 식당에서 올리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가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정의례의 하나인 혼례도 전문 의례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상업화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대사회가 점차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잘 갖추어진 전문식장을 선호하게 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미혼자의 경우 기존의 판에 박은 듯한 형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화된 이벤트예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향후에는 이벤트 기획자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아진다. 혼례음식의 경우 과거에는 신행음식을 중요시 생각하여 친정에서 정성껏 준비하였으나 기혼자와 미혼자들의 경우 봉채떡, 큰상, 신행음식 등은 모르고 관심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혼례음식은 폐백음식, 이바지 음식 정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구고례의 경우 10개 종가의 사례 모두 시댁에서 시부모와 문중 어른들

을 비롯한 친척들을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는 며칠 동안 친지들의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신부회가를 행한 사례도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폐백의 여부에 대해 기혼자의 88.4%는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혼자들의 43.3%는 하지 않겠다고 응답을 하였다. 또한 폐백장소로는 기혼 · 미혼 모두 혼례식 후 예식장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 폐백례 역시 서양식 혼례식이 도입되고 혼례 장소가 예식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간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신식혼례를 했더라도 폐백만큼은 집에서 치루었던 것이 1969년 『가정의례준칙』의 반포로 인해 예식장 안의 폐백실로 옮겨진지 40년 정도에 불과하나 폐백례를 올리지 않겠다는 미혼자들의 의식이 많아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1시간 이내의 짧은 혼례시간 중 폐백은 늘 마지막에 올리는 예였고 급하면 대충하기도 하는 잘못된 풍습에서 생겨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예식장이 예식시간을 늘이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폐백례가 전통의 미덕을 살린 예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폐백 대상의 경우 과거 시대 어른들만으로 한정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신랑 측 뿐만 아니라 신부 측 부모와 친척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강정림(2001)의 연구에서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랑 측 어른들께만 폐백을 드렸으나 1990년대부터는 신부의 부모님께도 폐백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홍나영 외(2002)의 연구에서 경상도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신랑 신부가 폐백을 드릴 때 양가에 모두 절을 드리는 예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일반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 서울보다 빨리 폐백의례의 양가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남아선호사상이 줄어들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에 따른 것으로, 혼인의 의미가 과거처럼 여성이 남성의 가족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만나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의미로 변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며 현재 많은 가정이 무남독녀가 많아지면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섭섭해 할 신부댁 부모님을 위로하는 처사라고도 볼 수 있다.

폐백음식의 경우 과거 종가에서는 잔유과, 빙사, 대추, 밤 등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친정집에서 직접 해 갔으나 현재는 폐백음식전문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백음식은 무엇으로 준비했는지 모르는 신랑 신부가 37.2%로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대추, 고기, 닭, 구절판, 술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아버지용인 대추, 시어머니용인 육포는 앞으로도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폐백품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폐백 후 시부모님께 드리던 조식 문안은 종가에서는 1개월에서 3년까지 행하는 가문이 많았으나 현재는 시부모와 동거를 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해서 안부전화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부전화는 2주일 정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잘모르겠다’고 답한 경우가 많아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혼인 후 시댁에 잘 적응하고 시댁 가족들과도 잘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보아진다. 혼례 후에 이루어지는 신방엿보기와 신랑다루기 등의 풍습은 과거엔 행하였으나 오늘날은 신혼첫날밤의 장소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잊혀져 가는 미풍양속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혼례문화의 전망 및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미혼자들은 혼례준비를 웨딩플래너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에서 21세기 유망직종으로 꼽고 있는 웨딩플래너는 1990년 후반부터 생겨나 고객들을 상대로 혼례 상담을 해주고 정보도 주며 혼례식의 진행 및 절차, 이벤트 등을 기획해 주는 역할을 한다(여성가족부, 2004). 현재 전국적으로 3,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송홍규, 2010) 실제 예비신부의 66%가 웨딩플래너를 이용하여 혼례준비를 하고 있

다(마이웨딩, 2008). 웨딩플래너를 선호하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혼례상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37.0%)가 가장 큰 이유이므로, 향후 웨딩플래너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웨딩시장에서 웨딩플래너는 ‘상품중개자’의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혼례 전 부부의 예비교육, 혼례 후의 사후관리까지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혼례와 관련된 학과 및 사회교육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혼례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웨딩플래너를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현재 웨딩플래너를 양성중인 학교는 대학원 1곳, 대학 2곳, 전문대학 7곳, 전문학교 3곳이 있으며 사실 양성기관으로는 8곳이 있다(이향숙, 2010). 이들 중 전문대학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서울지역 업체와의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식관련 학과도 필요한 인력에 비해 훨씬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예식업체 대부분의 인력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학에서의 예식관련 학과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또한 중매혼의 경우 결혼정보회사의 커플매니저를 통한 성혼이 많은 것으로 보아 향후 커플매니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웨딩플래너나 커플매니저는 정부에서 여성의 유희인력을 경제활동 인구로 재창출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혼례형태는 기존 예식장에서 벗어나 호텔, 이벤트예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혼례식 건수 중 전통혼례, 하우스웨딩, 야외웨딩홀, 종교기관, 기타장소 등을 이용한 혼례식이 예식의 15%를 넘고 있다(송홍규, 2010). 기존 혼례시간이 1시간 이내에서 현재 1시간 30분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이벤트를 담당 할 혼례이벤트 전문기획자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장소에 따른 이벤트예식, 계절에

다른 이벤트예식, 신랑·신부의 컨셉에 따른 이벤트 예식을 기획하여 개성 있는 신랑·신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신혼여행은 이제 국내보다 국외여행을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여행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생에 한번 있는 신혼여행을 뜻 깊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행사들은 여행상품에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한다. 휴양형, 레저형, 관광형의 나라별 테마별 상품을 개발하여 신혼부부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넷째, 예단, 예물, 혼수에 있어서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주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미혼자의 31.0%가 ‘정성으로’ 라고 응답한 경우로 보아 앞으로 예단, 예물, 혼수 등에서 과도한 지출보다는 실속 있게 준비할 것으로 전망되어지나 혼례 준비의 주체자인 부모님의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2011)는 관혼상제 중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혼례’를 꼽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과다한 혼수’(56.1%)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또한 조사대상자의 62.5%가 ‘형편에 맞는 혼수준비 문화 정착’을 꼽은 만큼 이 부분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현구고례에 대해 미혼자의 경우 43.3%가 ‘하지 않겠다’고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약간의 과도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혼례절차 필요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10가지 항목 중 혼례식, 신혼여행, 폐백례 등은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향후에도 혼례절차에서 폐백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래 폐백이란 ‘혼례 후 시댁어른을 처음 뵙는 인사’이므로 전통적 의미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이나 오늘날 남녀 간의 교제가 자유로워지고 연애혼이 늘어나면서 혼례 전에 이미 시댁어른들을 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미혼자들의 혼례 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한편 폐백음식 마련은 과거 신행 갈 때 친정 어머니가 손수해 주시던 것에서 폐백음식전문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폐백전문음식점이 성행할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제대로 된 폐백음식을 만들 수 있는 폐백음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진다.

여섯째, 전통혼례 계승필요정도의 10개 항목 중 예물주고받기, 폐백올리기, 예단주고받기 등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통혼례식하기, 택일단자주고받기, 함보내기와 함들이기, 이바지음식 주고받기, 사주단자 주고받기, 혼서지 주고받기, 사당폐백 올리기 등의 절차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식업 종사자들은 혼례에 대한 기초 지식 교육 및 예식장 내에 혼례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누구든지 쉽게 전통혼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곱째, 전통혼례 절차인식 분석에서 “전통혼례의 정신은 계승하고 형식은 변화해야 한다”가 높게 나타난 바 전통혼례의 형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5가지 전통혼례 절차 속에 담겨진 정신을 살리고 이벤트 요소를 가미하여 문화콘텐츠화 시켜나가면 전통혼례방식과 신식혼례 방식이 조화되어 보다 의미 있는 혼례식이 될 것이다. 일본의 전통혼례로 대표되는 신사식 혼례는 100년 정도의 역사에 불과하지만 현재 일본의 혼례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에서 전통혼례를 치르려면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비용의 몇 배를 더 지불해야 가능하지만 우리의 전통혼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올린다는 일련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시대에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혼례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애착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역할을 담당 할 혼례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이상 경북지역 혼례문화의 흐름을 증가, 기혼자, 미혼자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경북지역 혼례문화는 여러 사회 변동을 거치면서 그 형식과 절차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혼례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전통혼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경북지역 10개 종가의 종손과 종부의 면접, 기혼자, 미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많은 연구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의 표본이 경북지방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혼례문화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혼례는 지역적으로 특수성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지역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향후 연구과제로는 각 지역별 혼례문화 비교, 구체적으로 시대별 혼례문화의 변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지역별, 시대별 혼례문화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혼례문화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혼례문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민석(2006). 한국전통혼례연구.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17(2). pp.29-60.
- 강은숙(1981). 서울시와 제천시의 미혼남녀의 혼례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림(2001). 한국 사회변동과 혼례문화의 변화: 1940년대-199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정(2007). 근현대 한국사회 중부(宗婦)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립문화재연구소(2005). 종가의 제례와 음식. 서울: 김영사.
- 권병숙(2007). 이제 『사재편람』의 혼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경묘(2002). 부산·경남지역 주부들의 혼례음식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2005). 전통생활문화와 혼례의 실제. 한국가정과학회지 8(4). pp.3-4.
- 김광희(2002). 혼례음식에 대한 인지와 이용실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덕호(2001).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 서울: 월인.
- 김명나(1989).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나(1998). 도시주부의 혼례의식,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 신혼기 주부의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모란(1994).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관한 연구: 도시중산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1987). 한국 청소년의 혼례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07). 조상제례의 변화와 정체성 지속에 관한 연구. 한국국학진흥원 역사민속학 25. pp.271-300.
- 김미정·윤혜현(2007). 서울시내 대학생의 통과례와 음식에 관한 인식조사 1보-백일. 돌과 혼례.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3(1). pp.140-149.
- 김성숙·서병숙(1999). 계층, 물질주의, 과소비성향에 따른 혼례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9). pp.25-38.
- 김소은(2006). 신식혼례에 나타난 전통혼례복의 변천과 실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덕(1995). 일생의례의 역사. 임재해·한양명 엮음. 한국민속사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 김신연(2009). 한국 전통예절 문화의 원리 -혼례, 제례, 다례를 중심으로-. 문명연지 9(2). pp.165-197.
- 김영옥(1999).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 및 혼례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pp.29-43.
- 김영혜 · 이내영(2006). 대학생들의 출산관과 혼례관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19. p.37.
- 김은영 외 8명(1998). 대학생의 혼례관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생활과학 31. pp.90-94.
- 김인옥(2006). 한국사회 결혼예식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생활학회지 9(1). pp.1-13.
- 김인옥(2007). 가정의례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김인옥(2008). 예식업 종사자의 전통혼례에 대한 의식과 태도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pp.1181-1195.
- 김인옥(2009). 근대화 이후 한국 혼례 산업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웨딩학회지 1. pp.29-43.
- 김인옥(2011). 한국의 혼인문화. 서울: 도서출판 구상.
- 김인옥 · 류미현(2007). 예식서비스정보와 예식전문가에 대한 소비자 요구. 대한가정학회지 45(9). pp.75-87.
- 김주희(2003). 일제 후반기 혼례 예식과 혼수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가족과 문화 15(3). pp.87-110. 159-160.
- 김준희(2007). 혼례음식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이용실태 비교.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08). 조선시대 여성 예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주연(2001). 조선시대 궁중과 사대부의 혼례절차와 혼례복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동신대학교 여성문화연구소(2002). 남도 종가문화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 지역정보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pp.34-46.
- 문영표(2004). 사례편람과 거가잡복고의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종필(2007). 초등 사회과 관혼상제 관련 내용 및 학생인식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속학술 자료총서(2001a). 예 가례 · 혼례1. 서울: 도서출판 터 우리마당.
- 민속학술 자료총서(2001b). 예 관혼상제3. 서울: 도서출판 터 우리마당.
- 박동철(2006).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자(1991). 도시중간계층의 혼인거래 관행에 관한 연구.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또 하나의 문화. pp.147-176.
- 박범수(1999). 혼례의 근본정신과 혼례의식의 개선.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5. pp.57-82.
- 박부진(2007). 신혼여행의 문화사. 한국문화인류학회지 40(1). pp.3-42.
- 박선웅(1999). 혼례의 문화적 모순과 상품화. 가족과 문화 11(1). pp.79-101.
- 박숙자(1991).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또 하나의 문화. pp.75-116.
- 박양래(2006). 조선시대 사대부의 관혼상제의 차례와 복식: 『주자가례』와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인(1987). 한국 전통혼례의 가족사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인(1988).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 -서류부가 혼속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박혜인(1991). 한국 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또 하나의 문화.
- 박혜인·조은숙(1998). IMF경제위기이후 혼례비용의 계층별 변화: 대구 시민에 대한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0. pp.139-154.
- 생활예절연구회(2003). 가정의례백과(관혼상제). 서울: 매일출판.
- 서리나·유명의(2003). 청소년의 증가 생활문화 현장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증가 복식문화 사례연구: 전남 함평 증가를 대상으로. 복식문화연구 11(5). pp.753-766.
- 서수용(2001). 조선 <한>민족 전통예절 심포지움: 한국 혼례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모색. 동양예학 6. pp.113-128.
- 선영란(2002). 생애사를 통해 본 중부의 정체성.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월례자료집 3.
- 손유미(1990). 서울거주 부부의 통과의례에 대한 의식과 의례음식의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재용(2007). 한국의례의 연구. 서울: 제이앤씨.
- 송흥규(2010). 한국 웨딩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2010년 한국웨딩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집. pp.1-9.
- 신덕성(1988). 한국인의 혼례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진(1997).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성(1988). 한국인의 결혼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성(2005). 한국과 중국의 전통혼례복식에 관한 연구: 18-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혜숙(2010). 한국사회의 산업화 이후 혼례관행 변화에 관한 연구: 1960년대-2000년대를

-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pp.87-108.
- 안혜숙·주영애·김인옥(2002). 한국의 가정의례와 세시풍속. 서울: 신정.
- 양동철(2002).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전통예절 학습을 위한 코스웨어 설계 및 구현. 금호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중동(1996). 전통혼례. 서울: 문음사.
- 유가호(2008). 일제시대 결혼결정과정을 통해서 본 결혼문화의 비교. 한국학논집 36. pp.417-450. 470-471.
- 윤달원(1978). 한국 여대생들의 성공적인 혼례관 지도를 위한 일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숙자·이미영(2002). 서울지역 주부들의 혼례음식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7(5). pp.569-577.
- 윤천근(2001). 안동의 종가. 서울: 지식문화사.
- 윤택림·함한희(2006).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 이광규(1997). 우리나라의 혼례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2). pp.203-206.
- 이광수(1936). 혼례론(結婚論). 여성 1936년 4월호. p.67.
- 이광자(1999). 광복이후 우리나라 혼·제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 pp.153-187.
-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길표·주영애(1994). 조선조 혼인의례 중 현구고례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 8.
- 이길표·최배영(1997). 조선후기 규범서에 나타난 여성의 혼인준비교육.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35. pp.315-331.
- 이길표·최배영(1998). 주자가례와 그에 나타난 혼례에 관한 고찰. 대학가정학회지 36(3). pp.77-86.
- 이길표·최배영(1999). 사례를 통해 본 조선후기 서울 반가의 혼례문화.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pp.99-108.
- 이길표·최배영(2000). 조선후기 의례서에 나타난 혼례에 대한 역사적 고찰: 19세기 전반-20세기 초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8. pp.177-191.
- 이남희(2005). 한국혼인의 연속과 변화: 전통혼인정신의 현대적 재조명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능화(1978). 조선여속고. 대양서적.
- 이동원(1983). 도시가족(서울)에 관한 연구(Ⅱ). 혼례에 대한 태도 비교: 1958-1980.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9. 이화여자대학교. pp.197-225.

- 이배용(1995). 한국 근대사의 전환과 혼인제도의 변화. 이화사학연구. 23·24합집. pp.39-54.
- 이배용(1999). 개화기 일제시기 혼례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한국근현대사연구 10. pp.214-245.
- 이선영(1993). 혼례행례의 의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원(2008). 천년의 선비를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 이성해(1973). 도시근교 농촌의 혼인에 관한 사례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1991). 회재 이언적 가문의 사회·경제적 기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논총 12. pp.21-70.
- 이숙 외(2002). 한국전통생활문화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 제12집. pp.57-69.
- 이연자(2001). 종가이야기. 서울: (주)북21 컬처라인.
- 이영임(2005). 조선시대 의례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금·서병숙(1999). 도시민의 혼례의식에 대한 관련요인분석.-미혼남녀와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4). pp.111-124.
- 이정덕(1998). 혼례와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pp.114-147.
- 이정우·김명나(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혼례식·제사 및 회갑연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집 8. pp.23-47.
- 이준일(2007). 영주 선비촌 운영의 지역 문화적 의의와 프로그램 개선방향.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1998). 전통사회 혼인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숙(2010). 웨딩플래너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웨딩학회지 2(2). pp.1-19.
- 이희재(2002). 혼례의 철학적 의미. 유교사상연구 17. pp.83-103.
- 이희재(2007). 전통의례. 서울: 한국학술정보
- 임귀희(2009). 한국전통혼례의 예학적 탐구. 성균관대학교 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영(1990). 도시주부의 혼수관행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철수(1984).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장철수(1995a). 서울의 사회풍속사. 서울 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 연구소. pp.193-263.
- 장철수(1995b). 한국의 관혼상제. 서울: 집문당.
- 장하경(1996).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pp.147-161.
- 전경목(2002). 전라남도 종가조사 역사편.남도 종가문화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 워크샵 자료집. 동신대학교 여성문화연구소. pp.5-18.

- 전필례(1999).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한국 혼례문화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경·백중은·조용범(2009). 부산지역 거주 여성의 전통혼례음식 인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5(1). pp.181-190.
- 정영숙·권수애·장혜자(2001). 충청지역 대학생과 그들의 어머니의 혼례관련 의식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0(2). pp.165-178.
- 정용선 외(1995).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혼례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교환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pp.115-136.
- 조강희(2007). 영남지방 양반가문의 혼인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 조국선(2004). 전통혼례의 사상적 기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라(2004). 『주자가례』의 형성과 조선 수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연(2007). 한국 혼례 시장의 현황과 예측.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숙(2004). 사계 김장생의 예학사상 연구: 『가례집람』 「혼례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천래(2008). 전통혼례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한국전통문화학회 문화재학 5. pp.291-326.
- 조홍운(2003).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민족과 문화 12. pp.23-34.
- 조희선(2002). 조선시대에서의 혼인의 사회적 의미 -가부장제 강화와 신분제 실천기제로서의 혼인-. 유교사상연구 17. 한국유교학회.
- 조희선(2008). 조선조 혼인규제와 실제에 관한 소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pp.29-47.
- 조희선·류미현(1999). 사례를 통해서 본 혼수관행문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pp.179-190.
- 주강현(2000). 전통생활문화 계승·발전 방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9(2). pp.7-29.
- 주령(2008). 한·중 혼례와 혼례음식의 비교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애(2010). 한국전통혼례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일 연구. 가족자원경영학회 14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집.
- 주영애·이향숙(2009). 학위논문을 통해 본 혼례 연구의 내용 분석과 전망. 한국웨딩학회지 1(1). pp.15-27.
- 주종찬(2003). 외식산업 혼례예식메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1995). 혼례 의례절차와 물질적 재화교환의 관행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배영(1999). 가례서를 통해 본 혼례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배영(2004). 조선후기 서울 반가의 함 사례연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7(2). pp.129-131.
- 최신덕(1980). 계층별로 혼례행동에 나타난 여성역할: 여공과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6.
- 최신덕(1986). 도시부부의 혼례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pp.191-198.
- 한국국학진흥원(2003).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국학자료 목록집. 재령이씨 영해파 증가 고전적.
- 한국국학진흥원(2004). 2004 국학자료 목록집(下).
- 한국국학진흥원(2005a). 2005년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下).
- 한국국학진흥원(2005b).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국학자료 목록집. 풍산류씨 하회마을 화경당(복촌).
- 한국국학진흥원(2007a). 안동문화바로알기. 안동: 도서출판 영남사.
- 한국국학진흥원(2007b). 2007년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목록집 下.
- 한국국학진흥원(2007c). 한국국학진흥원소장 국학자료 목록집 7. 오미동 풍산김씨 허백당 문중.
- 한국국학진흥원(2008). 전통의 맥을 잇는 증가문화. 안동: 도서출판 영남사.
- 한국국학진흥원(2009a). 청송 영양. 서울: (주)포스트미디어
- 한국국학진흥원(2009b). 한국국학진흥원소장 국학자료 목록집 8. 풍산류씨 충효당.
- 한국국학진흥원(2010).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국학자료 목록집. 의성김씨 천전파 대종택.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2005). 세계의 혼인문화. 서울: 외국어대학교출판부.
-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2000). 조선 후기 서울 반가의 혼례. 서울: 거목문화사.
- 허영선(2007). 부산·경남 지역의 전통혼례음식에 대한 인지도 연구.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선·조용범·우성근(2008). 부산·경남지역의 전통혼례음식에 대한 인지도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7(7). pp.131-145.
- 홍나영·이은진·박선희(2002).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과 경상도의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1). pp.141-156.
- 황경애(1994). 혼례행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경애(1996). 혼인 행례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진주지역 주부들을 중심으로. 진주산업대학교 논문집. pp.111-134.
- 황경애·이길표(1994). 혼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pp.163-174.
- 황기아·이복희(2004). 주부의 가치성향과 혼례의식·혼례행태와의 관계. 한국가정과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

Abstract

A Study on the Wedding Culture in Gyeongbuk Province

Lee Hyang-Sook

Dept.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weddings have changed and what kind of wedding culture will be continued in the future in Gyeongbuk Province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groups: the eldest sons and their wives in the main family; married people; unmarried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rve and develop the desirable elements of traditional wedding cultures through the eldest sons' marriage, to understand the real situation of the present wedding cultures from the married people's responses, and to suggest the advisable Korean wedding cultures based on the unmarried people's response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case research and a survey were conducted. The subjects of the case research were the eldest sons and their wives of 10 main families in Gyeongbuk Province where the Korean traditional wedding cultures have been preserved best.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married and unmarried residents of Gyeongbuk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turned out that the marriages of the eldest sons were all arranged, and six families had traditional wedding ceremonies. The western wedding ceremonies have appeared in Seoul since 1950s while in Gyeongsang Province since 1960s, which means that Gyeongsang Province was slower to adopt the western wedding. The fact that six main families performed traditional weddings could be connected not only with the starting point of the western wedding ceremonies but also the eldest sons' intentions to preserve the tradition of their own families.

There were many main families whose marriages were academically related with Toegye Yi Hwang for generations. And each family had its preference toward another family when dealing with marriage.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most of the eldest sons on the study were connected by marriages through which close bond of their relatives was formed. In addition, many common people depend on a fortune-teller to predict their marital harmony, whereas people from the main family hardly asked about their marital compatibility.

According to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most of the subjects in ten main families followed traditional wedding procedures strictly, such as sending a letter asking for marriage, receiving a letter permitting marriage, and the best marriage date. However, it was found that more than seventy percent of married couples in today's society did not follow these traditional wedding procedures. Most of the unmarried people mentioned that they had not heard of the procedures and would not follow them. It suggests that the

procedures are shortened or left out. As a matter of fact, ceremonies and procedures have important roles in wedding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Korean Language Wedding Documents should be created and distributed to the whole nation.

All the main families except family Kyongju-Choi used *Ham*, a box of wedding gifts. *Ham* was accepted by a bridegroom on the day when he met his bride firstly. It is shown that a bride usually prepared bedclothes and clothing as a wedding gift to her groom's family(in-laws). Even if the circumstances didn't allow, simple gifts were exchanged because exchanging gifts would carry an important meaning when it came to weddings. On the other hand, furnishings for the new house were prepared by the bride. They were small in number and a wardrobe and a dressing table were groom's to prepare in Gyeongbuk Province, which is distinctly different from other area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married people and unmarried people had different ideas about exchanging wedding gifts. The percentage of the unmarried people who wanted to exchange wedding gifts was especially low.

This could be seen as a negative reaction to the gentrified wedding gifts which were social problems when the economy grew fast in the past. Also recent economic depression and other following complex factors might have caused this cultural phenomenon. For this reason, more people are beginning to have reasonable thoughts about wedding procedures.

In cases of weddings, 6 out of 10 main families of Gyeongbuk Province had their traditional weddings performed in the yard of the

bride's house. They will be performed, however, in wedding halls or hotel ceremonial halls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as our society went through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weddings also became gradually commercialized due to the appearance of many professional ceremonial agencies. New generations are reluctant to perform traditional wedding ceremonies, pursuing a more modernized wedding because of its simplicity and convenience.

Out of 10 main families of Gyeongbuk Province, all brides paid a visit to the groom's parents and relatives including family elders when exchanging greetings. In some main families, there were cases where a bride visited her relatives to share greetings for several days. In the past, Pyebek (traditional ceremony to pay respect to the bride's or groom's family by the newly-wedded couple right after their wedding) was limited only to the in-laws, but recently a bride's parents and relatives also have their parts in the ceremony. Besides, a bride's parents prepared food for the Pyebek which included oil-and-honey pastry, sherbet, jujube, chestnuts and others that took a lot of effort to make. Nowadays, restaurants that professionally deal with this ceremony are much more preferred. The greetings in the morning and evening were made to the parents-in-law after Pyebek for one month or as long as three years in many main families. This custom is replaced with a short greeting through phones these days. The fine traditional post-wedding customs, "Peeking into a bridal room" and "Torturing the groom", which were practiced in the past, are disappearing due to a lot of factors, such as change of the wedding night's location.

As this study has shown above, wedding cultures have greatly changed or faded away according to the society's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On the other hand, new cultures have been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westernized wedding ceremonies. Further studies are recommended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preserving the meaning and procedures of traditional weddings and establishing much more progressive wedding cultures.

Epilogue

필자가 종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북 안동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로써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고교시절 안동댐을 지나면서 바라본 고성이씨 종택인 임청각은 꽤 오래 필자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다. 종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일반인과 다른 생활을 하며 특별한 무엇이 있을까? 라고 말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종가 사람들을 연구하고 싶은 의지를 실현하였다.

2011년 3월, 34번 국도를 타고 고향에 다녀오던 중, 의성김씨 귀봉종가를 지나게 되었다. 늘 무심히 지나가던 종가였지만 문득 발길을 멈추게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88세의 노종부가 혼자서 식사를 하시고 계셨다. 88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음성과 옛날에 대한 기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가문의 많은 비밀과 회한을 간직한 종부는 자기 이야기는 들을 것이 없다며 한사코 인터뷰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렇게 1차 방문이 끝나고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서울에서 아들 내외가 내려와 있었다. 어렵사리 아들 내외를 설득한 끝에 종부를 인터뷰하게 되었다. 아들 내외는 최근 종가가 이슈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가를 방문하고 인터뷰 요청을 해서 힘들다고 했다. 혹여 가문의 비밀이 새어나갈까 하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거절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가 안동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란 사실 때문에 문전박대는 어려웠던 것이다.

필자는 또 다른 우수한 명망가문인 서애종가를 방문하고 싶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간 곳으로 화제가 된 안동의 하회마을, 서애 유성룡 선생의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다. 운 좋게도 서애종가를 다녀가던 한 일가친척의 안내로 종가의 내당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다. 두루마기를 곱게 차려입고 나오신 종손께 절을 올리고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종손은 서애종가의 후손답게 유교적 규범과 인성, 생활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다. 종손과의 인터뷰가 끝나고 종부와 인터뷰를 해야 했다. 종손의 허락을 얻어 안방에 계신 종부를 만날 수 있

었는데 83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하얀 피부를 간직하신 소녀 같은 분이셨다. 종부께서는 앨범 한권을 꺼내시면서 한장 한장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두 분이 혼인하신 대례사진과 폐백을 올린 사진도 함께 있었다. 서애종가의 인터뷰가 끝난 후 필자는 또 다른 명문가인 영천이씨 농암종가를 찾아갔으나 아쉽게도 다음에 오라는 말만 듣고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그 후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종부와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처음부터 종부와의 인터뷰가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

종가는 개인적으로 가족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이미 한국사회에서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있는 공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과거에는 종가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가문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환경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종가 중심의 생활문화는 의·식·주생활 및 가정의례를 통한 유형의 문화자원이 함께 공존하는 대표적인 생활문화자원이다. 특히 혼례는 각 가문마다 내려오는 전통의 혼례풍속을 알 수 있는 유형의 문화자산이다.

21세기는 글로벌 지식사회와 디지털, 산업화라는 화두를 탄생시키면서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의 요소를 간직한 종가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점점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종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의 전통혼례에 대한 풍습을 보전하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연구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끝으로 논문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귀중한 전통혼례 관련 자료와 전통혼례와 관련 한 인터뷰에 응해주신 종가의 종손과 종부님,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 록

연구 동의서

연구과제 :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자료수집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면서 아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녹화할 것이며 그 내용은 녹취하여 원본사료를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며 연구 및 여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 자료에 대한 제반권리를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영상, 사진, 이미지,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다.

년 월 일

가 문 : _____ 대손(부) _____

연락처 : _____

서 명 : _____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 름 : _____

소 속 : _____

서 명 : _____


연구동의서

연구과제 :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자료수집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면서 아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녹화할 것이며 그 내용은 녹취하여 원본사료를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며 연구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자료에 대한 저작권리를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영상, 사진, 이미지,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다.

2011년 6월 4일

가 문 : 영철이씨 농암 흥가 동부 대순(부)
연락처 :
서명 :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 이 광우
소속 : 영천대학교 평생학습센터
서명 : 


연구동의서

연구과제 :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


본인은 연구자의 자료수집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구술에 참여하면서 아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녹화할 것이며 그 내용은 녹취하여 원본사료를 만든다.
2.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보존·관리하며 연구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나는 구술자료에 대한 저작권리를 연구자에게 이양한다. 나의 영상, 사진, 이미지,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다.

2011년 5월 21일

가 문 : 경주 김씨 사생은파 대순(부)
연락처 :
서명 :  (서명)

연구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이름 : 이 광우
소속 : 영천대학교 평생학습센터
서명 : 

【면접 설문지】

ID No.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사논문으로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견이나 느낌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조사에 기꺼이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하십시오.

2011년 4월

- ▶ 지도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주영애
- ▶ 연구자 :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이향숙

I. 면접자의 개인·환경적 특성

1	주소		
2	어느 맥 증가		씨 파 고택 중부 중손
3	성함(자신의 본관)		
4	출생지		
5	출생년도		
6	혼인날짜		
7	친정 (본관)	부	
		모	
	시댁 (본관)	부	
		모	
8	자제분		남 너
9	혼례형태		
10	함		
11	약혼식		
12	배우자선택		
13	혼례식장소		
14	폐백		

II. 혼례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의혼

- 1) 몇 살에 혼사말이 오고 갑니까?
- 2) 혼사말이 오가고 양가 집안의 상은 없으셨습니까?
- 3) 중매쟁이가 중간에 있으셨습니까?

2. 납채

- 1) 청혼서와 허혼서는 오고 갔습니까?
- 2) 납채서를 보내기 전 새벽에 일어나 사당에 아뢴습니까?
- 3) 사주와 납채서는 누가 들고 갔습니까?
- 4) 납채서를 받은 여자집에서는 어떤 질차를 치렀습니까?
- 5) 혼인날짜는 어느덕에서 정했습니까?
- 6) 택일지는 받았습니까?

3. 납폐

- 1) 신랑집 → 신부집으로 보낸 것
 - (1) 혼서지는 보냈습니까?
 - (2) 물목기가 있었습니까?
 - (3) 납폐(함)를 보내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4) 납폐(함)의 범위는 몇 촌까지 준비하였습니까?
 - (5) 금기시하던 납폐 품목이 있었습니까?
 - (6) 함속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 (7) 함을 보내고 받는 의식은 어떻게 치렀습니까?
 - (8) 신부집에서 함을 받는 의식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 신부집→신랑집

- (1) 준비하는 예단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 (2) 예단범위는 몇촌까지 준비하였습니까?
- (3) 조상예단은 하였습니까?
- (4) 금기시하던 예단품목이 있었습니까?

3) 오늘날처럼 서로 주고받던 예물이 있었습니까?

- (1) 신랑이 신부에게 해 주던 물건
- (2) 신부가 신랑에게 해 주던 물건

4) 혼수용 세간

- (1) 혼수용 세간은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4. 대례

- 1) 혼인하던 당일 초자례 초녀례는 했습니까?
- 2) 혼인하던 당일 절차는 어떠하였습니까?
- 3) 혼인하던 당일 신부집 풍경은 어떠했습니까?
- 4) 신부택에서는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 5) 약혼식은 하였습니까?
- 6) 혼례는 어디에서 치르고 몇일만에 우귀하였습니까?
- 7) 첫날밤은 어떠하였습니까?
- 8) 혼례복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 9) 혼례당일 신랑이 넘어야 할 미션이 있었습니까?
- 10) 신랑다루기를 하였습니까?

5. 현구고례

- 1) 본가로 돌아가서 어떤 예를 올렸습니까?
- 2) 조석 문안은 며칠 간 하였습니까?
- 3) 폐백은 몇 촌까지 하였습니까?
- 4) 폐백 시 어떤 옷을 입고 하였습니까?
- 5) 폐백음식은 어떤 음식을 준비하였습니까?
- 6) 사당폐백은 하였습니까?

6. 종부님의 자제분은 혼사를 치르셨습니까?

치루었다면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7. 덕에서만 지켜왔다고 생각되는 혼인관행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8. 장래 혼례문화는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9. 이 시대의 후손들에게 종부로써 해 주고 싶은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설 문 지】

ID No.

--	--	--

<기 혼 자 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에 대한 박사학위논문 준비를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내용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규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며, 순수한 학문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귀하의 성실한 답변과 귀중한 시간 내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 지도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주영애

▶ 연구자 :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이향숙

◆ **예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7. 예물을 주고받았습니까?

- (1) 주고받았다 (2) 주고받지 않았다

8. 예물을 주고받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1) 약혼식 때 (2) 함 넣을 때 (3) 폐백 받을 때 (4) 신행 후 (5) 기타

9. 예물은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 (1) 현금 (2) 물품 (3) 현금 및 물품 (4) 하지 않음

10. 혼례를 할 때 예물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체 혼례 비용 중 각 영역에 따라 귀하는 어느 정도 부담했습니까?

	부담하지 않음---반반씩부담----전부부담
11. 예단(배우자 가족에게 선물로 드리는 혼수품)	(1)----(2)----(3)----(4)----(5)
12. 예물(배우자와 주고받는 혼수품)	(1)----(2)----(3)----(4)----(5)
13. 신혼살림 장만	(1)----(2)----(3)----(4)----(5)
14. 주택	(1)----(2)----(3)----(4)----(5)

◆ **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15. 함 반기 의식을 했습니까?

- (1) 했다 (2) 안 했다

16. 함 보낼 때 어떤 물품을 넣었습니까?

- (1) 혼서지와 청홍양단 (2) 혼서지와 청홍양단, 곡식(콩, 팥 등)
 (3) 혼서지와 청홍양단, 폐물, 계절옷감 (4) 폐물, 계절옷감, 폐물
 (5) 기타() (6) 잘 모르겠다

17. 함 받을 때 신부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 (1) 한복 (2) 양장 (3) 평상복 (4) 기타

18. 함은 혼례식 며칠 전에 받았습니까?

- (1) 혼례당일 (2) 1주일 전 (3) 2주일 전

- (4) 3주일 전 (5) 1개월 전 (6)기타
19. 함 보내기 행사에서 함 전달자는 누구였습니까?
 (1) 신랑친구 (2) 신랑의 형제나 일가친척 (3) 신랑
 (4) 기타()

20. 혼례 절차에서 함 보내기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조금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IV. 대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끝까지 읽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혼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혼례식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1) 예식장 (2) 호텔 (3) 컨벤션 (4) 교회
 (5) 성당 (6) 절 (7) 기타

2. 혼례식장의 위치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신랑 집 근처 (2) 신부 집 근처 (3) 기타()

3. 예식장의 위치가 가지는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않다	그다지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조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혼례식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1) 전통혼례 (2) 호텔 혼례식 (3) 예식장 혼례식
 (4) 종교기관 혼례식 (5) 이벤트예식 (6) 기타

5. 예식시간은 언제였습니까?
 (1) 오전 (2) 오후 (3) 저녁 (4) 기타

6. 예식 소요시간은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1) 1시간 미만 (2) 1~2 시간 미만 (3) 2~3 시간 미만 (4) 3시간 이상

◆ **혼례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7. 혼례복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1) 전통복장(한복)

(2) 현대복장(웨딩드레스)

◆ **혼례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8. 혼례 시 이바지음식을 주고받았습니까?

(1) 주고 받았다

(2) 주고받지 않았다

혼례 음식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9. 봉채떡(봉치떡)	(1) 알고 있다	(2) 모르겠다	(3) 관심 없다
10. 폐백음식	(1) 알고 있다	(2) 모르겠다	(3) 관심 없다
11. 큰상	(1) 알고 있다	(2) 모르겠다	(3) 관심 없다
12. 이바지음식	(1) 알고 있다	(2) 모르겠다	(3) 관심 없다
13. 신행음식	(1) 알고 있다	(2) 모르겠다	(3) 관심 없다

다음 혼례 음식들은 혼례 절차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14. 봉채떡(봉치떡)	①	②	③	④	⑤
15. 폐백음식	①	②	③	④	⑤
16. 큰상	①	②	③	④	⑤
17. 이바지음식	①	②	③	④	⑤
18. 신행음식	①	②	③	④	⑤

◆ 혼례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혼례절차입니다. 각 절차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	전혀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아주중요하다
19. 양가 상견례	①	②	③	④	⑤
20. 사주교환(납채)	①	②	③	④	⑤
21. 건강진단서 교환	①	②	③	④	⑤
22. 궁합보기	①	②	③	④	⑤
23. 약혼식	①	②	③	④	⑤
24. 예물교환	①	②	③	④	⑤
25. 예단하기	①	②	③	④	⑤
26. 함들이기	①	②	③	④	⑤
27. 이바지 음식	①	②	③	④	⑤
28. 청첩장 발송	①	②	③	④	⑤
29. 야외촬영	①	②	③	④	⑤
30. 혼례식	①	②	③	④	⑤
31. 폐백	①	②	③	④	⑤
32. 피로연 음식접대	①	②	③	④	⑤
33. 신혼여행	①	②	③	④	⑤
34. 하객, 부조자에게 감사인사	①	②	③	④	⑤

통과의례로서 다음 혼례식 절차(약혼식-함들이기-혼례식-폐백-신혼여행-이바지음식)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필요하지않다		보통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35. 약혼식	①	②	③	④	⑤
36. 함들이기	①	②	③	④	⑤
37. 혼례식	①	②	③	④	⑤
38. 폐백	①	②	③	④	⑤
39. 신혼여행	①	②	③	④	⑤
40. 이바지음식	①	②	③	④	⑤

전통혼례 계승의 측면에서 다음 혼례 관습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만드시 필요하다
41. 사주단지 주고받기	①	②	③	④	⑤
42. 혼서지 주고받기	①	②	③	④	⑤
43. 택일단지 주고받기	①	②	③	④	⑤
44. 함보내기와 함들이기	①	②	③	④	⑤
45. 전통혼례예식하기	①	②	③	④	⑤
46. 폐백 올리기	①	②	③	④	⑤
47. 사당폐백 올리기	①	②	③	④	⑤
48. 예물 주고받기	①	②	③	④	⑤
49. 예단 주고받기	①	②	③	④	⑤
50. 이바지음식 주고받기	①	②	③	④	⑤

51. 혼례절차와 관련한 가르침을 부모나 일가친치로부터 배우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52. 전통혼례는?

(1) 전통혼례원형은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

(2) 형식은 변화하지만, 정신은 이어가야 한다.

(3)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전통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4) 혼례형식과 절차는 개인이 선택이므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

V. 현우고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끝까지 읽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폐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폐백의식을 했습니까?
(1) 했다 (2) 하지 않았다
2. 폐백시기와 장소는 언제 어디였습니까?
(1) 신혼여행 후 시댁에서 (2) 혼례식 후 시댁에서
(3) 혼례식 후 예식장에서 (4) 안했다
3. 폐백을 올리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1) 신랑 부모님
(2) 신랑, 신부 부모님
(3) 신랑 부모님과 일가친척
(4) 신랑 신부 부모님과 신랑 일가친척
(5) 신랑 신부 부모님과 신랑 신부 일가친척
(6) 상황에 따라 다르다
4. 폐백을 올릴 때 준비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1) 대추폐백, 고기폐백
(2) 대추폐백, 고기폐백, 닭폐백
(3) 대추폐백, 고기폐백, 닭폐백, 구절판
(4) 대추폐백, 고기폐백, 닭폐백, 구절판, 술
(5) 잘 모르겠다.
5. 폐백음식은 어디에서 마련하였습니까?
(1) 신부 어머니 (2) 예식장에서 의뢰하는 곳 (3) 폐백전문음식점 (4) 기타
6. 폐백 후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안부전화(조석문안인사)는 얼마동안 했습니까?
(1) 1주일 (2) 2주일 (3) 3주일 (4) 3주 이상 (4) 잘 모르겠다
7. 폐백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혼례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는 것
(2)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
(3) 혼례식의 당연한 절차
(4) 기타()

8. 혼례 절차에서 폐백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신혼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 (1) 국내 (2) 국외 (3) 하지 않았다

2. 신혼여행 후 처음 방문 장소는 어디입니까?

- (1) 신랑 본가 (2) 신부 친정 (3) 신혼집 (4) 기타

3. 처가에는 며칠이나 머물렀습니까?

- (1) 1일 (2) 2일 (3) 3일 (4) 4일 (5) 기타()

V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 목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혼배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3. 연령	만 ()세	
4. 직업	① 전문/기술직	② 사무직
	④ 자영업	⑤ 주부
5. 월수입	① 100~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⑤ 500~600만원 미만
6. 학력	① 고등학교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재)졸업	⑤ 대학원 이상
7.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④ 무교	⑤ 기타

설문내용이 다소 어렵고 복잡한데 끝까지 읽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지】

ID No.

--	--	--

<미혼자 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에 대한 박사학위논문 준비를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내용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규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며, 순수한 학문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귀하의 성실한 답변과 귀중한 시간 내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 ▶ 지도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주영애
- ▶ 연구자 :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이향숙

Ⅲ. **납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끝까지 읽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예단을 주고받겠습니까?

- (1) 주고 받겠다 (2) 주고받지 않겠다

2. 예단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시댁 가족과의 첫인사이므로
(2) 부족해도 잘 봐주길 바라며
(3) 정성으로
(4) 체면상
(5) 기타

3. 예단을 받는 대상 범위는 누구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배우자의 부모님
(2)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4)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친척
(5) 기타

4. 예단이 필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전통 예에 어긋난다.
(2) 첫 생신에 인사하면 된다.
(3) 허세라고 생각 한다.
(4) 뇌물 같아서 불쾌하다.
(5) 기타

5. 돌아가신 조상(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예단도 하시겠습니까?

- (1) 하겠다 (2) 안 하겠다

6. 혼례를 할 때 예단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필요하지않다	그다지 필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예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7. 예물을 주고받겠습니까?

- (1) 주고 받겠다 (2) 주고받지 않겠다

8. 예물을 주고받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약혼식 때 (2) 함 넣을 때 (3) 폐백 받을 때 (4) 신행 후 (5) 기타

9. 예물은 어떤 형태로 하시겠습니까?

- (1) 현금 (2) 물품 (3) 현금 및 물품 (4) 하지 않음

10. 혼례를 할 때 예물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필요하지않다	그다지 필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체 혼례 비용 중 각 영역에 따라 귀하는 어느 정도 부담하시겠습니까?

	부담하지않음---반반씩부담---전부부담
11. 예단(배우자 가족에게 선물로 드리는 혼수품)	(1)----(2)----(3)----(4)----(5)
12. 예물(배우자와 주고받는 혼수품)	(1)----(2)----(3)----(4)----(5)
13. 신혼살림 장만	(1)----(2)----(3)----(4)----(5)
14. 주택	(1)----(2)----(3)----(4)----(5)

◆ 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15. 함 받기 의식을 하겠습니까?

- (1) 하겠다 (2) 안 하겠다

16. 함 보낼 때 어떤 물품을 넣으시겠습니까?

- (1) 혼서지와 청홍양단 (2) 혼서지와 청홍양단, 곡식(콩, 팥 등)
 (3) 혼서지와 청홍양단, 폐물, 계절옷감 (4) 폐물, 계절옷감
 (5) 기타() (6) 잘 모르겠다

17. 함 받을 때 신부는 무엇을 입겠습니까?

- (1) 한복 (2) 양장 (3) 평상복 (4) 기타

18. 함은 혼례식 며칠 전에 받겠습니까?

- (1) 혼례당일 (2) 1주일 전 (3) 2주일 전
 (4) 3주일 전 (5) 1개월 전 (6)기타

19. 함 보내기 행사에서 함 전달자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 (1) 신랑친구 (2) 신랑의 형제나 일가친척 (3) 신랑
(4) 기타()

20. 혼례 절차에서 함 보내기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조금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IV. 대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끝까지 읽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혼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혼례식은 어디에서 하고 싶습니까?

- (1) 예식장 (2) 호텔 (3) 컨벤션 (4) 교회
(5) 성당 (6) 절 (7) 기타

2. 혼례식장의 위치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신랑 집 근처 (2) 신부 집 근처 (3) 기타()

3. 예식장의 위치가 가지는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않다	그다지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조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혼례식의 형태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 (1) 전통혼례 (2) 호텔 혼례식 (3) 예식장 혼례식
(4) 종교기관 혼례식 (5) 이벤트예식 (6) 기타

5. 예식시간은 언제가 좋습니까?

- (1) 오전 (2) 오후 (3) 저녁 (4) 기타

6. 예식 소요시간은 몇 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1) 1시간 미만 (2) 1~2 시간 미만 (3) 2~3 시간 미만 (4) 3시간 이상

◆ 혼례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혼례절차입니다. 각 절차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	전혀중요 하지않다		보통이다		아주 중요하다
19. 양가 상견례	①	②	③	④	⑤
20. 사주교환(납채)	①	②	③	④	⑤
21. 건강진단서 교환	①	②	③	④	⑤
22. 궁합보기	①	②	③	④	⑤
23. 약혼식	①	②	③	④	⑤
24. 예물교환	①	②	③	④	⑤
25. 예단하기	①	②	③	④	⑤
26. 함들이기	①	②	③	④	⑤
27. 이바지 음식	①	②	③	④	⑤
28. 청첩장 발송	①	②	③	④	⑤
29. 야외촬영	①	②	③	④	⑤
30. 혼례식	①	②	③	④	⑤
31. 폐백	①	②	③	④	⑤
32. 피로연 음식접대	①	②	③	④	⑤
33. 신혼여행	①	②	③	④	⑤
34. 하객, 부조자에게 감사인사	①	②	③	④	⑤

통과의례로서 다음 혼례식 절차(약혼식-함들이기-혼례식-폐백-신혼여행-이바지음식)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필요 하지않 다		보통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35. 약혼식	①	②	③	④	⑤
36. 함들이기	①	②	③	④	⑤
37. 혼례식	①	②	③	④	⑤
38. 폐백	①	②	③	④	⑤
39. 신혼여행	①	②	③	④	⑤
40. 이바지음식	①	②	③	④	⑤

전통혼례 계승의 측면에서 다음 혼례 관습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41. 사주단자 주고받기	①	②	③	④	⑤
42. 혼서지 주고받기	①	②	③	④	⑤
43. 택일단자 주고받기	①	②	③	④	⑤
44. 함보내기와 함들이기	①	②	③	④	⑤
45. 전통혼례예식하기	①	②	③	④	⑤
46. 폐백 올리기	①	②	③	④	⑤
47. 사당폐백 올리기	①	②	③	④	⑤
48. 예물 주고받기	①	②	③	④	⑤
49. 예단 주고받기	①	②	③	④	⑤
50. 이바지음식 주고받기	①	②	③	④	⑤

51. 혼례절차와 관련한 가르침을 부모나 일가친지로부터 배우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52. 전통혼례는?

- (1) 전통혼례원형은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
- (2) 형식은 변화하지만, 정신은 이어가야 한다.
- (3)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전통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 (4) 혼례형식과 절차는 개인이 선택이므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

V. 현구고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끝까지 읽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폐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폐백의식을 하겠습니까?
(1) 하겠다 (2) 하지 않겠다
2. 폐백시기와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신혼여행 후 시댁에서 (2) 혼례식 후 시댁에서
(3) 혼례식 후 예식장에서 (4) 안했다
3. 폐백을 올리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신랑 부모님
(2) 신랑, 신부 부모님
(3) 신랑 부모님과 일가친척
(4) 신랑 신부 부모님과 신랑 일가친척
(5) 신랑 신부 부모님과 신랑 신부 일가친척
(6) 상황에 따라 다르다
4. 폐백을 올릴 때 준비할 음식은 무엇입니까?
(1) 대추폐백, 고기폐백
(2) 대추폐백, 고기폐백, 닭폐백
(3) 대추폐백, 고기폐백, 닭폐백, 구절판
(4) 대추폐백, 고기폐백, 닭폐백, 구절판, 술
(5) 잘 모르겠다.
5. 폐백음식은 어디에서 마련하겠습니까?
(1) 신부 어머니 (2) 예식장에서 의뢰하는 곳 (3) 폐백전문음식점 (4) 기타
6. 폐백 후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안부전화(조석문안인사) 는 얼마동안 하시겠습니까?
(1) 1주일 (2) 2주일 (3) 3주일 (4) 3주 이상 (4) 잘 모르겠다
7. 폐백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혼례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는 것
(2)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
(3) 혼례식의 당연한 절차
(4) 기타()

8. 혼례 절차에서 폐백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신혼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 (1) 국내 (2) 국외 (3) 하지 않겠다

2. 신혼여행 후 처음 방문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신랑 본가 (2) 신부 친정 (3) 신혼집 (4) 기타

3. 처가에는 며칠이나 머물겠습니까?

- (1) 1일 (2) 2일 (3) 3일 (4) 4일 (5) 기타()

V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 목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혼례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3. 연령	만 ()세	
4. 직업	① 전문/기술직	② 사무직
	④ 자영업	⑤ 주부
5. 월수입	① 100~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⑤ 500~600만원 미만
6. 학력	① 고등학교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재)졸업	⑤ 대학원 이상
7.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④ 무교	⑤ 기타

설문내용이 다소 어렵고 복잡한데 끝까지 읽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